거제근대 잔존유적지 현황조사 및
콘텐츠 방안 보고서 별책

# 거제섬(巨濟島)의 역사와 거제민의 삶

고대, 봉건 사회 : 고영화 作成. 근대, 현대 사회 : 전갑생 作成

거제시의회 거제역사관광연구회

# 차 례

1. 거제도(巨濟島)의 역사 서문(序文)

2. 원시 공동체 선사시대의 거제도(巨濟島)

1) 신석기 시대와 패총

2) 청동기 시대와 고인돌

3) 거제도(巨濟島) 철기시대

3. 거제도(巨濟島) 고대사(古代史)

1) 변한(弁韓)과 독로국(瀆盧國)

2) 거제도의 고대 지명, 독로(瀆盧) 주노(周奴) 상군(裳郡)

3) 천혜의 해상 경유지 거제도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700년)

4) 포상팔국(浦上八國, 창원~사천까지)의 난

4. 중앙정부 통치시대의 거제(巨濟), 남북국시대와 고려시대

1) 남북국 시대의 거제군(巨濟郡)

2) 고려시대 거제현(巨濟縣)

(가) 고려시대 거제현의 행정구역 변천

(나) 거제관문(巨濟關門) 오양역원(烏壤驛院) 설치

(다) 고려 1128년 거제도 3속현의 항쟁

(라) 고려시대 거제 유배상황

(마) 고려범종 거제 북사종(巨濟北寺鐘) 혜일사종(惠日寺鐘)

(바) 삼별초 항쟁과 거제현민의 강제 이주

(사) 고려말 변방지역으로 재편, 독립적인 지방행정 단위의 존립위기

5. 봉건(封建) 조선시대 거제현(巨濟縣)

1) 거제현(巨濟縣)의 환도(還島)와 독립 지방행정 복구

2) 거제현(巨濟縣)의 수군 7진영과 군사 방어시설

3) 거제현(巨濟縣)의 토산품과 진상품

4) 거제(巨濟) 목장역사 및 구점(驅點)

(가) 거제7목장 구점(驅點)금지 1645년

(나) 거제도 목장 역사 기록물

(다) 조선전기 거제도 목장의 운영 상황

5) 거제현과 3속현의 성씨(姓氏) 일람(一覽)

6) 15세기 조선통신사 거제도에서 출발하다

(가) 여말선초(麗末鮮初) 조선통신사(회례사) 파견

(나) 조·일 무역에 대한 계해조약(癸亥條約) 체결

7) 거제도의 항거왜인(恒居倭人)과 삼포왜란

8) 임진왜란과 거제도

(가) 옥포해전과 읍치 고현성 함락

(나) 거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錄)과 거제출신 전쟁영웅

9) 거제(巨濟)의 관방(關防)시설의 현황과 건조물(建造物). 조선후기

(가) 조선후기 거제 7진보의 재정 운영

(나) 거제도 봉수대 운영

(다) 거제도 성곽(城郭)

(라) 거제의 누정(樓亭)과 향교

10) 조선후기 거제읍치 관가(官家) 건물(建物) 현황

11) 조선후기 행정구역 변천, 면리제(面里制)와 호구(戶口)

12) 거제부 수군조련(水軍操練), 수군 군사훈련

13) 표류왜인 처리 및 과다한 조세부담과 옥포왜학

(가) 거제도 봉망대(烽望臺) 및 거제 표류 왜인(倭人) 처리

(나) 거제도 옥포 왜학(倭學)

14) 조선후기 거제부(巨濟府)의 행정상황과 도민(島民)의 생활상

(가) 1664년 거제읍치 이전 사유

(나) 1711년 거제도호부 승격 사유(事由)

(다) 거제유배인 거제인의 생활상을 기록하다

(라) 조선후기 거제부의 해세액(海稅額)과 재정 현황

15) 조선말기 삼정(三政)의 문란과 과도한 세금부담

6. 근대 사회의 거제시

1) 대한제국과 거제

2) 일제강점기와 거제

(가) 대한제국 명례궁 거제어장

(나) 일본어업 이주촌 형성과 어장침탈

(다) 거제의 행정·치안기구

3) 거제의 항일운동

(가) 3.1민족해방운동과 청년회 활동

(나) 거제지역의 연합 청년운동과 주요 항일운동가

(다) 전시체제와 전쟁의 강풍

7. 현대 사회의 거제시

1) 해방과 거제

2) 대한민국과 거제

(가) 한국전쟁과 거제도 포로수용소

(나) 군사독재와 민주화운동

(다) 거제군의 복군과 새로운 미래

○ 거제시의 특징과 맺음말

# <거제섬(巨濟島)의 역사(歷史)와 거제민의 삶>

## 1. 거제도(巨濟島)의 역사 서문(序文)

거제의 유구한 역사는 한마디로 "주변부(변방), 해양성(섬과 바다)"인 '주변적 인식'이나 '변방적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거제의 문제인식은 "섬과 바다"라는 공간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것과, 고대로부터 계속되어진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사적 인식이다. 또한 거제의 일반사(一般史)를 지방에서 증명하기 위한 역사나 중앙을 의식한 역사가 아니라, 땅에 새겨진 역사, 땅속에 묻힌 역사, 땅과 함께 전해져 온 역사를 지방의 향기와 함께 전하는 것이며, '인간성을 우선' 하는 것이 지방사라고 하가·노보루는 말하고 있다.

지역역사 연구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변별성을 잃게 되고 동어반복적인 논의로 말미암아 탄력성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미 짜여진 틀 속의 역사가 아니라 구체적 일상을 살았던 지역서민의 이야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제의 무속신앙도 마찬가지다. 아득한 옛날, 인간의 삶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무속신앙은 늘 이 땅의 선조와 함께 해 왔다. 종교라기보다도 우리 조상의 고난에 지친 삶을 위로해온 소중한 자산인데도, 오늘날 우리는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추상적인 조상은 배우지만, 이 땅에 살아온 나의 조상, 지역의 선조에 대해서는 배움이 없었다. 아니 우리지역 선조의 역사를 부정하기도 한다. 이건 자기분열 행위이자 자기부정행위라 할 수 있다. 간혹 국사 교과서에 지방이야기가 등장해도 그것은 이 땅의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초기 이행(李荇) 선생은 1506년 거제도를 "나무들은 빽빽이 우거지고 맑은 물은 콸콸 쏟아진다.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고 천년의 아름다움 간직했구나."라고

찬양했고, 1581년 경상도 관찰사 홍성민 선생은 “경치가 뛰어나고 신선의 세계에 가까운 산이 비단처럼 곱고, 옷소매가 바람에 나부끼는 즐거움에 세속의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라고 그 감회를 읊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면이 바다인 환해천험(環海天險)의 거제섬은 왜구가 눈앞에 놓여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요해처(要害處), 즉 적을 막기에 긴요한 용반호거(龍蟠虎踞)의 땅이었다. 계속된 이민족의 침탈(異民族侵奪)과 지배층의 피압(被壓迫階級)은 이 땅 거제민에게,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만든 계세관(戒世觀), 잦은 자연재해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 이에 이웃끼리 서로 돕고 서로 구원(救援)하는 호조호원(互助互援) 정신이 유달리 강했다.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라는 말이 있다. '산이 다하고 물이 돌아나가는 곳'이라는 뜻인데, 거제도는 한반도의 동남쪽 대한해협의 끝자락에서, 궁벽하고 고독한 곳에 머물지 않고, 대양을 향해 나래를 펴는 산명수수(山明水秀)의 고장이었다.

얼마 전까지 변방이었던 거제 섬의 역사는 육지와 너무나 다른 일반 서민의 삶이 있었다. 거제문화는 지리적 해상교통의 경유지로써 다양한 문화가 지나가는 통로였다. 육지와 바다의 다양성을 가진 문화가 생명력을 갖는다. 중앙의 양반들에게 거제는, 언제나 독기 가득해 버려진 황폐한 땅, 그리고 교화가 덜된 야만인들만 득실거리는 땅이었다. 이런 표현들은 중앙의 지식인들에게 비춰진 편견일 뿐이다. 이런 시각에 놀랄 일도 아니다. 단지 유교적인 관점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역사상 최다 유배자가 다녀갔던 거제도는 이들이 거제를 떠난 후, 거제의 아름다운 경관과 뒤늦게 깨달은 거제인의 따뜻하고, 깊은 심성을 잊지 못해 대부분 찬사의 글을 남기게 됨은 그러한 까닭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식기록인 정사(正史)도 지배층의 편향된 인식의 산물이다. 그러기에 그것이 그대로 진실일 수는 없다. 반면 민중 사이에 전해져 온 이야기는, 그것이 때론 황당하다 하더라도 마구 무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민중의 이야기가 더욱 진실에 근접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옛 거제도 사람들은 넓은 바다를 품에 안고서, 집에 대문이 없어 폐쇄적이지 않고 마음이 넓고 자유로워 상상력이 풍부한 유전인자를 가질 수가 있었다. 거제민의 정신은 "자강(自强) 수분(守分) 강인(强忍) 호조(互助) 절검(節儉) 근면(勤勉)

조강(粗剛) 실리(實利) 대망(待望) 동락(同樂) 개척(開拓)"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에 갇힌 섬은 고독하다. 거제사람들은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살았다. 그 섬에서 태어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성장한 섬사람에게는 독특한 정서가 있었다.

거제 섬 출신들은 어려서부터 거친 바닷바람과 태풍을 맞으며 수평선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졌다. 거친 바다와 빈궁한 삶은 미래의 행복, 곧 영생(永生)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바라는 이상향(理想鄕) 즉, 바다 밖의 상세향(常世鄕)이 있다고 믿었다. 때로는 해신(海神)이 바다를 건너 와서 이 땅을 구원해 주리라 소망한다. 아주 옛적 선조들이 험한 바다를 헤치고 왔듯이 고해(苦海)의 현실인 세상(此岸)에 넉넉한 즐거움이 충만한 정토(淨土,彼岸)의 세상이 되길 기원했다.

거제도는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관장하는 신에 대한 제의가 어민들의 중요한 신앙으로 존재한다. 풍어와 안전한 항해 길을 기원하는 것이다.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신앙형태로 '공수서' '신당' 등의 제의 장소가 거제 곳곳에 있었다. 마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풍어제'와 개인적인 '뱃고사'는 어부들 자신이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또한 육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성주신앙이 강하여, 어떠한 제사 때에도 주(主) 제사상 왼편에 작은 '성주상'을 차려 가택신(家宅神)께 예를 올렸는데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다. 집안의 복을 지켜주는 '구렁이' '두꺼비' 등을 해하지 않는 업신앙이 유별났다. 두꺼비가 지네와 싸워 주인을 구한다는 설화와 집안 창고와 재물을 지켜주는 큰 구렁이 이야기는 우리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설화 형태로 전해지는 업신앙의 한 형태이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국가정신(national geist), 혹은 민족혼(volkseele)이 있다. 자아분열과 자아상실의 현대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의 확립에는 역사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local identity)도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사의 신화시대부터 현재까지를 고찰하게 된다. 설화 고전문학 민속 등에는 지역의 혼이 잠재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요 설화는 개인소작이 아니라 민중의 소산이다. 민중의 무의식적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 친근적인 문학이다. 민속문학은 가장 정신적 지주 문학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거제의 정체성

(Geoje's identity) 확립에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 고찰해야하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거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즉, '감탄' '감동' '감흥'의 삼감(三感)의 3박자를 동시에 갖추고, 여기에다 거제 고유의 문화를 덧붙여야만 관광 거제로써 또는 문화거제로써,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역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역사의 본연의 모습을 거제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거제역사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거제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거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기(禮記) 제통(祭統)편에서 "선조에게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후손이 알지 못하면 밝지 못한 것이다.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질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땅의 선조가 남긴 자취는 오늘을 사는 후손된 사람이면 마땅히 알아야 후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만은 아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날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삶을 개척하면서 전망하고 있는 미래의 것이기도 하다.

21세기로 진입한 이후 거제도는 전통문화가 심각하게 상실되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잃게 되면 결국 거제의 혼(魂)이 상실되어 거제라는 섬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거제도는 발전된 산업과 뛰어난 풍광을 갖추고 있지만 한편으론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와 역사가 뒤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거제도가 물려받은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 역사문화를 제대로 갖추길 등한시 하여 왔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이제는 문화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고장을 만들고 발굴하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거제를 물려줘야 한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려면 과거의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 2. 원시 공동체 선사시대의 거제도(巨濟島)

거제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된 신석기 시대 패총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되지 않고 있고, 신석기 패총도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중기(BC 3500~2000)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 생활상은 문자보다 유물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한다.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마을을 형성했는지를 추론한다. 하지만 거제도의 선사시대 유물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보니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부산 고성 창원 등 이웃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통해 추측 혹은 추정하여 원시 공동체 사회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 현재 거제의 원시 공동체 사회는 패총(貝塚, 조개무덤)이나 고인돌(지석묘) 등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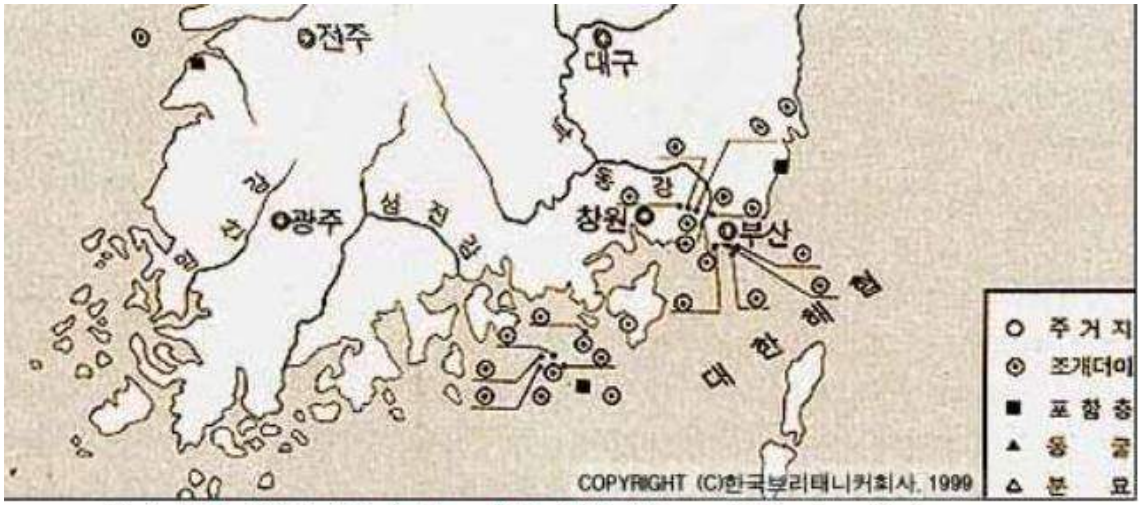
'거제도의 고대사'는 그 기록과 유적이 미미하여 정확한 역사를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지역에 발견된 패총과 유물, 그리고 고인돌분포와 고분군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제도 주변 고을에서 출토된 유물과 덧붙여,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에 기록된 사료를 참고로 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앙 역사학자에 의한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거제도 자체의 독립된 환경과 역사문화는 한낱 부록으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B.C 4세기부터 A·D 700년까지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써 문물 교류의 장이자 문화 통로의 장, 문화의 거점이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한층 발전된 거제도를 건설해야겠다.

### 1) 신석기 시대와 패총

먼저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방 또는 북방으로부터 들어온 작은 군집(群集)단위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거제면 산달도 패총의 융기문토기(B.C 4000~B.C .3000)와 일운면 내도패총, 공고지 유적에서 발견된 흑요석 및 공열문토기편과 빗살무늬 토기편, 마제석부(돌도끼)와 여러 가지 석기류가 발굴되었다. 이수도와 남산 패총 또한 이와 같다. 이러한 씨족사회(氏族社會)는 자급자족하는 경제적인 독립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사냥, 고기잡이, 농경(農耕), 채집 등의 중

요한 생산 활동은 공동으로 수행하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儀式)도 같았다.

거제의 신석기 유적은 전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해안가에서 거주하며 채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조도의 경작지에서 발견된 타제석기들은 이 섬이 신석기이전 구석기까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되고 있으며, 흑요석 석기의 발견은 적어도 일본 큐우슈우 지방과의 교류나, 아니면 부산 영도 동삼동에서 발견된 흑요석 사용집단이 경남 남해안 전 지역에 걸쳐 거주했음을 증명한다.



*남해 동쪽, 경남 해안에 주로 패총이 집중적으로 발견 되고 있다

거제지역의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보자. 신석기 전기 시대 유물은 거제면과 일운면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먼저 거제면 산달도 후등패총(後登貝塚, 조개 무덤)은 굴·대합 등의 조개류를 채취하여 먹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동아대박물관에서 지표조사 중 후등패총에서는 빗살무늬토기 200여 점, 뗀석기 10여 점 등 원시적 농경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나왔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기에 나타나는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겉면에 진흙띠를 붙이거나 표면을 도드라지게 하여 무늬를 만든 토기)와 겹아가리토기(二重口緣土器)도 출토되었다.

신석기 후기시대 유물이 나온 일운면 와현리 공고지(공곶이)와 약 300m 떨어져 있는 안섬(內島)은 이전 옛 구조라초등학교 내도분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장과 최동수의 집 앞까지 패총지대로 밝혀진 곳이다. 이 패총은 1990년대 거제박물

관이 지표조사를 통하여 이 유적에서 흑요석(黑曜石)과 석기(石器), 토기편(土器片, 토기의 조각)들이 나와 선사시대의 유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해 패총지에서 발견되는 삿무늬토기(繩蓆文, 그릇 표면에 두들개를 이용해 돗자리무늬를 새긴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토기)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동아대 박물관의 정밀지표 조사에 의하면, 평지면적이 그리 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석기시대와 삼한시대의 패총,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섬(내도)과 가까이 있는 공곶이 해안은 몽돌이 깔려 있는 밭과 해변 사이에 토층단면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석기시대의 토기편 몇 점이 수집되었다. 이 지역을 개간하면서 마제석기가 많이 출토되어 현재 집주인이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신석시대의 얇은 간석기(磨製石器, 돌의 전면 또는 필요한 부분을 갈아 만든 석기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사용), 간돌도끼(磨製石斧, 돌의 전면 또는 사용면을 갈아서 만든 도끼), 청동기시대의 홈자귀(有溝石斧, 가자형 자루에 묶어 쓰도록 홈을 파놓은 자귀의 일종) 등이다. 또 여기에서 출토된 흑요석들은 거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 외 이수도 패총 등이 있다.

이처럼 거제지역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적들은 통영 욕지도, 부산, 김해 등지에서도 동일한 유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제지역의 신석기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무리지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신석기 시대에는 혈연에 기초를 둔 씨족이 생활의 기본 단위였다. 농사는 시작되었지만 기술이나 지식이 미흡하여 모든 씨족원이 먹고 살기에 넉넉할 만큼을 수확할 수 없었다. 씨족은 함께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함께 관리하고 나누어 먹어야만 했다. 그래서 모든 씨족원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 평등 사회가 원시 공동체였다. 이 사회는 생산도구의 발달로 이어지는 청동기로 접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2) 청동기 시대와 고인돌

거제지역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 전반에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은 반달돌칼·별도끼·둥근도끼 등과 같은 석기류, 비파형 동검·거울·도끼·끌 등의 청동제품, 그리고 민무늬 토기 등이다. 거제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하청·연초면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일운·거제·둔덕·아주동 등지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

거제지역의 하청면 하청리와 연초면 이목리의 이목댐 주변에는 민무늬 토기와 간돌금(마제석검), 돌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일운면 와현리 공곶이 마을과 안섬에서 홈자귀(유구석부)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최근 2011년 3월 3일 거제시에 용역을 받아 진행해 온 우리연구원은 연초면 오비리 신현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에서 석관묘와 고인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던 중 석검 2자루와 곡식작업용 몽돌, 석기 파편 등을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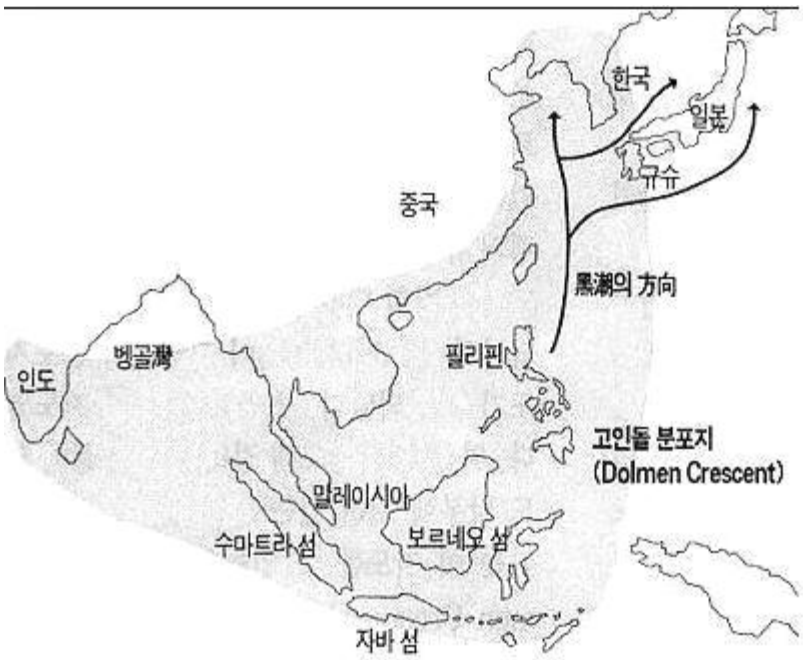
이러한 유물들은 거제지역의 해안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공동체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여러 생산도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공동체 구성원은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짓기도 발전하였고 잉여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씨족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잉여 생산물이나 재물도 부가장(일본식 용어인 가부장제를 가리킴) 가족을 단위로 소유하게 되면서, 차츰 개인이나 가족이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유 재산은 부계를 따라 자식들에게 상속되었다.

이제 원시 공동체적 소유관계는 무너지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났다. 나아가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부유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를 다스리게 되어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라는 계급이 생겨났다. 특히 부족이나 종족의 우두머리는 재산뿐 아니라 지위와 권세까지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부와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되었다. 이러한 권력과 영향력은 무덤의 크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거제지역에는 일운면, 사등면,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등지에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덤 고인돌(지석묘)을 볼 수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4개의 굄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위에 평평한 큰 돌을 얹어 놓은 것이 전형적인 것이고 북부 지방에 많다. 거제를 비롯한 중부이남 지방에는 묘실을 지하에 만들고 받침돌을 여러 개 놓거나 받침돌이 없는 형태가 많다. 이것은 암석에서 떼어

내서 운반하고 설치하기까지 많은 인력과 식량이 필요하였을 수십 톤이나 되는 돌을 덮게 돌로 쓰고 있다. 고인돌은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지배층과 그 가족의 무덤으로, 부계를 중심으로 한 신분의 세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 고인돌 유적지는 바다와 인접한 구릉이나 평야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여러 지역에 분포된 고인돌은 강력한 지배층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배층은 고대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청동기 이후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제지역의 고대 국가 형성이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었다. 국가형성의 기초는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동남아 고인돌 분포지와 한반도(해로가 한반도로 일방 통행하며, 해로는 계속해서 아메리카를 돌아 태평양 열도를 걸쳐 동남아로 다시 돌아 오는 순환 해로이다. 칠레 아스터섬의 석상과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도 중 회색지역은 난생설화 지역이다. 한반도는 난생설화와 천손설화가 겹치는 지역으로 난생설화와 천손설화의 원형지역이 한반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동아시아(기원전 2,500년~기원전 200년까지) 고인돌 분포와, 거제도지역 內 고인돌 분포를 통해 청동기 시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거제도는 고인돌의 크기로 보아 제법 큰 단위의 부족(部族) 사회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양족(海洋族) 군장(君長) 집단이 거제도 3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 지배권이 강력하진 않았지만 경쟁 속에서 서로 존립하였다. 특히 거제도 지역 중에 하천과 들판이 있는 곳에서 집단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거제 거주민은 대다수 남방계 혈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돌 문화가 고대 남쪽 해

양문화였기 때문이다.(남쪽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상한 해양족). 청동기시대 거제도 큰 3부족(고인돌 분포도에 의거)은 가칭, '둔사족(둔덕 사등면)', '연하족(연초 하청면)', '일아족(일운 아주)'이다. 그리고 이 외 작은 부족이 거제면 명진리와 남부면 다대포 일대에 분포했다.

고인돌은 당시 사람들의 무덤으로서 장방형구덩이를 파고 바닥에 편평한 돌을 깔고, 그 끝에서 지표면에 이르기까지 돌을 쌓아 그 속에 시신을 안장하고 부장품(마제석검과 마제석촉(돌 화살촉), 간토기(붉은 토기)을 묻는다. 아주동에서 발견된 청동 허리띠 대구는 당시의 청동제 사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으며, 이목저수지에서 발견된 마제석검과 석촉, 하청에서 발견된 마제석검 등도 청동기시대의 귀중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3) 거제도(巨濟島) 철기시대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200년 ~ 기원후1세기) 당시 거제도는 동아시아의 활발한 해상교통의 중심에 있었으며, 뚜렷한 국가의식이나 영토 경계가 없었던 시기인지라, 언어 또한 경남 남해안과 일본 대마도, 큐우슈우(九州) 북부지방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사로국)도 북방계 동부여족 박혁거세, 남방계 석탈해, 훈족 김알지 등이 차례로 집권하던 문화의 혼돈 시기였고, 김해 가야도 남방 인도계 '허황옥'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즈음부터 거제도는 북방 부여계인 예(백제) 한(쿠다라), 진한의 신라(사로국), 남방계 일본(큐우슈우), 해양족 남부해안 지역 등과의 교역 경유지로써, 또는 무역전쟁의 일원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지나가는 창고로써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청동기시대에 나뉘어져 있던 거제도의 3부족이 하나로 통일된 시기가 서기 2세기쯤(독로, 두로국)이며, 그 소재지는 육지와 가장 인접한 지금의 '사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상군(裳郡) 설치 時 치소였던 둔덕면 거림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거제도는 해상무역의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거제의 각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소국가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사등 둔덕 지역은 육지에 가까운 관계로 고성지역(소가야)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으나, 남부지역인 송변과 아주 지역은 해상무역의 기착지로써 해상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다. 그런고로 이런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다양한 종족들이 믿는 각각의 천군(天君)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초월하지 못했고, 장사와 교역으로 인한 소국으로써 이익이 남지 않는 행위(영토 전쟁)나 동맹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김해나 일본에서 섬진강변과 서해안으로 이동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은 쓰시마 해류와 편서풍을 이용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므로 남쪽 거제도 '다대포, 구조라, 아주, 지세포'를 거쳐 가게 됨으로써, 후에 송변현(남수현)과 아주현(거로현)이 생겨난 계기가 되었다. 이 지역은 백제나 왜(海洋族)의 해양 문화와 더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00년부터~기원후 8세기 까지 일본으로 가는 모든 선박은 거제도, 대마도, 이키섬을 거쳐 건너갔다. 그러므로 거제도남동부 지역은 해상항로의 거점으로써 그 역할이 지대했다.(거제도 북부 지역과는 환경적인 태생이 달랐다)

철기시대부터 북방계가 우리나라 전체를 점하게 됨을 역사를 통해 나타난다. 그 예로 서기전 2세기말에 위만조선이 한나라 공격을 받아 멸망하자 한반도 서북지역의 피난민들이 대구 경주 창원 거제 등의 경상도 지역으로 파급되어 들어 왔으며, 이들은 발달한 청동기와 소박한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기존 주민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 3. 거제도(巨濟島) 고대사(古代史)

### 1) 변한(弁韓)과 독로국(瀆盧國)

고대국가의 등장은 철기 시대와 전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강 이북은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등이 국가를 형성했고 한강 이남은 마한·진한·변진(변한) 등의 연맹체로 이루어졌다. 거제지역은 마산·김해 지역과 함께 변한에 속해 발전하고 있었다. 변진은 12국의 소국으로 되어 있다. 또 여러 작은 별읍(別邑)이 있어서 제각기 거수(渠帥, 수장)가 있었다. (그 중에서) 세력이 큰 사람은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험측(險側), 번예(樊濊), 살해(殺奚), 읍차(邑借)라는 부족장 혹은

왕이 있었다. 변한과 진한의 합계가 24국이나 되었다. 큰 것은 4000～5000호, 작은 것은 600～700호로, 모두 4만～5만 호를 이루었다.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이웃 지역인 중국,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때 철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여 상업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기의 보급과 농업·수공업 생산의 발전으로 삼한 사회도 변동하게 되었다. 또한 변한은 주로 낙동강 이남 지역을 주 무대로 하여 각각 소국들을 형성해 나갔고, 진한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동(以東)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해 살았다. 위의 변한·진한에 대한 24국은 『삼국지』 한조(韓條) 변진(弁辰)기사에 나온다. 이 사료에는 변한과 진한을 구분하기 위하여 변진 2자를 첨가하였다.

B·C 4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삼한시대(三韓時代) 변한(弁韓, 弁辰)의 12개국 중 거제도는 독로국(瀆盧國,두로국)이었다. 서기전 BC 94년의 삼한시대에 낙동강 서쪽 경상도를 '변한', 동쪽을 '진한'이라 하였는데 변한에는 12개의 전제군주가 군림하는 작은 왕국을 두었을 때 거제도는 독로국(瀆盧國, 두로국)이라 칭하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아방강역고에 다산 정약용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거제가 독로(두로)의 이름을 얻고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변한 12개의 토호국이었던 삼한시대였다. 군장이 있어 제정을 통할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또한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변진전(弁辰傳)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의 낙동강 유역 진한 12국, 낙동강과 섬진강 사이 변한 12국 등 변진 24개국(소 지역을 단위로 한 국가임)가운데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이라는 국명과 “기독로국여왜경계(其瀆盧國與倭境界)”라는 기록이 있다. 즉, "변진 독로국은 일본과 경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독로국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하여 부산의 동래설과 거제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거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거제가 동래보다 일본에 실제 더 가깝기도 하지만, 당시 동래에는 '거칠산국', 해운대엔 '장산국'이 있었음이 역사 기록에 뚜렷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또한 고대인의 관점에선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독로국(두로국)은 단순 거리가 아닌 해류와 조류를 이용한 현실적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거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 정겸(丁謙)이 말하길, '독로'는 곧 현 경상도 남쪽 거제도이며, 이 섬은 동서 거리가 멀지 않고 고로 경계와 접하고 있다[丁謙曰, 瀆盧, 當卽今慶尙道南巨濟島. 此島, 東西相距不遠, 故曰接界]. 조선의 학자 이학규(李學逵, 1770~1835)는 '거제부에는 변진 때 소국이 있었는데, 독로라 일컬었다. 후에 677년 여기에 상군을 설치했다[巨濟府 弁辰時有小國 曰瀆盧 後置爲裳郡是已]'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거제도 '독로국'의 호수는 약 1000여家 이상, 4~5천명 정도의 인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한의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은 진한의 사로국과 같은 막강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독로국과 같은 소국들은 낙동강 이남에 터를 잡고 성장하였으나 독자적인 막강한 종족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고 추정된다.

이 후에 변한은 가야로, 진한은 각각 신라로 발전하는데, 가야 연맹체라는 것은 그 국가 간에 구속력이 없었고 오직 상업적 이해관계 속에서 맺어진 동맹체에 불과하여 거제도는 가야의 실제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 실제적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배는, 관리가 파견된 677년 신라 문무왕 때 상군(裳郡)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경남지역의 변진(弁辰,弁韓)은 진한(辰韓)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성곽(城郭)도 있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이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랐다. 문의 서쪽에 모두 조신(竈神)을 모신다. 그 중에서 독로국(瀆盧國, 두로국)은 왜(倭)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12국(國)에도 왕(王)이 있으며 그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장대하다. 의복(衣服)은 청결하며 장발(長髮)로 다닌다. 또 폭이 넓은 고운 베를 짜기도 한다. 법규와 관습은 특히 엄준(嚴峻)하다. 변진은 왜국(倭國)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문신(文身)한 사람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변진(弁辰,弁韓)의 토지(土地)는 비옥하여 오곡(五穀)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혼인하는 예법은 남녀의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삼국지에 주석으로 실린 《위략(魏略)》 편에서 전하길,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옥과 흡사하다. 변진(弁辰)의 나라에서는 철(鐵)이 생산되는데, 한

예맥 왜인(韓·濊·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鐵)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中國)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낙랑(樂浪)과 대방(帶方)의 두 군(郡)에도 공급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가야'를 '가나'(駕那=머리에 쓰다)와 연결시켜 가야 사람들이 끝이 뾰족한 고깔을 쓰고 다닌 데서 나온 말이고, 중국인들의 변한(弁韓)·변진(弁辰) 표기도 고깔 모습을 형용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뾰족한 고깔을 썼다하여 가락(駕洛), 가야(伽倻), 가나(駕那), 가라(伽羅)라는 말이 고깔을 의미하는 말로 유추한다.

한편 <연려실기술 신라의 속국(屬國)>편에 의하면 "가라국(加羅國) 지금은 어느 곳인지 상세하지 않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멸망시켰다. 《여지승람》에는 거제(巨濟) 남쪽 30리에 가라산(加羅山)이 있어 대마도(對馬島)를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료를 유추하여 정리해보면, 거제도 독로국 이후, 즉 서기 4~7세기 초까지 '가라국(加羅國)'이 거제남부에 위치했었고 일본과의 빈번한 무역이 행하여진 소국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가야시대 거제도는 경남지역 가야문화의 영향권에 있었고 또한 영향을 많이 받긴 했으나 가야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에 있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가야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 연합체인 관계로 남부 해안도서 지방은 각기 독립된 행정을 유지했으며, 거제도 토호세력이 어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지역 행정경제를 꾸려나갔다.

2) 거제도의 고대 지명, 독로(瀆盧) 주노(周奴) 상군(裳郡)

예전에 한때 부산광역시 여러 학자나 사학자들이, 독로국(瀆盧國)을 동래 지역에 있었던 고대 소국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주장한 학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부산(영도)이 대마도와 직선거리가 거제도보다 더 가깝고, 옛 고분이 거제보다 동래가 몇 배나 많이 출토되고 있어 주장했다한다. 이에 그 같

은 오류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서술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부산지역 대학 교수와 사학자들은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폐쇄성에 갇혀, '오분석(誤分析)'의 그릇된 판단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래지역 고분에서 철기가 발굴되어 이를 주장했다거나, '독로'를 음독하면 '동내' 또는 '동래'가 되어 그 미칭으로 '동래'가 쓰인 것으로 본다는 견해는 억지로 꿰맞추기일 뿐이다. 가장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불확실성 기법을 나열하여 주장하는 형태는 학자적 태도가 아니다. 이들은 중국어 발음이나 고대 우리말은 물론, 남부지방의 여러 정황에 따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무지(無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에는 동래보다 거제도가 더 발달한 문화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중기 이후부터 일본과의 무역과 해상교통을 독점한 부산지역이 고대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 3세기 중엽에 편찬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 기독로국여왜경계(其瀆盧國與倭境界)' 즉, "변진에 독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왜(일본)와 경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기 2세기 전후 독로(瀆盧)라는 말은 현재 우리말로 읽은 것이지, 당시는 음을 빌려 '음차(音借)'로 표기한 것이다. '瀆盧' 한자어는 예나 지금이나 '두루'라는 중국말로 읽고 있다. '섬'이라는 단어는 조선초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이고 고대에는 섬을 '두루(빙 둘러 있다)'라고 썼다. 그래서 중국말을 아는 분이나 중국 역사학자는 모두 거제도라고 비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동래가 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왜와 접하고 있다'라는 뜻은 단순 거리가 아닌 해류와 조류, 바람(편서풍)을 이용한 현실적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거리를 말한다. 왜와 경계하고 있다는 말은 왜국으로 가는 경유지(기착지)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고대에는 부산에서 대마도로 건너가기가 어려웠다. 쓰시마 난류와 해풍의 영향으로 인해, 거제도에서 대마도로 향했다. 이는 항해술이 발달되기 전인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다(몽고원정, 대마도정벌, 15C조선통신사). 덧붙여 '독로국'의 또 다른 거제도 지명인 '주노국(周奴國)'은 '두루' 周에 종 奴를 써서, '섬놈 나라'라고 비하하는 말이다. 이후 신라 문무왕대 설치된 상군(裳郡 섬 고을)은 치마 裳을 써, 빙 두른 섬이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지명(周奴國, 裳郡)은 모두 한자어 뜻을 가져다 사용하는, 이른 바 '훈독(訓讀, 訓借)'으로 표기한 것이고 '독로(瀆盧)'는 음을 빌려다 사용한, '음차(音借)'로 표기한

것이다. 아무리 이런저런 여러 경우를 생각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독로(瀆盧)를 동래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다음은 각종 문헌에서 등장하는 거제도 비정설(比定說)을 살펴보자. 왜? 거제도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거제도가 독로(두루)의 이름을 얻고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변한 12개의 토호국이었던 삼한시대였다. 군장이 있어 제정을 통할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변진전(弁辰傳) 서기 2세기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의 낙동강 유역 진한 12국, 낙동강과 섬진강 사이 변한 12국 등 변진 24개국 가운데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이라는 국명과 “기독로국여왜경계(其瀆盧國與倭境界)”라는 기록이 있다. 즉 "변진 독로국은 일본과 경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독로국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하여 부산의 동래설과 거제설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거제도가 분명해 보인다.

① 거제도가 동래(부산 영도 제외)보다 일본에 실제 더 가깝기도 하지만, 당시 ㄱ) 진한의 땅인 동래에는 '거칠산국(居漆山國)', ‘내산국(萊山國) 또는 '장산국(萇山國)'이 있었음이 역사 기록에 뚜렷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또한 ㄴ) 고대인의 관점에선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독로국(두루국)은 단순 거리가 아닌 해류와 조류, 바람을 이용

한 현실적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거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ㄷ) 왜와 경계하고 있다는 말은 왜국으로 가는 경유지(기착지)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고대에는 부산에서 대마도로 건너가기가 어려웠다. 쓰시마 난류와 해풍의 영향으로 인해, 거제도에서 대마도로 향했다. 이는 항해술이 발달되기 전인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다(몽고원정, 대마도 정벌, 15C조선통신사).

② 이학규(李學逵,1770~1835)의 낙하생집에서 '거제부는 변진 때 소국이 있었는데 '독로(瀆盧)'라 일컬었다가 후에 여기에 상군(裳郡)을 설치하였다'라고 기록하였으며[巨濟府 弁辰時有小國 曰瀆盧 後置爲裳郡是已],

③ 청나라 학자 정겸(丁謙)이 말하기를 '독로는 경상도 남쪽 거제도이며 이 섬은 동서 거리가 멀지 않았고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瀆盧, 當卽今慶尙道南巨濟島. 此島, 東西相距不遠, 故曰接界]고 했다.

④ 또한 양주동의 고가연구, 선석열의 경남대 문헌에서 본 가야와 고대 일본에 대하여 거제도에 독로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당시 거제 섬은 상당한 세력을 갖춘 해양문화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변진(弁辰)은 가야,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가 계승했는데 당시 변진국에 동래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중국학자들은 예로부터 모두 '瀆盧'를 거제도로 비정하였다. 瀆盧를 중국어로 읽으면 '두루'라고 발음하며 고대어 '섬'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학자가 모두 거제도로 주장하는 이유이다. 고대에는 오늘날 사용하는 '섬'이란 단어가 없었고 대신 '두루(두로)'라고 불렀다.

⑥ 독로국의 또 다른 거제도 지명인 '주노국(周奴國)'은 '두루' 周에 종 奴를 써서, '섬놈 나라'라고 비하하는 말이다. 이후 설치된 상군(裳郡 섬 고을)은 치마 裳을 써, 빙 두른 섬이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지명은 모두 한자어 뜻을 가져다 사용한, '훈독(訓讀, 訓借)'으로 표기한 것이고 '독로(瀆盧)'는 음을 빌려다 사용한, '음차(音借)'로 표현한 것이다. 근현대의 학자들은 중국어나 고대어를 잘 모르면서, 앞서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여 인용하다 보니 '동래'라고 주장한 글들이 더 많이 양산되었는데, 지금에야 '瀆盧'를 모두 거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거제도에는 '裳'자 명문기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상군'(裳郡)과 '독로'(瀆盧)의 의미에 대하여 허재영 건국대 교수 기고문을

살펴보자. / 거제도(巨濟島)는 남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이 섬 이름이 한 때는 '상군'(裳郡)이라 불렸다. 뜻으로 본다면 '치마'인 셈인데, 이 섬을 '치마'와 연관지어 부를 만한 연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최남선의 <동경통지>에서는 거제를 상군으로 부른 연유를 두고 한 구절 설명을 덧붙인 바 있다. '치마'를 뜻하는 속어로 '두룽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룽이'라는 말을 문헌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올 때 입는 '도롱이'는 짚이나 띠로 만들어 허리에 매어 입었으므로 '치마'를 뜻하는 '두룽이'가 속어로 쓰였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두룽이'의 한자 표기는 '독로'(瀆盧)인데 우리말의 '도랑'에 해당하는 말이다.(실제 중국어로 '두루'라 읽는다) '도랑'이나 '두룽이', 그리고 '도롱이'는 모두 '두르다' 또는 '돌다'에서 파생된 명사다. 우리말에서 '두르다'에서 나온 명사는 흔치 않지만 '돌다'에서 파생된 말은 비교적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도리'는 '둘레'를 뜻할 때와 '주기'를 뜻할 때 쓰인다. '도리 기둥'이나 '두리 기둥'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돌려 얹히는 나무를 뜻한다. 거제도의 땅이름이 치마나 비옷을 뜻하는 '두룽이' 또는 '도롱이'였던 까닭은 섬 주위로 물길이 돌아들기 때문이었다. 외형상으로 전혀 무관해 보이는 '독로', '상군', '거제'가 모두 섬의 지형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말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⑦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선생의 『아방강역고(我邦强域考)』「鋪安瀆盧國者 今之巨濟府也 本裳郡 方言裳日斗婁技 與瀆盧聲近(『與猶堂全書』, 景仁文化社, 1969.)」라 하여 신라 문무왕 때 처음 설치한 상군(裳郡)은 두루기(斗婁技)와 그 소리가 같다고 하고 독로를 「독로」로 읽지 않고 「두로」 또는 「두루」로 읽어 그 소리가 두루기와 가깝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지연(張志淵(1864-1921))선생은 『我邦疆域考』를 증보하여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를 편집하면서 역시 거제도를 독(두)로국(瀆盧國)으로 보고 있다.

⑧ 일본인 스에마쯔(末松保和)는 그의 저서 『임나흥망사(任那興亡吏, 末松保和, 吉川弘文館, 1949)』에서 "다산(茶山)이 수창(首唱)하고 鮎貝房之進이 찬동한(鮎貝房之進, 〈俗字巧, 俗文致, 借字巧〉, 太學社, 1952) 거제설에 가담한다고 하였으며, 양주동(梁柱東)선생은 그의 저서 『증정 고가연구(增訂 古歌研究, 梁往東, 一潮閣, 1965)』에서 瀆盧는 두루, 도로로 읽어 거제임을 밝히고 있다.

⑨ 거제군(巨濟郡)의 사료

○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거제현조(巨濟郡條)에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復故」라 하여 문무왕 때 처음으로 상군을 설치하였고, 경덕왕 때 거제군으로 개명하였으며 영현으로 아주, 명진, 송변(多大)등이 있었다고 한다.

○ 『고려사(高麗史),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사료에서도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한편, 건물 보수 도중에 발견된 거제군 동헌건물인 기성관(岐城館)의 객사(客舍) 상량문(上梁文)에서 「우제굉명개권여어북궐(宇制宏明盖權輿於北闕), 두로고도(瀆盧故都‥)」라고 하는 글귀가 발견되어 거제가 독(두)로 고도임을 말해 주고 있는 있는데 이 상량문은 光緖十八年 壬辰九月(1892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함께 나온 또 다른 기성관 상량문에는 「상고지두로건국(‥上古之豆盧建國‥)」이라 기록하여 독(두)로국을 후대에 까지 두로국(豆盧國)으로 발음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 동래(東萊)나 부산지방이 고금을 막론하고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점과 동래지방에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그러나 3세기 이전의 유적이 적고 독(두)로국(瀆盧國)은 3세기 이전의 국명(國名)인 현실에서 복천동고분(福泉洞古墳), 연산동고분(連山洞古墳) 등 동래지방의 고분들은 대략 4세기 이후의 것으로 편년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가령 해당시기의 유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칠산국(居柒山國)이나 내산국(萊山國)의 유적이라고 해야지 두로국의 유적이라 함에는 다소 어폐가 있으며 동래라는 지역명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산근대역사관장 나동욱 작성문)

이상의 자료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무왕 때 처음으로 거제에 상군을 설치하였다는 상(裳 치마, 섬)이라는 군명(郡名)의 유래이고, 다른 하나는 늦은 시기에 해당하지만 기성관(岐城館) 상량문에 독(두)로고도(瀆盧故都) 또는 두로건국(豆盧建國)이라는 문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독로국'을 동래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부산 학자들의 자료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한국의 역사까지 왜곡하는지 알 수 있다.

3) 천혜의 해상 경유지 거제도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700년)

1400여년 전 거제도는 일본, 백제, 가야지역의 해상교통의 중간 경유지로써 특히 아주, 지세포, 구조라, 다대포, 율포 등을 거쳐 남해 섬진강 서해안으로 선박들이 이동했다(고인돌 거제도 남쪽 분포지역과 일치). 그 당시에는 거제도를 '사도도(沙都嶋)'라 일컬었으며, 그 뜻은 "바닷가 모래가 많은 고을 섬"이라는 뜻으로 제법 많은 주민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거제도는 동아시아의 활발한 해상무역의 중심에 있었으며, 뚜렷한 국가의식이나 영토 경계가 없었던 시기라, 언어 또한 거제도과 일본 대마도 큐우슈우(九州) 북부지방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제도 천혜의 포구들은 문화교류의 접점이자 관문의 역할을 했다. 고대부터 뱃길을 통한 문화의 교류는 매우 활발했다. 물류만이 아니라 외부의 새로운 문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구였다. 흔히 포구주변에는 장시가 열렸으며, 파시와 같은 한시적 장시가 형성되기도 했다. 즉 문물 교류의 장이자 문화 통로의 장, 문화의 거점이기도 한 것이다.

바닷가 특히 해류가 심한 곳에서 자랐거나, 배를 한번 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엔진 동력 없이 편서풍과 해류를 이용해 장거리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대한해협에는 연중 쓰시마해류가 북상하고 있다. 일본서기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700년까지 엄청난 수의 도래인,

반도 이주민이 열도에 정착했다. 이들 또한 대부분 거제도를 거쳐서 건너갔다.

① 만일 김해나 동래 울산에서 일본으로 항해한다고 하면 북동진하는 해류 외에 연중 불어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쓰시마까지 항해할 경우 동해로 빠져 나가게 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쓰시마에 도달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② 그렇다면 일본으로 건너갈 고대 항로로써 최적지는 바로 거제도라는 사실이다. 거제에서 쓰시마까지 거리는 약 80Km이며, 해류와 조류 및 편서풍을 이용해 바다를 건너 쓰시마 북단에 자연스럽게 도달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거제도 다대포, 구조라, 지세포였다. 고대 항해인들은 처음부터 선수를 쓰시마 남단보다 더 남쪽을 두어 항해 했을 것이다. 물론 바람과 해류의 세기에 따라 항해 중에 선수의 방향을 조정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갖춘 거제도는 '김해세력의 외항(外港)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해상세력의 집단거점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고대인의 관점에선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독로국(두로국)은 단순 거리가 아닌 현실적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거리를 말한다.

③ 또한 고려말과 조선초기, 몽고군의 일본 침략이나 대마도 정벌 時, 모두 거제도를 거쳐 대마도로 항해 한 역사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④ 사천시 늑도 섬에서 발굴된 일본 야요이 토기 가마터는 기원전 2세기경 한반도에서 대량으로 토기를 만들어 일본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마터가 확인된 곳은 후기 청동기시대~초기 철기시대(기원전 4세기~기원전 2세기)의 패총 유적. 이곳에서는 수백 점에 달하는 야요이 토기 조각도 함께 출토됐다. 야요이 토기는 일본 큐슈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 일본의 토기 화폐와 같은 생활 유물과 인골 등이 다량 발굴되었고,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남서쪽 비탈에도 사천 늑도와 똑같은 토기조각과 20cm 두께의 재(炭) 층이 나왔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서해안지역과 남해안 섬진강 유역 등의 물적 인적 자원이 모두 거제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4) 포상팔국(浦上八國, 창원~사천까지)의 난. 1차 서기 209년 7월, 2차 215년.

서기 3세기 초에는 경상남도가 북쪽의 가야와 남쪽 ‘포상 8국’(물가에 접한 여덟 나라라는 뜻으로, 이 말은 이름이 아닌 위치를 일컫는다.)’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가야남부의 8개 나라, 소위 포상팔국(浦上八國, 남해, 거제도 제외)은 남해안에 접해 있음에도 해상무역에서 구야국(김해)에 주도권을 넘긴 채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당시 경남 서부해안과 거제도는, 해상세력인 백제계(마한) 문화권에 가까웠으며, 낙동강변 내륙지역은 신라 진한의 문화권에 가까웠다). 구야국이 있는 김해지역은 당대에 고 김해만이라는 천연항구(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1.5m 높았다)를 기반으로 남해무역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었고 포상8국은 가야외의 지역인데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은 대부분 구야국(김해)에 의존해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포상8국은 골포국(마산)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구야국(김해)에 대항해 느슨한 가야연맹에서 이탈했고 곧이어 209년에 구야국(김해)과 안라국(함안)을 공격하여 가야연맹과 전쟁을 벌였지만 신라의 지원을 받은 가야의 반격으로 1차 전쟁은 패퇴했다. 그렇게 되자 포상8국 중에 고사포국(고성)은 칠포국(칠원) 및 골포국(마산)과 함께 215년 신라의 주요항구인 갈벌(竭火 울산)을 침공했지만 신라군의 방어에 패퇴하고 물러나야 했고 결국 포상8국은 굴복하여 전기'가야연맹'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400년에 '구야국(금관가야)'이 고구려에 패망하여 전기가야연맹이 소멸하자, 포상8국과 같은 연맹국이었던 독로국(전쟁에는 불참)은 뚜렷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한 채, 남가야(김해)가 신라에 투항함과 동시에 독로국도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포상(浦上)’이란? 당시 한자어를 빌려 지명을 표기 할 때, 뜻을 빌려 사용하는 '훈독'과, 음만 빌려 쓰는 '음차'가  있었다. 이 당시에 '浦上'은 포구(강이나 바다 포함)를 낀 육지 고을(부족)이라는 뜻이다.  ‘아방강역고’에 따르면 당시 바닷가 용어인 '海上'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섬)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환록(東寰錄)에도 ‘땅의 경계에 있는 포상이란, 바다 섬은 아니라고 전한다. 즉 거제 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案旣云浦上 不云海中 則今巨濟南海不在計也]’라고 적고 있다.

○ 참고 : 변진 포상8국(弁辰浦上八國) 동환록(東寰錄), 윤정기(尹廷琦, 1814~1879)

포상8국은 모두 변진에 속해 있었다. 가야와 같은 무리이다. 후한서에 전한다. 변진은 변한 남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왜와 접해 있다. ○ 신라사 물계자전에서 전한다. 포상8국은 함께 가라국 정벌을 모의 했다. [주 가라국] 가라는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왕은 왕의 손자 나음으로 하여금 가까운 고을 6부군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떠났다. 마침내 8국의 군사가 패하였다. 3년 후, 골포 칠포 고사포 3국인이, 갈화성(울산)을 공격하여 왔다. 왕은 병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고자 출발했다. 3국의 군대가 대패했다. 물계자는 수십여 급을 참획했다. ○ 땅의 경계에 있는 '포상'이란, 바다 섬은 아니라 전한다. 즉 '거제' '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포상의 지역은 동으로는 창원으로부터 서로는 사천(곤양)까지이다. 흡사 8읍, 함안, 고성은 본디부터 가야의 명칭이었다. 골포, 칠포, 신라의 역사서에 이미 나온다. 8읍이 포상8국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두다 황수 청수(진주 남강)에 있다. ① 골포[주: 즉 합포 창원에 이제 합쳐진 곳], ②칠포[주: 칠원], ③고사포[주:즉 소가야 현재 고성], ④아나가야[주: 현재 함안], ⑤곤미[주: 변진군미국,현 곤양(사천)], ⑥웅천, 진해, ⑦사천을 아울러 포상8국이라 한다.

[浦上八國者 同是弁辰之屬 而伽倻之同類也 後漢書所云 弁辰在辰韓之南 南與倭接者是也 ○ 新羅史勿稽子傳云 浦上八國 同謀伐柯羅國 [주:卽加羅] 柯羅遣使請救 王使王孫榛音 率近部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後三年 骨浦漆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勿稽子斬獲數十餘級 ○案旣云浦上 不云海中 則今巨濟南海不在計也 今浦上之地 東自昌原 西至昆陽 恰爲八邑而咸安固城 本有伽倻之名 骨浦漆浦 已著新羅之史 八邑之爲浦上八國無疑 皆在潢水淸水之南 骨浦[주:卽合浦今合于昌原] 漆浦[주:今漆原] 古史浦[주:卽小伽倻今固城] 阿那伽倻 [주:今咸安] 昆彌[주:卽弁辰軍彌國今昆陽] 竝熊川鎭海泗川爲八國]

## 4. 중앙정부 통치시대의 거제(巨濟), 남북국시대와 고려시대

### 1) 남북국 시대의 거제군(巨濟郡)

거제는 변한의 소국에서 출발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신라에 복속되고 말았다. 반대로 거제는 육지가 아닌 섬이라는 점에

서 인접한 고성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자 거제는 자연스레 제국주의 국가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9주 5소경을 근간으로 하는 군현제를 시행하여 전국을 120개의 군(郡), 305개의 현(縣)으로 편재하였으며, 군·현에는 중앙에서 외관(外官)을 파견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 초기인 7세기 후반에는 거제지역도 신라의 지방 군현체제에 완전히 편재되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거제도는 9주 중 강주(康州)에 속하였다. 강주는 본국 경계 안에 설치한 세 주(本國界內置三州)중에 하나지만, 560년대에 편입된 가야 지역으로, 주 1, 군 11, 현 30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제는 강주의 11개 군(郡) 중 하나인 상군(裳郡)이며, 그 중심지는 둔덕면 거림리이고, 군현성(郡縣城)은 둔덕기성(屯德岐城)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34, 지리지(地理志), 거제군(巨濟郡)에는 「거제군(巨濟郡)은 문무왕(文武王)이 처음으로 상군(裳郡)을 설치하였으며, 바다 가운데 섬이다.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영현(領縣)이 셋이다. 아주현(鵝

州縣)은 본래 거로현(巨老縣)이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명진현(溟珍縣)은 본래 매진이현(買珍伊縣)이며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어 지금까지 이른다. 남수현(南垂縣)은 원래 송변현(松邊縣)이며 경덕왕이 개명(改名)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예전대로 바꾸었다.」 이라 하여 신라 문무왕 17년(677년)에는 처음으로 둔덕면 거림리에 상군(裳郡)을 설치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된다. 이에 거제 섬을 '상도(裳島)'라고 부르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거제섬의 별칭'으로 '상도(裳島)'라는 명칭을 이어왔다. 경덕왕 16년(757년)에는 거제군(巨濟郡)으로 개명함과 동시에 아주현(鵝州縣: 現 아주동), 명진현(溟珍縣: 現 거제면 명진리), 남수현(南垂縣: 現 남부면 다대리)의 세 현을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지명도 한자식으로 바뀌었다.

덧붙여, 이후 거제도는 685년(신문왕 5)에는 상주군(裳州郡)으로 개칭했으며, 신라 경덕왕 16년(757년)부터 개명한 3현(縣)을 거제현의 속현으로 삼으면서, 거제군(巨濟郡)으로 개칭되었고, 부곡과 향을 동시에 설치하니 이로부터 중앙정부에서 섬 전체를 "거제도'라 부르게 되었다.

거제읍지에 따르면, 거제군(巨濟郡)은 '경덕왕이 이름을 거제군으로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영현이 셋이었다. 아주현(鵝洲縣)은 본래 거로현(巨老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명진현(溟珍縣)은 본래 매진이현(買珍伊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남수현(南垂縣)은 본래 송변현(松邊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은 예전대로 회복하였다. 그리고 거제군의 향·부곡은 하청부곡(河淸部曲, 현의 북쪽 20리), 고정부곡(古丁部曲, 현 고현성), 죽토부곡(竹吐部曲, 현 동쪽 14리), 말근향(末斤鄕, 죽토부곡 동쪽), 연정장(鍊汀莊, 현의 동쪽 15리), 덕해향(德海鄕, 현 동쪽 30리) 등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이로써 거제군은, 3속현(縣) 3부곡(部曲) 2향(鄕) 1장(莊)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고 고려시대까지 이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거제지역의 유력한 세력들이 그 독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신라 중앙정부의 지방 통치구조에 편입되었으며, 결국에는 신라의 통치체제 내부로 서서히 종속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 거제지역의 통치 및 행정 중심지인 치

소(治所)는 둔덕면 거림리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거림리 유적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배치상태와 성격, 동반유물의 특징과 함께 특히 '상사리(裳四里)'라는 명문(銘文) 기와의 발견은 그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점은 곧 상군(裳郡) 주위에는 상일리(裳一里)부터 상사리(裳四里) 이상의 행정지명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삼국~통일신라시대 상군(裳郡), 즉 거제군의 치소는 명문기와가 발견된 거림리 일대이며, 10세기까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거제군과 세 영현(領縣)에도 다른 군현과 마찬가지로 치소인 읍사(邑司)와 함께 그 하부의 말단행정 구역에는 행정촌과 자연촌이 편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곳의 자연촌을 묶어 행정촌으로 편재하였으며, 행정촌에는 지역의 토착세력인 촌주가 외관의 통제 하에 촌락민을 자치하였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촌에는 각각 군현민(郡縣民)인 농민층이 거주하였으며, 이들은 촌주를 통하여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일본 정창원 소장의 「신라장적(新羅帳籍)」과 같은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시대 거제지역의 촌주도 촌락거주의 농민에게 역(役)과 조세를 부과하는 공문서로 농민의 토지(土地), 호구(戶口), 우마(牛馬), 상마전(桑麻田) 등을 모두 계정하는 장적을 3년마다 조사·정리함으로써 자신의 농민 지배력을 확대시켜 나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촌주는 촌락민의 과실나무와 가축의 수까지도 자세히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촌주의 대민(對民) 자치 지배력은 나말여초 재향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군현민의 간접통치 조직과 신앙적 안식처로 역할한 지방의 관립사원(官立寺院)은 거제지역에도 설치·운영되었다고 짐작되며, 거제에도 주군(州郡)의 승강(僧綱)과 교화(敎化)를 담당하는 승계조직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거제지역에서 전설로 전하고 있는 북병산록(北屛山麓)의 은적사(隱寂寺)나 취산(鷲山)의 정수사(靜水寺) 등이 지방 관립사원으로 짐작될 수 있다. 이들 사원은 통일신라시대 거제지역에 있어서 불법(佛法) 연구와 신앙(信仰) 보급의 핵심적 공간으로써, 지역민에 대해 정치·사회적 지배이념과 일상의 례나 생활신앙을 제공하고, 군사·교통의 근거지 등의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통일신라 전 기간 동안 거제지역에 살았던 모든 계층은 신앙의 성소(聖所)로 각인하여, 인적·물적 지원(보시)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거제지역의 교(敎)·속(俗)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위상을 굳혔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라 말 불교의 세속화 과정에서는 세속인과 충돌하는 현상도 있었을 것이나 이들 사원이 가진 거제지역 내부에서의 순기능이나 긍정적 역할을 통해 지역민과 우호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들 사원은 통일신라시대 거제지역민들을 결집시키는 현실공간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삼국사기(三國史記)권 10, 소성왕(昭聖王) 원년(799)에는 청주(菁州 現 진주)의 거로현(居老縣), 즉 거제군의 아주현(鵝州縣)을 국학생(國學生)의 녹읍(祿邑, 食邑)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현 지역의 농업 생산력 기반이 상당하였으며, 그 결과 신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배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7세기 중엽 경덕왕이 거로현을 아주현으로 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세기 말인 소성왕 원년까지 이전의 군현명인 거로현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 연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으나 이 기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소성왕 원년 국학생 녹읍이 설치될 때까지 거로현에 중앙정부의 군현 통치체계가 철저하게 미치지 못한 결과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소성왕이 이 지역에 대한 직적접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학생 식읍을 설치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한다면 거제지역은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어느 정도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태도는 거제지역이 가지는 해양문화의 특징과 함께 풍부한 해상경제력 및 농업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적으로는 진골 귀족, 지역적 공간으로는 경주(慶州)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골품(骨品)체제를 유지하였던 통일신라시대, 그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제지역과 그 재향 토착세력은 경주인(慶州人)에 비하여 일정한 소외를 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동남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중(對中)·대일(對日) 교섭이 전개되었음으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해상교통의 거점에 있었던 거제지역은 그 역할과 위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 골품제의 동요, 토지

지배의 문란, 전면적인 농민항쟁 등에 따라 신라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나말여초의 사회변동기에는 각 지역에서 재향 지배세력이 성장하여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 지역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유력자층은 해상 경제력도 장악해 갔는데 경남 남해연안 지역사회에서도 이 곳에 산재한 수산물의 생산 관리권과 대중국·일본 무역권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한 지방세력이 등장·성장하고 있었다. 금주(金州, 現 김해)지역의 김인광(金仁匡)과 소율희(蘇律熙, 또는 金律熙)·충자(忠子) 형제, 청주(菁州, 現 진주)지역의 왕봉규(王逢規) 등이 그 대표적인 세력이다.

이 같은 역사적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나말여초 거제지역에서도 재향 지배세력이 등장하여 성장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은 나말여초~조선시대 거제지역의 토착세력으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권 150, 경상도(慶尙道), 진주목(晋州牧), 거제현(巨濟縣), 토성(土姓)에 기록된 정(鄭)·반(潘)·박(朴)·윤(尹)·조(曺)·손(孫) 등의 여섯 토성 이족(土姓吏族) 집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제지역이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해상교통 중심지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김해지역이나 진주지역의 토착 해상세력과 연대세력을 도모하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활로를 모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경남 남해연안의 수산물 생산과 대중국·일본 무역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며, 거제지역의 농업 경제력도 장악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나말여초 거제지역의 토착세력은 그 지역의 해상경제와 농업 경제력을 장악하여 신라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변의 유력한 재향 지배세력과 연대세력을 구축하는 반독립적 세력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고려시대 거제현(巨濟縣)

고려 태조에서 6대 성종까지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고 지방에 산재한 호족들을 포섭

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지방 제도 개편 같은 데 신경 쓸 겨를이 미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983년(성종 2)의 향직명호(鄕職名號 지방관직 품계의 명칭)의 개편이 취해진 것은 바로 이런 뜻이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동시에 전국에 비로소 12목(牧)을 설치하였다. 다시 995년(성종 14)에는 12목을 고쳐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12목은 12주 절도사로 개편하였다. 각 도 밑에는 다시 주(州)·부(府)·군(郡)·현(縣)을 두었다. 1012년(현종3) 1월에 절도사를 파하고 5도호부와 양(楊)·광(廣)·충(忠)·청(淸)·진(晋)·경(慶)·길주(안동)의 7주에 안찰사를 두었다. 이리하여 1018년(현종 9) 2월에 이르러 다시 지방 제도를 개편하여 전국을 4도호부 8목으로 나누었다. 거제는 고려시대의 지방제도 개혁에 따라 군(郡)에서 현(縣)으로 변경되었고, 하청부곡과 함께 죽토부곡·덕해향·고정부곡 등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이어졌다.

한편 거제현의 관청소속 군사는 보승, 정용, 일품 부대 등이 있었다. 부대와 인원을 살펴보면, 정용(精勇)이 50인, 일품이 128인이다(巨濟道內, 精勇五十人, 一品一百二十八人).

일품군은 보통 군대와 달리 공인(工人)으로써 조직된 공역군이란 것이 특색이었다. 복무기간은 추기(秋期, 가을 추수기)를 기해서 연 2번째로 교체되었으며, 1191년(명종 21)부터는 3번째로 바뀌었다.

참고로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1899년(광무3년)>와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고려시대(高麗時代) 거제현령을 지낸 분은 다음과 같다. ① 진중명(秦仲明 1078~1137)은 중원(中原) 사람으로 아버지 진상(秦相)은 국자제주(國子祭酒)이고, 어머니는 채주선(蔡周善)의 딸이다. 아버지의 문음(門蔭)으로 벼슬에 나갔으나,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였고, 청새진판관(淸塞鎭判官)과 궁궐도감녹사(宮闕都監錄事)를 거쳐 거제현령(巨濟縣令)이 되었다가, 병으로 귀경한 후 별세하였다. ② 거제현령(巨濟縣令) 송저(宋詝)는 명종조(明宗朝) 신축 11년(1181년)에 문관의 지방관 임명과 관련하여 탄핵을 받아 좌천되어 왔다. ③ 고려중기에는 이윤섭(李允涉) 현령이 있었고 ④ 고종 10년(1223년)에 최유공(崔愈恭)은 문반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주동하여 상장군(上將軍)에서 강직되어 거제현령(巨濟縣令) 부임했다. 그리고 ⑤ 거제현령 진용갑(陳龍甲)은 1226년(고종13년) 1월에 거제도에서 사도전(沙島戰)을 벌렸다. 고려 고종조 현령으로 왜구와 수군전을 벌이니 야밤에 왜놈들이 도망갔다(高麗 高宗朝 縣令 陳龍甲 以 舟師戰 倭于此倭夜遁). <고려사>에는 경상도 연해주군에 왜가 침구하므로 거제현령 진용갑이 수군으로 사도에서 싸워 2급을 참살하니 적이 밤에 도망하였다. 또 다른 기록에는, '사도(沙島, 사두도)는 고현(古縣) 동쪽에 있다. 고려 고종(高宗) 때에 왜적(倭賊)이 침입하자, 현령 진룡갑(陳龍甲)이 수군(水軍)을 이끌고 사도에서 싸웠는데 적이 밤에 도망쳤다.'고 한다. 진룡갑은 이후에 장평진장(長平鎭將)으로 승차했고, 북쪽변방 화주(和州 지금의 영흥) 동진과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 당시 진용갑에게 내린 조서에 "농사일이 한창인데 한발이 재해를 끼치고 있다. 이는 정치와 형벌이 잘못된 탓이니 나는 심히 두려워하노라. 참형과 교형 이하로서 유형 중에 있는 자는 가까운 곳으로 적당히 옮겨주고 감금되어 있는 죄수는 다 놓아줘라. 무인일에 동진이 화주에 침입하여 마소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하므로 진용갑이 사람을 보내 타일렀더니 다 버리고 갔다. 마지막으로 ⑥ 이윤보(李允甫) 거제현령은 1230년 전후에 재임했다.

그리고 위의 최유공(崔愈恭)과 송저(宋詝)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정중부 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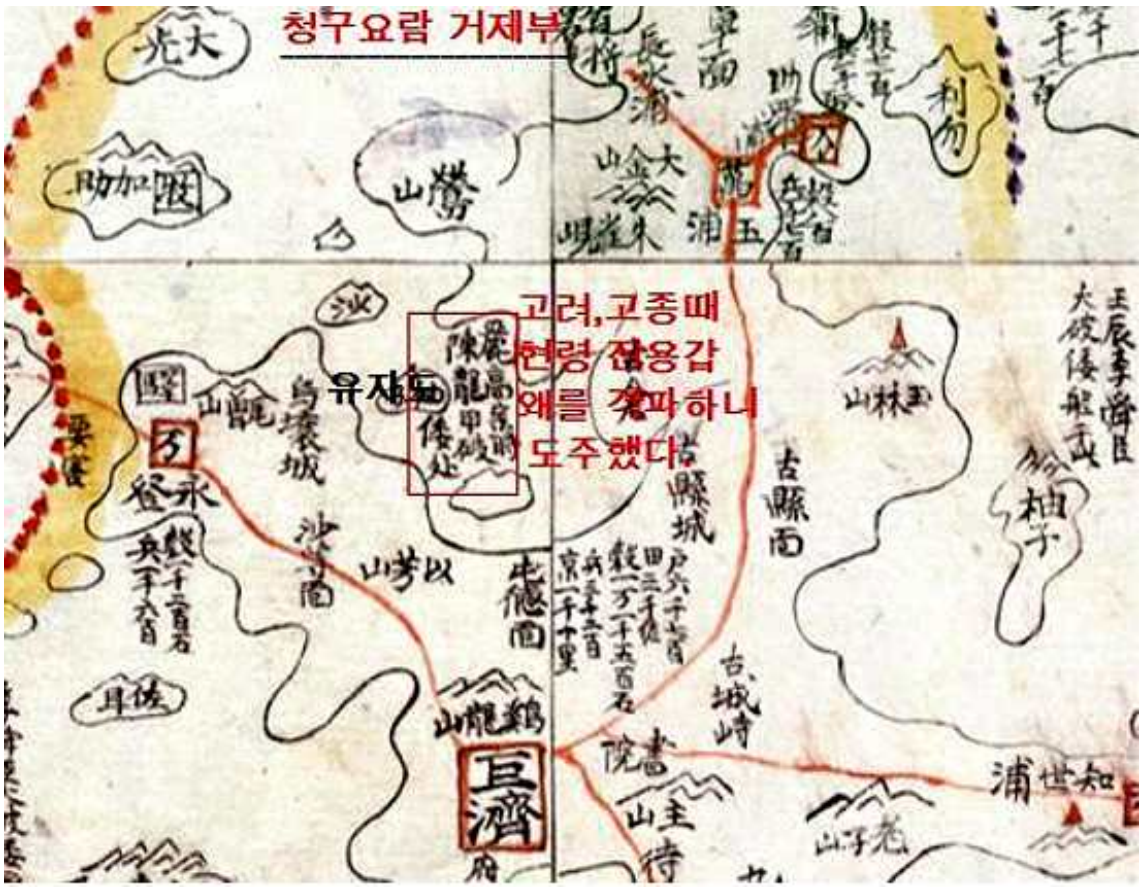
정권부터 최씨 무인정권까지도 거제섬은 변방지역 내지 소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왜구의 침략이 빈번해짐에 따라 점점 황폐화되어 갔다.

(가) 고려시대 거제현의 행정구역 변천

거제 임내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3영현과 부곡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 거제지역의 군현체계도 재편에 대하여 살펴보자. 12목(牧)이 설치된 성종 2년(983년)에는 기성현(岐城縣)으로 개칭하여 성을 쌓고 12목 가운데 하나인 진주목(晋州牧)에 편입되었으며, 당시 본도(本島)의 칠천도(七川島)와 가조도(加助島)는 목장(牧場)으로 상마(上馬)의 공급처가 되었다. 성종 14년(995년) 이래 개편된 12절도사(節度使)체제에서는 거제지역이 산남도(山南道)에 속하여 진주(晋州)절도사의 통제 하에 놓였고 거제의 유일한 역(驛) 오양역(烏壤驛)이 설치되었다. 5도 양계 체계로 재편되기 시작하는 현종 9년(1018년)에는 거제현으로 다시 복명되고 현령관이 파견되었으나, 당시 거란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조성하고자, 남해안 전 지역에서 대장경판을 제작하기 위해, 지금의 통영과 고성지역인 자고현(自固縣)을 거제현의 임내에 두고 현령(縣令)을 파견하면서, 경상도(慶尙道)의 진주목(晋州牧)에 소속시킴으로써 거제현이 주현(主縣)으로 됨과 동시에 그 행정규모가 확대되었으나[최초 광역통합행정구역], 뒤에 고성현이 분리됨으로 인해 다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거제읍치(巨濟邑治)는 사등면 사등성 인근 사월포(沙月浦)였던 것으로 문헌 기록상 유력하다. 먼저 <거제군읍지> <거제읍지>에 의하면, '고려 고종조 거제현령 진용갑이 수군전 왜구를 밤에 격퇴하다(高麗高宗朝縣令陳龍甲以舟師戰倭于此倭夜遁).' 고종 13년(1226년) 1월, 왜(倭)가 경상도(慶尙道) 연해 주군(沿海州郡)에 침구(侵寇)하므로 거제 현령(巨濟縣令) 진용갑(陳龍甲)이 주수(舟帥, 수군)로 사도(沙島)에서 싸워 2급(級)을 참살(斬殺)하니, 적(賊)이 밤에 도망하였다.[사도전(沙島戰)] 여기서 사도(沙島)는 거제도의 고지도에서 모두 사등면 앞바다 '사두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전함을 이끌고 밤에 바다로 나아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사등성 인근 사월포(沙月浦)였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청구요람 거제부> 고지도에 '고려 고종 때 거제현령 진용갑이 왜를 격파하니 도주했다.'고 적힌

섬이 현재 사등 앞바다 '사두도'이고 지도에는 유자도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거제군읍지의 기록을 증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4년(1422년) 환도(還島) 직후의 거제현 치소(治所)인 수월리(水月里)에 목책을 설치하였으나 현민들의 거주와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입지조건, 그리고 군사적 지형조건 등에서 불리하였다. 그래서 세종 7년(1425) 2월에는 거제현의 치소를 그 조건상에서 유리한 고읍(古邑)으로 옮겨가는 방안이 검토·의결되었으며,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고읍의 읍성은 세종실록(世宗實錄)권30, 7년 10월 신사에서 사월포(沙月浦)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지금의 사등(沙等)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원종 12년(1271)에는 진도의 삼별초 항쟁군이 거제지역을 내습함으로 인하여 거제현과 명진현 등의 속현의 관리와 가솔들 약1000 명 정도가 인근 내륙지역인 거창현(居昌縣)의 가조현(加祚縣) 등지와 진주목의 임내인 영선현(永善縣)으로 분산·이주시켰다. 하지만 대다수 거제민은 섬에 남아 생활했으며, 거제현령이 거창군 가조면 거제현으로 부임하면서 거제 본섬은 행정권 밖에 놓여있게 되었다(중앙정부

에서 섬이 텅 비어 있다고 기술했다). 거창군 거제현은 충렬왕(忠烈王) 때 관성(管城)에 병합하였다가 곧 복구하였다. 우왕(禑王) 때에는 서해도 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인 조운흘(趙云仡)이 황폐화된 거제섬의 농업·어업의 산업 생산력과 군사적 기능을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행정관청은 육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남해안의 수군진영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이 후에 몽고의 일본 침략과 맞물러 거제 본섬에는 고려말 1300년대 초기, 송변현에 수군진영 '가라산방어소(다대포)'가 설치되면서, 거제본섬에는 다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유민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했다. 1356년 (공민왕5년) 김보(金普)가 거제도 가라산(加羅山)으로 유배왔는데, 이를 관리한 관리는 수군진영 가라산방어소였다. 또한 조선 태조 때 1392년~1394년 사이에 고려 왕씨들이 둔덕기성으로 유배 왔을 때에도, 이들을 통제 관리한 관리는 '견내량 수군만호'였다. 또한 조선초기 경상우수영을 거제도 오아포(가배량)에다 설치한다. 태종11년 1411년, 가배량(加背梁, 통영)·견내량(見乃梁) 등지의 만호로 하여금 옥포(玉浦)로 옮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른바 그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이었다.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수어하는 곳이 여덟이니, 고성(固城) 가배량(加背梁), 지금은 거제(巨濟) 옥포(玉浦)에 있으니 도만호가 수어한다. 병선 22척, 군사 1천 1백 22명이었다. 거제(巨濟) 영등포(永登浦)에는, 병선 8척, 군인 7백 20명이 있었고, 1404년 견내량(見乃梁), 거제(巨濟) 옥포(玉浦)에는, 병선 20척, 군사 9백 40명이다. 1418년 당시 오아포 수군절도영에는 병선 28척, 군사 2천 6백 1명이 주둔했다. 조선태종 때 거제본섬 수군 인원만 3000 여명이 넘었다. 수자리 살던 수군이 대부분이라 그 가족을 헤아리면, 조선건국 후 1410년대에 벌써 엄청난 인원이 거제도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까지 거제지역은 진주목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통치 관철,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로의 종속적 재편을 겪었고, 군현 행정관청의 존립적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되었다. 거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중앙정부의 지방제도에 따라 진주의 군현에 속하다가, 조선전기는 경상우수영관할로 이어왔고, 조선후기에는 김해진관 소속으로, 근대에는 잠시 동래부에 속하기도 했다.

(나) 거제관문(巨濟關門) 오양역원(烏壤驛院) 설치

<역(驛)>은 옛날에 공무를 띠고 여행하는 관리들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또한 이외에 사신왕래에 따른 접대, 중앙과 지방 공문서의 전달, 진상물과 관급물자의 수송을 통해 중앙집권체제가 유지하는데 큰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변방의 군사상황을 알리는 파발제도를 역에서 주관하였기에 군사통신의 기능도 수행하였다.(역리는 기본적으로 세습제) 변방의 역원은 성곽을 구축해, 국가의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운송체계 관리>에서 살펴보면, 역에서 하는 일은 교통, 운수 외에 죄인의 체포, 수감, 석방 등을 주관하였고 노비의 추쇄도 수행하였다. 역의 위치가 교통의 요지이므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였기 때문에 감찰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수시로 중앙의 관리와 공문서가 오갔으므로 한양과 다른 지역의 소식을 지역사회에 가장 먼저 전달하는 정보전달 매개체이기도 하였다. 역의 소용경비는 보름이나 월말에 정산하고 관장(官長)의 확인을 받았다. 역리는 한 달 혹은 일 년 정산서에 역에 사용한 모든 것, 예를 들어 식사에 소용된 쌀, 기름, 장, 소금 등을 물품별로 지출내역과 소용된 양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누가 언제 역을 이용하였으며 지출된 것은 무엇인가가 분명하였다.

○ 고려시대 995년(성종 14년) 중앙집권제와 지방통치제도가 확립되면서 전국을 연결하는 국도 22곳 곳곳에 역(驛)을 설치했다. 역은 모두 525곳으로, 각 주(州)에

속한 역로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중앙 개성으로부터 전국으로 뻗어나간 22개 역로 중에, 산남도(山南道)길 즉, 전북 전주에서 진안을 거쳐 경남의 거창~합천~진주(통영 거제)까지의 길에서, 28개의 역참 마지막 역이 거제의 오양역(烏壤驛)이었다. 오양역은 고성의 배둔역(背屯驛)과 함께 진주 평거역(平居驛)으로 연결되며 다시 여러 역로를 통해서 개경으로 연결되었다.

고려시대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지은 정서(鄭敍, 생존 연대 미상)가 역모로 동래에 귀양살이 하다가, 1157년(의종11년)에 거제도로 이배되어 왔다. 거제현 오양역 인근에서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유배생활을 했다. 또한 1170년 고려 의종이 거제까지 유배를 온 결정적인 이유도 고려시대 역로 길 중, 당시 개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지막 역이, 거제 오양역이었기 때문이다.

○ 고려말기 거제현이 거창현 등지로 주민이 소개될 때, 오양역도 거창군 가조면(加祚面)에 본도(本島)의 이름 그대로 마양역(馬壤驛,오양역)이 옮겨가 있다가, 조선 초기 두 차례의 대마도 정벌 후에 남해안 도서지방이 안정을 찾자 1425년(세종 7년)에 다시 복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복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제현(巨濟縣)의 오양역(烏壤驛)을 복구(復舊)하였으니, 지현사(知縣事) 손이순(孫以恂)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고성(固城)의 송도역(松道驛)에서 거제현까지가 70리이고, 거기서 옥포(玉浦) 영등(永登) 각 포까지는 또 요원(遼遠)하므로, 송도역 말이 많이 시달려서 죽게 되는 까닭으로 이 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세조 29권, 8년(1462년) 8월 5일 기사에는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었고 오양역을 포함한 16역은 소재도 역승(召材道驛丞)으로 일컫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500년(연산6년) 오양에다 오양보(烏壤堡)와 역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오량성은 사등면 오양리 오량성(烏良城·도기념물 제109호)이고 1500년(연산군 6년)에 쌓은 성으로, 당시의 오양역(烏壤驛) 보루터다. 말 5필에 역리 20명에 권관(權管)을 두어 방수(防守)하게 하여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석축으로 된 이 성(城)은 둘레가 1,172m, 높이 2.6m, 폭 5m이며, 성내는 마을이 대부분 들어섰으며, 성 밖은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쪽과 서쪽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에서도 오양포(烏壤浦)를 말할 때 '오양역에 있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진주 소촌역 문산찰방 관할로서의 역로의 끝에 위치한 종점이었다.

○ 거제도 지역 중에 '오양'에다 역원을 둔 것은, 당시 고려시대에는 바다를 건너 최단거리인 이곳에서, 말이나 수레를 갈아타고 아주현 송변현 명진현 고정리(고현)로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 할 수 있는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역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공해전이 필요 했는데 견내량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하천과 들녘이 있는 지역이 여기 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거제도는 유배자가 많아 견내량을 진선(나룻배)를 타고 오양리까지 건너와서 배소지로 이동했다. 거제유배문학 중에 진선으로 건너는 그때 심정과 풍경을 읊은 시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 참고로 '오양'의 지명어원은 우리나라 고어 '오랑'=뱃대끈, 즉 안장이나 길마를 소나 말 위에 지울 적에 배에 조르는 줄을 말하는 뜻으로, 역참의 제일 마지막 역인 오양역에서 역말을 교체하고 다시 안장과 길마를 장착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오랑>오양(烏壤)으로, 한자어는 음을 빌려 차용한 것으로써 별 의미가 없다.

(다) 고려 1128년 거제도 3속현의 항쟁

고려중기 1128년, 개경정부에서 고대로부터 한·일 해상교류의 거점이자 교통로인, 거제도 남동부해안 명진현(거제면)·송변현(남부면 동부면)·아주현(일운면 舊장승포읍)에 거주하던 거제해상민족을 해적으로 단정하였다. 이에 거제현민 약 1000명 이상이 봉기하여 약5개월간 항전하다 결국 투항하였고, 살아남은 이들 중에 약 820명을 합천 진주 등지로 분산, 강제 이주케 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 거제도 남동부는 고대로부터 자유로이 바닷길을 항해하며 살아온 해상민족이 터전을 일구어 온 곳이었고, 통일신라 때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거제군의 3속현이 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1128년 이 사건을 계기로 거제해상민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대마도, 일본과의 유대관계가 소멸하기 시작하였고, 소위 '왜구'라 불리는 해적이 보복성 약탈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1700년대까지 거제도에는, 해상민족의 풍속을 버리지 못해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부 '해상족'이 있었다고

사료에 전한다. 거제의 정체성(Geoje's identity) 확립에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 고찰해야하며,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각종 정사 기록물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사건내용을 살펴보자. ① 먼저 정사(正史)로 알려진 고려사(高麗史)15권 인종(仁宗)6년 1128년 4월, “남쪽 경계에 해적(海賊)이 많이 일어남으로 어사중승(御史中丞) 정응문(鄭應文)으로 선문사를 삼아 가서 효유(曉諭,알아듣도록 타이름)하게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해 10월 임자에는 "임자 초하루에 동남해 안찰사(東南海按察使) 정응문이 ‘명진(溟珍)·송변(松邊)·아주(鵝州) 세 현(縣)의 해적인 좌성(佐成) 등 820명이 투항하여 복속하였음으로 이에 합주(陜州)의 삼기현(三岐縣)에 귀순(歸厚)·취안(就安)의 두 장(場)을 설치하고 진주(晋州)의 의령현(宜寧縣)에 화순장(和順場)을 두어 거처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여러 신하들이 하례를 하였다한다.

여기서 인종 6년(1128)에 활동한 남쪽 경계의 해적이라 칭한 '좌성(佐成,佐城)'은 고려시대 주현의 '속현 관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거제3속현의 우두머리를 해적이라 부른 것이다. 1128년 4월 왕명으로 개경 정부에서 선문사를 파견하고, 10월 보고를 받았으니, 약 5개월 정도 거제3현이 정부군에 항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적의 투항에 여러 신하가 의종에게 하례하였던 사실은 곧 거제 남동부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해상세력이 개경의 귀족 관료층에게 큰 영향을 줄만큼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이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고,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에 항전한 점과 이후 투항 한 점은 이들이 거제지역의 사회·경제적 모순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제현민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② 거제도지역은 기원전부터 중국 일본 백제 가야지역을 잇는 해상교통의 경유지로써,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제자유무역항의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나 신라 문무왕 때 상군(裳郡)이 설치되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된다. 고려건국으로 개경이 수도가 되자, 거제지역은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어 변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대외 교류에서도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對中國) 교류가 부각되고 대일(對日) 교섭이 극히 미미함에 따라 대일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던 거제지역의 위상은 더욱 위축되었다. 육지와 가까운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과 하청면 장목면은 남해연안 지역에 위치한 조창과 세곡 해상운송로에 위치한 관계로, 정부에서 거제현령을 파견하여, 정부의 영향권에 있었다. 그러나 거제 남동부 해안지역, '명진현(거제면)·송변현(남부면동부면)·아주현(일운면, 장승포읍)' 3속현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해상민족의 문화권이 면면히 이어오던 지역이라, 지역유력자가 현을 다스리고 있었고, 관리를 '좌성(佐成)'이라 불렀으니, 지방색이 뚜렷한 토호세력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정부에서 3속현의 토착인 모두를 잡아, 정부통제를 굳건히 하고자 육지로 강제소개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예로부터 동일한 해상문화권인, 일본 큐슈 대마도 남해안 연안지역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였고 바다의 국경이 뚜렷하게 경계 짓게 되었다. 당시 1128년 3속현의 해상 활동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남해연안의 해상조운을 위협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해적(海賊)으로 취급했겠지만, 이로 인해 대마도 이끼 큐슈북부 지역의 해상족이 왜구로써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침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거제민의 항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126년 5월에 인종에 대한 이자겸의 난이 평정된 후에, 이자겸 아들 이지언(李之彦)이 일부 가솔들과 함께 거제도로 유배 왔다. 당시 이지언과 거제 3속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관성(기록물)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기록에 관계없이 이들과 관련성을 추정하여 서술 할 사건은 절대 아니다. 당시 3속현 항쟁에는 최소 1000 여명 이상이 봉기하여 농어민들에게 장악되었는데, 인근 진주목 지역에서 대규모 진압군이 들어와 농어민들을 처참히 도륙하였다. 그 중 820명은 사로 잡혀 진주 합천 지방의 천민 마을로 이주 당하였다. 이후 1155년 완산에서 농민반란, 1162년 이천 등지에서 대규모 민란발생, 1163년 남도지방에 농민반란 발생, 1168년 제주에서 농민반란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고려 인종(재위 1122년~1146년)과 고려의종(재위 1146년~1170년) 동안 끊임없이 민중의 항쟁이 일어나더니 1170년 무신정권 이후에도 민중항쟁은 전국적으로 수없이 발생했다.

○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하지만, 문호를 개방하고 개방적 정책을 지향하여, 1128년 당시 5개월간 항전한 거제민을 정부에서 해상무역 발전을 고려해 이들을 대우하고 폐쇄적 정책을 지양했더라면, 몽고의 침략에도 굳건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이어온 해양국가의 명맥을 유지하여, 지금쯤 대마도 이끼섬 등지는 우리나라 지역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고려사 고려 인종6년 1128년 3월의 기록을 보면, "지금 수령은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이익으로 삼는 자가 많고 근면과 검소함으로 무민하는 자가 적어 창고는 비고 백성은 궁핍하다. 여기에 역역이 더해지니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되어 일어나 함께 도적이 되는 자가 많다"한다. 또한 이 시기 전후에는 왜구의 침입 사실이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해적 항쟁세력의 실체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계를 잇기 위하여 저항한 거제3속현의 백성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약 900년 전 우리 거제도에 아픈 항쟁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을 사는 거제민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견지하는데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라) 고려시대 거제 유배상황

고려시대 995년(성종 14년) 전국을 연결하는 국도에 역(驛)을 설치했는데, 산남도(山南道)길 즉, 전북 전주에서 진안을 거쳐 경남의 거창~합천~진주(통영 거제)까지 마지막 역참으로, 거제의 오양역(烏壤驛)이 최초 신설되었다. 오양역은 당시 개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역참이었다. 이로 인해 이후부터 거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유배지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약 800년간 지속되었다.

고려초기에서 조선초기까지는 오늘날 사등면과 둔덕면 일대와 오양역(烏壤驛) 부근에 정배되었고, 그 외에 해안 수군 방어소가 있었던 가라산 아래 다대포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거제로 유배 왔다.

정사(正史)에 기록된 거제도 첫 유배자는 1112년(예종 7) 속리사(俗離寺) 주지이자 문종의 6번째 아들 '승통(僧統) 탱(竀,정)'과  문종의 12번째 아들 '부여공(夫餘公) 수(燧)'이다. 이들은 왕위 계승을 두고 여러 배다른 형제들과 암암리에 다투다가 반역에 연루되어 멀리 거제도까지 찬축되었다. 고려 순종 선종 숙종이 그들의 형제였다. 한편 고려시대 기록물은 조선시대와 상대적으로 전하는 자료가 부실하다보니, 지금까지 총 14 사람 정도의 거제 유배자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 거제 유배자를 살펴보면, 이자겸의 아들 이지언(李之彦)이 1126년(인종4년) 가솔들을 데리고 왔고, 정과정곡을 지은 정서(鄭敍) 정사문(鄭嗣文)이 1151년(의종5) 본향인 동래에 연고지 유배형에 처해져 있다가 다시 1157년(의종11년) 거제 오양역으로 이배되어 13년간 귀양살이를 했다. 또한 고려 의종(毅宗)이 1170년 무신정변으로  폐위되어 약3년간 거제도에 유폐되었다.

특히 정서(鄭敍)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은 1170년 9월 고려 의종이 개경에서 축출 되어, 정서의 유배지인 오양역 인근 둔덕기성(폐왕성)에 와서, 1170년 10월 정서와 거제도에서 약 한 달간 재회한 후(고려사절요), 창작된 것이 확실하다. 정서의 유배기간은 관향인 동래 5년 10개월, 거제현 13년 8개월, 총 19년 6개월의 기나긴 귀양살이였다. 당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임춘(林椿, 1148~1186)이 정서가 남겨 놓은 글을 보고 지은 <정시랑(정서) 서시 차운(次韻鄭侍郎敍詩)><추도정학사서(追悼鄭學士敍)>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증언해 준다. 당시 임춘의 글에는 정서의 동래생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다만 그의 시구에는 거제현에서 유배생활만 기록해 놓았다. '이배 된 거제도 역참에서, 허물은 예전에 벌써 징계되었는데도, 20년간 도깨비와 싸웠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고종(高宗) 15년(1228년)에는 직학(直學) 경유(景儒)가 무인 최씨정권에 대해 정치를 비방했다는 무고를 당하여 거제로 귀양 왔고, 1356년(공민왕5년) 공민왕의 수종공신(隨從功臣) 김보(金普)가 가라산(加羅山)방어소로 유배되었다가 1366년 복권되어 수시중(守侍中)에 까지 올랐다. 고려말기 나계유(羅啓儒)가 친척아우 나계종(羅繼從, 1339~1415)에 연루되어 유배 왔다가 이내 풀러나기도 했고, 조선건국 1392년부터 1394년까지 왕화(王和), 왕거(王琚), 왕우(王瑀)부자, 왕강(王康) 外, 고려종성(宗姓·왕씨)들이 둔덕기성에 유폐되기도 했다. <거제부읍지>에 의하면 '둔덕기성은 읍치 서쪽 30리 석성이며 둘레 1002척 높이 9척내 못 1개이다. 대대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본 조선초기 고려 종성 왕씨들이 유폐 되었던 곳이다.(屯德岐城  在府西三十里石城周一千二尺高九尺內有一池世傳  本朝初高麗宗姓來配之處)'고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서(鄭敍)의 유배처럼 본향(本鄕)이나 관향(貫鄕)에 보내지는 귀향형은, 죄인의 연고지로 유배 보낸 고려전기 가벼운 형벌인데 송제(宋制)의 영향을 받아 특

혜적인 성격이 강했다. 고려의 연고지 유배형은 조선시대에는 부처(付處) 또는 안치(安置)형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거제도는 당시 개경에서 가장 멀리 보내야할 중죄인이나, 권력에서 패배한 강성 정치범의 유형지로 활용되었다.

(마) 고려범종 거제 북사종(巨濟北寺鐘) 혜일사종(惠日寺鐘)

고려시대 하청부곡(河淸部曲)에 북사(北寺)라는 사찰에 걸려 있던, 거제 최고의 유물 '고려범종 거제북사종(巨濟北寺鐘)'이 있다. 1026년(현종17년) 9월 제작, 1232년 일본 왜구에 의해 약탈(?)해간 북사종명(北寺鐘銘), or 거제북사종(巨濟北寺鐘) or 혜일사종(惠日寺鐘)이 현재 일본 좌가현(佐賀縣) 동송포군(東松浦郡) 경정(鏡町) 혜일사(惠日寺) 사찰에 보관 중이다. 총 높이 72cm(종 머리 포함), 무게 약72Kg정도인 거제북사종은 건장한 장골이 지게에 지고 산 위로 나를 수 있는 무게로써, 당시 일반 사찰에 하나씩 걸려있던 고려범종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하청에 부곡북사(部曲北寺)라는 절이 있었고, 수월사 인근에 연정장(鍊汀莊, 고려초~고려중기)이, 거제 연초면 연사리'에 위치했고, 수월리(水月里) 수월사(임진왜란 소실), 하청면 가이포(加耳浦)의 가이사(임진왜란 소실)도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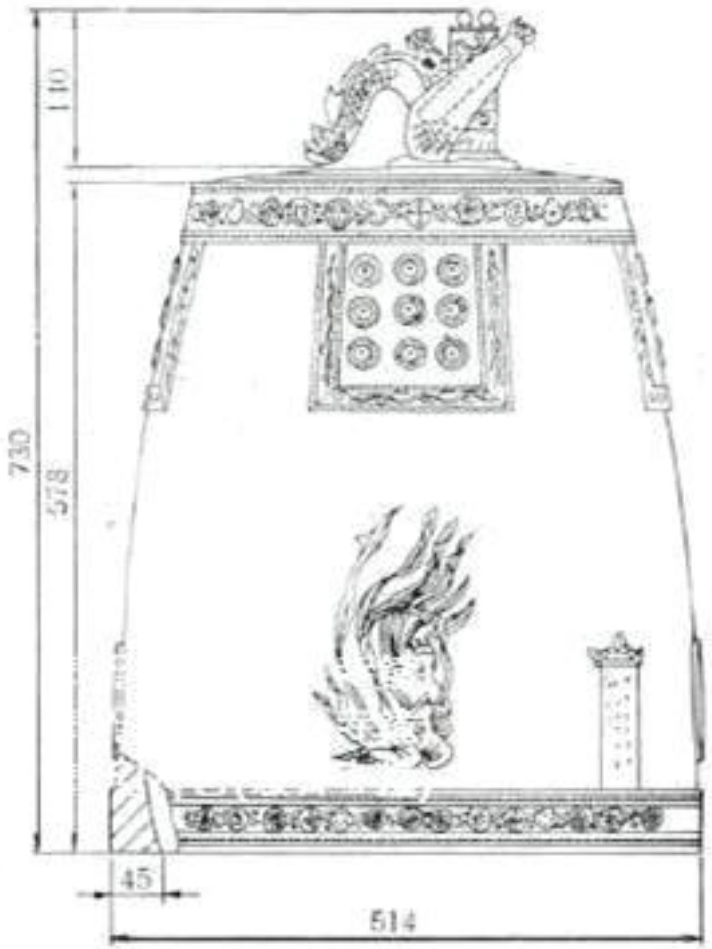
참고로 조선왕조실록 현종9년(1668년) 1월 19일 기록에, '거제에서 구리가 산출되다. 거제(巨濟) 지역에서 동(銅)이 산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이 나지 않다가 지금 비로소 산출된 것이다.'라는 사실은 왜구의 침범으로 폐광되고 사라진 제련소를 이때 다시 복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일종의 악기이며, 불교를 의미하는 범(梵)자를 붙여 '범종'이라고 한다. 불교 예불에 사용하는 4가지 중요한 기물을 사물(四物) 즉, 법고(法鼓)·목어(木魚)·운판(雲版)·범종(梵鍾)이라 하고, 이 사물 중에서 종소리는 백팔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비하신 부처님의 신앙심을 가다듬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 거제의 하청부곡 북사종(部曲北寺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혜일사종(惠日寺鐘)은 원명(原名)이 부곡북사종(部曲北寺鐘)이고, 현재 일본 좌가현(佐賀縣), 당진시(唐津市) 대자종정(大字鐘町) or 동송포군(東松浦郡) 경정(鏡町)에 있는 사찰종

이다. "후쿠오카(福阿)에서부터 카라츠시(唐津市)까지 달려가야 혜일사종(惠日寺鐘)을 볼 수 있다. 혜일사종(거제북사종)은 구경 514 mm, 전고 730 mm, 두께 45mm의 종이다. 혜일사종(惠日寺鐘)은 종정에 단용과 음통을 갖고 있고, 종신에는 견대 상대 하대 유곽 당좌 및 비천상과 위패형 명문 등 고려종의 구성요소를 골고루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은 상협하광형의 모양을 비롯하여 당좌 비천상 위패문 등의 문양수법이 용두 상대 하대 유곽 등의 수법과 전혀 다른 점이 있어 일반적인 고려범종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 종에는 태평6년 병인(太平六年丙寅)이라는 명문이 있어 고려 현종 17년 (1026년)에 주성된 것임이 틀림없다. 이 종에는 종신후측의 당좌와 좌측면의 비천상과의 사이에, 그리고 또한 하대에 인접하여 만든 위패형 명문곽 중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양주되어 있다. 즉 '太平六年丙寅九月日 河 淸部曲北寺鍮鍾壹軀入 重百二十一斤 棟梁僧談曰'[태평6년 병인9월 일 하청부곡북사 유종일구입중 121근 동량승담일].

종신 아랫부분 하대에 접하는 곳에는 사각형으로 구획된 방곽(方廓內)을 만들고 그 상부를 화문으로 장식하였다. 방곽 안에는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보 제28호 천흥사동종 또는 현재 일본 사가(在賀)현 혜일사(惠日寺)에 소장된 태평6년(太平六年, 1026)명 거제북사종(巨濟北寺鐘) 등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명문에는 '太平六年'에서 태평은 요나라 성종(聖宗)의 연호이고 그 6년 병인은 고려 현종(顯宗) 17년 (1026년)이다. '하청부곡북사(河淸部曲北寺)'에서 하청부곡(河淸部曲)은 경남 거제시 하청면의 집락(部池)의 명칭이고, 북사(北寺)는 그 부곡의 북쪽 사찰(寺利)인데 정식사명을 말하지 않고 단지 북사라 했다. 고려 현종(顯宗) 17년 (1026년) 9월 거제도 북사 청동종 1구, 입중 121근이고, 담당스님(동량승) 담일(談 曰)이라고 명문을 요약할 수 있다."




<거제 혜일사종(惠日寺鐘)>

○ 일본 좌가현(佐賀縣) 동일한 혜일사종(惠日寺鐘)과 승낙사종(勝樂寺鐘)

혜일사종(惠日寺鐘)의 형상(形狀) 및 문양(紋樣)과 동일한 승락사종(勝樂寺鐘)이 일본(日本) 구주(九州) 당진시(唐津市)의 반단료승락사(半團燎勝樂寺)에 있었다고 하며 그 탁본이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명치(明治) 초에 독일인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었다 하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이 혜일사종(惠日寺鐘)과 승락사종(勝樂寺鐘)은 용두를 비롯하여 모든 문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명문도 동일하다(크기는 다소 다르다). 만약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한국 거제도 북사에 2개의 동일 명문의 종을 걸었을까? 일본 카라츠시(唐津市)에 있는 인접한 2개의 사찰에서 동일종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아마도 ①첫째로는 당좌 비천상 위패문 등의 문양수법은 재일 고려종의 지문판(地紋板)을 떠서 만들어 고려식(한국식)이고, 용두 상대 하대 유곽 등은 일본식 수법으로 만든, 모조고려종(模造高麗鐘)으로 추정

할 수 있다.(승락사종은 혜일사종의 모조 종으로 판단된다). ② 둘째로는 거제도 청동 제련소 연정장(鍊汀莊,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일대인데, 매립과 복토전의 옛 연사리 하천 하류 근처에 위치함)에서 만든 북사종을 왜구가 약탈해가고, 뒤이어 다시 만든 북사종도 약탈해 가, 결국 일본 구주(九州)에 2개의 동일 고려범종이 있게 되었을 수도 있다.

○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거제북사종은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고려범종(高麗梵鐘)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인 범종과 같이 단두(單頭)의 용두(龍頭)와 음통(音痛)을 갖추고, 상하대(上下帶), 당좌(撞座), 천인상(天人像) 등을 갖추고 있다. 명문은 종의 배면(背面)의 당좌와 왼쪽 천인상과의 중간 하대(下帶)에 마련된 위패형 명문곽 안에 양주(陽州)되어 있다. 명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종은 1026년(현종 7, 大平 6)에 만들어져, 현재의 경상도 거제시 지역에 있었던 하청부곡(河淸部曲)의 북사(北寺)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새긴 추기(追記)에 의하면, '1232년(고종 19) 사가현(佐賀縣) 당진시(唐津市)에 있었던 비전종사(肥前鍾社)의 사람이 고려에 건너와서 많은 진기한 보물을 훔쳐 돌아왔는데, 가마쿠라 바꾸후(鎌倉幕府)에서 그를 체포하고, 보물들은 압수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종은 13세기 왜구(倭寇)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보인다.

(바) 삼별초 항쟁과 거제현민의 강제 이주

거제현은 고려시대 1271년(원종 12)에 삼별초의 난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육지로 소개령이 내려져 거제현(巨濟縣)의 관리와 관노 수졸(戍卒) 등 약 1000 여명이, 거창현의 속현인 가조현과 진주 영선현(훗날 강성현→진성현→산음현→산청군으로 개칭)으로 피난을 떠난 아픈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거제현의 관청은 거창군 가조현에 더부살이를 했고 조선조 1422년 세종4년 거제 본섬으로 환도(還島)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조선시대 각종 기록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껏 왜구의 침범으로 인하여 피난 간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1270년에 삼별초항쟁이 시작되어 1271년 진도에 있던 삼별초가 여·몽 연합군에게 함락 당한 후, 주력부대가 제주도로 옮겨간 삼별초는 남해안의 세곡선과 세곡창고를 습격했다. 이에 정부는 거제지역 뿐만 아니라 남해도 등 인근 섬지방 사람들이 삼별초 항쟁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271년 미리 육지로 소개령을 내렸던 것이다.(남해현민들은 이후 남해본도로 돌아갔으나, 거제현민은 1422년까지 돌아가지 못하였다) 거제본도(本島)안의 속현(屬縣) 및 역(驛)·원(院) 등 총 1000명 정도의 관청 관계자와 노비 등이 거창군 가조현(加祚縣), 진주목 영선현(永善縣) 등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현령은 현의 수령으로, 현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이면 현령을 두고 그 이하이면 현장(懸長)을 두었다. 당시 거제인구는 최소 8000명 이상이었다(수군 인원 제외). 육지로 거제관청을 옮긴 1년 후인, 원종(元宗) 13년(1272년) 11월에는 삼별초(三別招)가 거제현(巨濟縣)에 쳐들어 왔다. 이때까지 남아 거제현민을 지키던, 거제현령을 잡아가고 전함(戰艦) 3척을 불태웠다.

이후 중앙에서 파견되던 거제현령은 거창군 가조면 거제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초기까지 거제관청이 본도(本島)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왜구의 침범으로 인한 불안한 정세 때문이었다(150년 간). 거제현 관아가 거창현에 더부살이 하여 마치 거제도 본섬에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오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육지로 피난 간 거제민은 일부에 불과 했으며 대다수는 그대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수군진영 포함).

○ 그렇다면 당시의 여러 정사(正史)의 역사기록을 살펴보자. '거창군의 가조현에 임시로 의지하여 살았으며, 충렬왕 관성(관성)에 병합하였다가 곧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였다'(『고려사』 권57, 지리지, 경상도, 거제현).

거제현이 가조현에 임시로 의지하여 살았을 때 본도(거제섬) 안의 속현 및 역·원 등을 가조현 경내에 아울러 임시로 설치하였다. 아주촌(鵝洲村) 아주현은 군(거창군)의 동쪽 10리 지점에 있고, 송변현은 무촌역(茂村驛)의 남쪽 5리 지점에 있으며, 오양역도 가조현의 서쪽에 있었다. (그리하여) 사는 거제현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거창군, 고적).

거제의 명진폐현(溟珍廢縣)은 원종 때에는 왜를 피해, 육지에 나와서 진주의 영선현(永善縣)에 살았다. 본조(조선) 공정왕(定宗) 때에 강성현(江城縣)과 합병하여

진성현(珍城縣)이라 하였고, 세종 때에는 본 섬(거제도)에 다시 내속시켰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명진현은 원종 신미년에 왜적을 피해 육지로 나와서 진주 임내인 영선현에 살았다. 본조(조선) 공정왕(定宗) 원년 기묘에 두 현(강성현과 명진현)을 합하여 진성(珍城)이라 이름하였다.(『세종실록』 권150, 경상도, 진주목, 진성현)

이들 문헌은 거제현의 이주 배경을 '왜적(왜)을 피해' 가조현과 영선현으로 이주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거제현은 속현 및 역·원 등을 가조현에 임시로 살았다. 거제현의 속현 아주촌(아주현)은 가조현의 동쪽 10리 지점(지금의 거창군 남하면 일대)에 있었다. 송변현은 무역촌의 남쪽 5리(지금의 거창군 남상면)에 이주했다. 명진현은 진주의 영선현(지금의 산청군)에 있었다. 『동국여지승람』 거창부편에는 오양과 송변역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참고로 영선현은 진주에 있었다가 명진현과 예전의 강성현을 합쳐 진성현으로 변경되었다. 진성현은 명진현이 거제섬으로 돌아가자 단계현과 강성현을 합쳐 단성현이라 했다. 지금의 산청군이다. 한편 명진현은 1427년(세종 9) 이후 거제현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세종실록』 35권, 9년(정미) 1월 13일(임인) 6번째 기사 참조). 1436년(세종 18) 2월 4일자 세종실록에는 명진현 사람들이 이미 거제현에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로 명진현은 1427년~1436년 사이에 거제섬으로 돌아왔다고 하겠다.

위의 기록에서 1271년~1272년 사이 거제현민이 육지로 피난 갔던 이유가 모두 왜구의 침략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고려는 삼별초를 역도 역적(逆賊) 혹은 왜구로 아울러 표현하다보니 삼별초를 왜구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 삼별초 때문에 육지로 피난 간 기록들을 살펴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거창군 속현조에 의하면, 원종 때에 거제현(巨濟縣)이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피해서 관아도 여기에 우접(寓接, 우거)하고 그대로 거제라 일컬었다. 우리 세종조

에 와서, 거제는 본래 섬으로 돌아가고 현도 또한 거창으로 도로 예속되었다.

○ 다음은 1470년, 김종직(金宗直)이 함양군수로 재직 時, 고려 때 피난 와서 살다가 조선초기 거제도로 돌아가지 않고 거창군 가조현에 남아 살고 있는, 거제 유민(留民)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거제민의 역사를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가조현에서 자다(宿加祚縣)> 김종직(金宗直, 1431~1492)

"가조현은 거창(居昌)의 속현(屬縣)인데, 고려시대 삼별초(三別抄)의 난이 있을 때에 거제(巨濟)의 이민(吏民)들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망쳐 와서 부쳐 살았다. 그러다가 본조(本朝) 초기에 와서는 그들이 옛 고장으로 돌아갔는데, 지금도 이 고을을 거제라 부르고 있고, 또 마을 이름도 아직까지 아주(鵝洲)·송변(松邊)·오양(烏攘) 등의 칭호를 띠고 있다."(縣屬居昌 高麗三別抄之亂 巨濟吏民 渡海奔迸于此遂僑寓焉 本朝初 還其舊土 至今號此縣爲巨濟 又村名尙帶 鵝洲 松邊 烏攘等稱)

"농사 짓는 사람이 빽빽히 사는데 공연히 섬의 명칭이 남아있구려. 계산은 은거한 선비들과 함께하고 부로들은 태평성대를 말하네. 고요한 밤엔 우리에서 돼지가 울고 텅 빈 처마엔 달이 기둥을 비추누나. 술이 깨자 촛불을 부르고 보니 이제야 속

진에 얽혔음을 믿겠네.[桑柘人居密 空留海島名 溪山共隱逸 父老說升平 夜靜豚鳴圈 簷虛月到楹 酒醒仍喚燭 方信俗塵縈]”

○ 당시 거제현(巨濟縣) 연혁(沿革)에 따르면 고려 원종 때의 거제현이 삼별초의 난을 피해 관청(官廳)과 백성을 거느리고 가조현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원종(元宗)12년(1272)에 가조현(加祚縣)이라는 명칭을 잠시 버리고 거제현(巨濟縣)이라 하다가 조선 세종때 거제현이 본도(本島)로 돌아감에 따라 가조현은 거창현(居昌縣)에 붙여졌다.

또한 거창군읍지에 의하면, 원종 12년(1272년)에서 조선(朝鮮) 세종(世宗) 4년(1422년)까지 150년간을 이곳에 머무는 동안 潘氏(반씨), 諸氏(제씨), 申氏(신씨), 玉氏(옥씨) 같은 성씨들이 이곳에 옮겨 살았는데 환도(還島)하지 않고 남아 산 사람도 있었으며 또 오랫동안 맺어진 인연으로 함께 거제도(巨濟島)로 옮겨간 성씨들도 있었다. 지금도 가조현과 거제도에 동일한 지명이 있다. 수월리, 우두봉, 가조, 아주 등이다. 現거창군 가조면에 살고 있는 옥(玉), 반(潘), 신(申), 제(諸)씨의 뿌리는 거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거창부편(居昌府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가소(加召,가조현)에 들어온 거제현은 본도(本島)에 있던 속현(屬縣)의 이름을 따라 아주현(鵝州縣), 송변현(松邊縣)을 지금의 거창군 남하면 아주(鵝州)와 남상면 송변리(松邊里)에 두고 가조면(加祚面)쪽에는 본도(本島,거제도)에 있을 때 이름 그대로 마양역(馬壤驛,오양역)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는 거창(居昌), 거제(巨濟), 두 현(縣)을 합하여 제창현(濟昌縣)이라 불렀다.[巨濟萬加祚時以本島內屬縣及驛院等竝僑置千  加祚不境鵝州縣在府東十里  松邊縣茂村驛南五里 島壤驛赤在加祚不西居民至今廼仍稱不松邊驛].

○ 1274년 1281년 두 차례의 원나라와 고려의 연합군의 일본 정벌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로 인해 거제도는 다시금 평온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난 간 거제현 관청은 여전히 귀도하지 않았다. 이때 환도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다시 왜구가 들끓었고, 조선 1418년 세종1년, 상왕 태종과 세종이 대마도 정벌 후에 거제현 관청을 본도로 옮길 것을 공표하여, 세종(世宗)4년 1422년에 거제관청이 옮겨왔고,

이후부터 8차례에 걸쳐 피난 간 거제현민이 옛 섬으로 환도하여, 지현사(知縣事)로 하여금 거제수령을 두었는데 그 뒤에 현령(縣令)으로 고쳤다.(실제 조선세종 때 육지에서 환도한 거제현민은 약 400 여명에 불과했다).

○ 참고로 고려시대 거제도 성씨(姓氏)편을 살펴보면, '본현(거제현)에는 "반정박윤조손라" 있으며, 래성으로는 영산 "신"씨, 고성 "이"씨, "박", "백"씨가 있는데 함께 산다.

명진현에 사는 "임조한허하". 아주현에 "신문갈조". 송변현에 "박손". 하청에 "김손". 말근곡(말근향)에 "박". 해덕동(덕해향), 고정리(고현동)에 "조". 죽토동(죽토리) 연정장에 "조신". 새로 더하여 죽토동에 "옥". 의령에서 온 함안 "송정조"씨, 명진에 기계"유"씨가 있다.' [本縣潘鄭朴尹曹孫羅 來辛靈山 李固城 朴白 竝村 溟珍任曹韓許河 鵝州申文葛曹 松邊朴孫 河淸金宋 末斤谷朴 海德同 古丁曹 竹土同 鍊汀曹申 新增竹土玉 宜寧 松丁趙 咸安 溟珍兪 杞溪]

그리고 조선조 세종연간인 15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거제현의 관련기록에서, 하청(河淸)·죽토(竹土)·고정(古丁)부곡, 말근곡(末斤谷)향, 연정장(鍊汀莊)에는 모두 사람들이 없다고 한 사실에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온 거제의 부곡제도가 조선조 거제 섬으로 환도하면서 해체되었음을 반증(反證)한다.

(사) 고려말 변방지역으로 재편, 독립적인 지방행정 단위의 존립위기

고려사(高麗史)권 27, 원종(元宗) 13년(1272년) 11월에는 삼별초(三別招)가 거제현(巨濟縣)에 쳐들어 와서 전함(戰艦) 3척을 불태우고 현령(縣令)을 잡아갔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거제현을 인근 내륙지역으로 옮긴 다음 해인 원종 13년에는 삼별초 항쟁군이 거제지역으로 쳐들어 와서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잡아갔다. 이 같은 군사행동은 원종 12년 거제를 인근 내륙지방으로 옮기는 개경정부의 정책을 거제현의 지방관이 동조하고, 삼별초 항쟁군에 대한 진압군의 군사적 거점을 제공하는 등 삼별초 항쟁군에게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삼별초 항쟁기에 있어서 거제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삼별초 정부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호응한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원(元)나라의 과중한 군량요구와 개경정부의 가혹한 수취에 따라 합포·고성·거제를 비롯한 남해연안 지역에 있었던 군현민들의 생활상이 피폐화되어 갔다. 이 같은 여건으로 때문에 다른 동조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제지역의 토착세력과 하층 군현민들도 삼별초 항쟁군에게 어느 정도 호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거제현을 인근 내륙지역으로 옮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삼별초 항쟁군이 여·원 연합군을 심한 곤경에 몰아넣을 정도로 강력한 해상군사력을 가지고 개경정부를 위협하면서 지속적인 항몽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제 지역을 비롯한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토착세력과 하층 군현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협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도 거제지역이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중요 거점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경제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식과 실천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원종대에는 몽고의 강력한 요구였던 일본의 귀부(歸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일 해상교통의 거점이었던 거제지역이 일시 주목되기도 하였다. 고려사(高麗史) 권 26, 원종 8년(1267년) 정월의 "송군비(宋君斐), 김찬(金贊)이 몽고의 사신과 더불어 거제도 송변포(松邊浦)에 이르러 풍파가 험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삼별초 항쟁군이 와해된 이후에도 거제현은 원래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 존립의 위기는 지속되어 갔다.

이 시기 이후 지속적인 왜구의 침략과 함께 여·원(麗元) 연합군의 일본동정(日本東征) 준비에 소용되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은 고려정부, 특히 삼남(三南)지역이 부담 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제현을 비롯한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군현민들은 대거 몰락하였으며, 거제지역도 더욱 피폐화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거제현이 관성(管城)에 병합됨으로써 그 독립적인 행정체계의 존립기반이 일시적으로 해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혁파되어 복구됨에 따라 그나마 독립 지방행정 군현 단위로써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고려말까지 거제본섬은 크게 황폐화되어 있었다. 고려사(高麗史)권 112, 조운흘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바다로 왜국(倭國)과 가깝고 육지로는 오랑캐 땅과 인접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경은 서해(西海)로부터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慶尙)까지 바닷길이 거의 2,000여 리가 됩니다. 바다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섬은 대청(大靑), 소청(小靑), 교동(喬桐), 강화(江華), 진도(珍島), 절영(絶影 현재 부산시 영도구), 남해(南海), 거제(巨濟) 등의 큰 섬이 20곳이나 있으며, 작은 섬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섬들은 토지가 비옥하고 어염(魚)의 자원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황폐되어 경영하지 않으니 한심한 일입니다.」라고 하여 고려말 우왕(禑王) 때까지 거제섬은 황폐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해도 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 조운흘(趙云?)은 고려의 군사적 전략과 연결시켜 거제섬의 농업 생산을 바롯한 산업생산력을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왕(禑王)이 이 방안을 수용하여 도당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이 불투명하여 거제섬의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중앙정부 통제권에서 벗어남). 그 결과 옮겨간 거제현과 그 속현의 관아 및 지역 사람들은 고려말까지 거제섬으로 복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있어서 거제지역은 남해연안의 변방지역으로 재편됨으로써 민족사에 있어서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어 왕족와 관료 및 고승의 변방유배지, 반정부의 항쟁지역, 빈번한 왜구의 침략지역, 삼별초 항쟁의 관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려의 성립과 더불어 대일교섭이 소원해짐에 따라 한·일 해상교류의 거점 교통로로서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 12세기 초기이후 무인집권기에도 이들 지역은 변방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고려후기 삼별초 항쟁군의 세력권과 왜구침략 및 여·원 연합군의 일본동정(日本東征)에 있어서 최일선에 노출됨에 따라 거제섬의 피폐화가 가속되었고, 거제관아와 그 지역민들은 인근 내륙으로 옮겨가서 더부살이를 하였으며, 일시적이나마 독립적인 지방행정 단위의 존립도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거제현민들은 민족사와 지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해 연안지역의 해상

조운로, 한·일 교섭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개경정부의 사회·경제적인 모순구조에 저항하고, 왜구나 몽고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지역사와 민족사의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배의 땅이라는 변방의 입지 조건을 오히려 중앙의 고급문화를 수용하여 자기지역 문화와 의식을 발전시키기는 계기를 삼기도 하였다. 이런 점이 바로 고려시대 거제현민들의 저변에 흐르던 역사·문화적 성격이라 할 것이다.

## 5. 봉건(封建) 조선시대 거제현(巨濟縣)

### 1) 거제현(巨濟縣)의 환도(還島)와 독립 지방행정 복구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위화도 회군과 사전(私田)개혁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였고 정몽주(鄭夢周) 등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공양왕(恭讓王)의 선양(禪讓)을 받아 조선왕조를 건국하였다. 그러나 거제현은 아직도 거제 본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거제현 및 그 속현 등도 그 독립적 존립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갔다. 거제 명진현(溟珍縣)은 진주(晋州) 임내(任內)인 영선현(永善縣)에 붙어살았는데 본조(本朝, 조선) 정종(定宗) 원년 1399년(기묘)에 강성현(江城縣)과 명진현(溟珍縣)을 합하여 진성현(珍城縣)이라 이름 하였고, 거창현은 본조 태종 1414년(갑오년)에 거제(巨濟)와 합하여 제창현(濟昌縣)으로 일컫다가 1415년(을미년)에 거창현으로 환원하여 현감을 두고 있던 실정으로, 거제현과 3속현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더욱이 명진현이 진성현(珍城縣)에 병합된 연유는 진주의 남쪽 변방인 영선현으로 옮겨온 명진현의 땅이 협소하고 백성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거제와 거창을 병합하여 제창으로 삼은 두 지역의 병합은 거제현이 거창에 오랫동안 붙어살았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인위적인 병합은 거제현과 그 속현의 독립적 행정단위로서의 존립과 거제 현민들의 독자적 자립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병합된

거제 현민들의 불만이 따랐다. 이는 거제현이 병합된 이듬해인 1415년 태종 15년 3월 계해에 처음 하교하기를 “각 고을[官]을 병합한 것을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니,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고, 이어서 거제(巨濟) 등 8개 읍(邑)을 다시 세우는 조치를 취한 데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거제 현민들은 정치 지배층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거제현의 독립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 원종 1271년 인근 내륙지방으로 옮겨간 이래 그들의 생활터전과 독립적 행정 단위를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강성현과 병합한 명진현은 태종대까지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명진현의 인구가 적고 땅이 협소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당시 거제도 등과 같은 남해 연안지역의 섬들이 왜구침략의 최일선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거제 현민들이 환도(還島)하지 못한 연유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제 현민들은 조선왕조의 통제를 무릅쓰고 왜구의 침략이 진정된 틈을 이용하여 개별 분산적으로 거제섬으로의 입도(入島)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 세종 즉위년(1418년) 8월 병신에는, 거제 섬은 왜적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근년 이래로 왜적의 침략이 좀 가라앉았음을 틈타 거제현민들이 나라의 구실을 피하여 섬으로 들어갔으며, 이미 360여 호(戶)가 거제섬으로 옮겨가서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거제현민의 거제섬에로의 입도(入島)조건은 왜적침략의 약화였으며, 그 규모는 360여 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인리(人吏)와 관노비(官奴婢)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호수의 규모는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거제현에 기록된 세종대 거제현의 호수(153호), 인구(423명), 현 수호군(縣守護軍 103명, 이상의 수치는 진성의 명진현 인구를 제외함)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본 지리지의 호수보다 더 많다.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 권7, 세종 2년(1419년) 윤정월 병신에는 경상도내의 거제(巨濟)·남해(南海)·창선(昌善) 3개 섬에 개간한 토지가 모두 1,130결이나 되었고, 이들 섬에는 부근의 각 고을 인민들이 몰래 들어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종 즉위년에 파악된 360여 호의 규모 속에는 거제현민 이외 거제 주변지역의 남해연안 군현민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2년까지 거제도에는 많은 농토가 개간되어

농업 생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종 2년(1419년)까지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연안의 섬지역이 개간될 수 있었던 연유는 태종대 이래 세종 즉위년까지 왜구 격감현상과 함께 세종원년(1419년)에 이루어진 이종무의 대마도(對馬島) 정벌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었다.

경상도 관찰사 하연(河演, 1376~1453)의 글에서도 거제섬 환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호성 첨추(僉樞, 첨지중추부사, 정3품 무관. 거제현령)를 격려하며 (거제도로) 보낸다.(賀寄李僉樞 好誠 幷小序 時李公疑行巨濟縣令)'라는 내용 中에, "대마도 정벌이 끝난, 1419년(세종2년) 세종과 태종 두 임금께서 거창군에 있던 거제현을 거제도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거창 진주에 있는 거제현민을 8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주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문종실록> 7권, 문종1년(1451년) 5월 6일 기록에 따르면, 세종 4년(1422년) 환도(還島) 직후의 거제현 치소(治所)는 수월리(水月里)로 목책을 설치하였으나 현민들의 거주와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입지조건, 그리고 군사적 지형조건 등에서 불리하였다. 그래서 세종 7년(1425년) 2월에는 거제현의 치소를 그 조건상에서 유리한 고읍(古邑, 고려시대 읍치)으로 옮겨가는 방안이 검토·의결되어,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고읍의 읍성은 세종실록(世宗實錄)권30, 7년 10월 신사에서 사월포(沙月浦)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지금의 사등(沙等)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종8년 1426년부터 사등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22년 후 세종30년 1448년 완공했다. 이후 문종 즉위년 1450년 9월에 개축을 건의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문종실록(文宗實錄) 권4, 문종 즉위년(1450) 10월 무술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정분(鄭)이 치계(馳啓)하여 사등의 사월포에 있던 거제의 읍성은 낮고 좁으나 고정부곡은 지세가 넓고 평평하며 골짜기가 깊고 은밀하며 또 우물과 샘이 있어 경작할 수 있고 주거할 수 있는 땅이 많아 유리함으로 읍성을 옮겨갈 것을 제안하여 수용되었다. 이 조치에 대하여 문종 원년 5월 계묘의 기사에서는 거제현 사람이 상언(上言)하여 이전부터 반대하였으며, 해당 관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박가대(博加大)·일기주(一岐州)의 왜인이 거제를 침략한다는

글을 접함으로써 이전문제를 재론하여 고정리의 이전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때 고정리로의 이주 반대명분은 인리(人吏)와 관노비(官奴婢)가 이미 토착하여 번성하며, 새로운 영선(營繕)에 따른 민생(民生)의 불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현실적 이유는 이주에 따른 인리(人吏)들의 재향 토착적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데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대 주도층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이주의 배경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고정부곡의 거주와 농업생산 기반에 있어서 지형적 조건과 함께 거제도 각 포(浦)의 중앙을 연결하는 요충으로써 해상교통의 거점이라는 조건, 국방상의 방어전략지라는 조건이 유리하여 영구한 터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경상도(慶尙道), 거제현(巨濟縣), 성곽(城郭)에 인용되어 있는 이보흠(李甫欽)의 기문(記文)에는 문종대에 시작된 고정의 읍성축조에 경상하도(慶尙下道)의 백성 20,000여 명을 동원하였고, 영천군사(永川郡事) 정차공(鄭次恭), 진주 판관(晋州判官) 양연(楊淵), 곤양군사(昆陽郡事) 최성로(崔性老), 청도군 사(淸道郡事) 이의(李椅), 사천 현감(泗川縣監) 장오(張俉), 진해현감(鎭海縣監) 김한진(金漢珍)에게 공역을 분담하여 감독하게 하였으며, 거제 현령 이호성(李好誠)에게 관사와 부고(府庫)를 세우도록 하였다고 한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거제현, 읍성에는 고정리(古丁里)의 읍성 석축이 문종(文宗) 즉위년 1451년 11월부터 축조가 시작되었으며, 단종 원년 1453년 9월 축성 감독으로 김순이 파견되어 성 밖의 해자를 구축했고, 고정리 읍성(고현성)으로의 이주는 1455년에 이루어졌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2, 경상도, 거제현, 성곽에는 읍성이 석축이며, 둘레가 3,038척, 높이가 13척, 성안의 샘이 셋, 못이 둘이라 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고정리의 읍성은 문종연간에 축조가 일단락되었으며, 관사와 부고(府庫), 집 40여 간, 둘레 3,000여 척, 높이 13척, 샘 3, 못 2곳과 같은 규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거제현은 국방상의 안정, 거주의 편리성, 농업 및 어업생산력의 발전기반, 해상교통의 원활성을 확보함으로써 거제지역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고정리 現 고현(古縣)이 1644년 거제면 서상리로 옮겨가기 전(前)까지

거제지역의 행정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거제현(巨濟縣)의 수군 7진영과 군사 방어시설

거제도는 일본과의 실질적 조선의 최후 방어지(防禦地)이자 적을 막기에 긴요한 요해처였다. 거제현은 남해 연안지역이 왜구침략의 최일선에 노출됨에 따라, 조선초기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수군의 창설 뿌리는 고려말기 1374년(공민왕23년) 왜구의 습격 이후 재창설된 수군에서 기원한다. 이때 연안지역에 수군을 모집하였고 공양왕 3년에는 3정1호라는 원칙을 기본골자로 시행하였으며, 조선 건국 후에는 육군과 같이 16세~60세까지 1개월 근무씩 1년 6개월 복무하게 하였다. 조선 태조 6년(1397년) 각도의 연해거점에 15개에 진을 만들고 첨절제사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케 하였으며 1398년엔, 만호 천호 백호의 수군품계를 만들었다. 태조7년(1398년) 9월 정종 즉위 교서를 통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군창설이 이루어지게 된다. 태종 때에는 수군도절제사를 두었으며 세종2년(1420년) 병마도절제사로 바꾸고 1421년에는 수군도안무처치사를 두어 수군의 군무를 맡게 되었다(수군절도사,수군첨절제사, 만호). 임진왜란부터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신설되어 이순신 장군이 초대 통제사를 맡게 된다.

거제도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중기까지는 거제현령(수령)이 수군을 함께 통솔하며 근해를 지켰다. 거제현령이 왜구와 수군전(水軍戰)을 치르다가 전사하는 기록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이후 고려말기 가라산방어소(다대포)가 송변현에 설치되었던 것은 고려말 몽고의 일본 침략과, 대마도 정벌 時에 기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거제도 수군은 고려말기 공민왕 때부터 해운 교통로인 진해만과 견내량을 통과하는 세곡선과 연해 어선을 보호하고자 벌써 견내량과 영등포(장목면)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각종 고문헌에서 이를 전하고 있다.(통영 삼천진 가배량진, 고성 소비포 사량 당포, 진해 제포 등. 당시 통영 남쪽 섬, 미륵도를 포함하여 모두 거제도 관할 지역이었고, 당시 미륵도에 삼천진과 가배량진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후 태종4년(1404년) 견내량에 거제도의 공식적인 최초의 만호(萬戶)진영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견내량진은 세종1년 1419년 이종무의 대마도 2차 정벌 후 폐지

되었다. 또한 태종11년(1411년) "가배량도만호(세종때 수군도안무처치사, 1488년 성벽축조)"가 설치되었고, 1466년 이후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바뀌어, 이후 임진왜란을 맞이했다. 세종6년(1424년) 오아포(수군도안무처치사)·영등포·옥포 등이 거제현을 관장하였고, 1430년(세종12)에 오아포에 수군 주진을 두고, 영등포(1418년 목책, 1490년 성벽 축조)와 옥포(성벽 축조 1488년)에 만호를 두었다. 세종26년 1444년 지세포만호(성벽 축조 1457년)를 두었다. 단종1년 1453년 조라포 수군만호(1490년 성벽 축조, 1664년 옥포조라 이동)를 설치하게 된다. 1470년 성종원년 거제도를 빙 둘러 여러 제진이 구축되어 해상을 방어케 하였다. 이후 조선중기 거제 7진은 '옥포, 지세포, 조라(일운면 구조라), 장목포, 영등포(장목면 구영), 율포(장목면 율천, 1450년 수군진 설치, 1530년 이전 성벽 축조), 오아포(가배량은 1603년 진영 설치)'이었다. 조선후기부터 옥포, 지세포, 조라포, 영등포 가배량에는 만호가 관리하고, 율포보에는 권관이 장목진에는 별장이 관장하였다. 1711년에 거제현이 거제도호부로 승격 되면서 거제면 죽림포에 거제부사 직할 수군진이 만들어지면서, 8진영이 되었다. 거제8진은 장목포, 영등진(1756년 둔덕 학산), 가배량, 율포(남부면), 지세포, 옥포, 조라(옥포 동편), 죽림포이다.

○ 위의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전기 거제지역의 군사 조직을 살펴보자.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1393년) 5월에는 거제 병마사(정3품, 수군절도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세종 2년(1420년) 윤 정월에는 백성들이 거제 등지의 섬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방어를 하며, 또한 부근 항구에 있는 병선으로 백성을 수호하게 하였다. 세종 3년(1421년) 2월에는 경상도 우도 수군도절제사의 건의를 수용하여 도내에 사는 만호(萬戶)나 천호(千戶)를 역임한 사람으로 배 타는데 익숙한 자와 한량(閑良)을 뽑아서 모두 거제도로 보내어 방어하게 하였다. 특히 세종 4년(1422년) 2월에는 이 이전부터 거제지역에 시위군과 배타는 군사 및 영전(營田)이 있었으며, 이 때에 이르러 영전을 개혁하여 환도(還島)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짓게 하고 그 조세를 면제하며 또 병선 66척으로 지키게 함으로써 거제현의 복구와 함께 군사방어 능력도 강화시켜 갔다. 아울러 세종 4년(1422년) 12월에는 경상도 관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어가 심히 긴요한 거제현의 현령을 문무겸전(文武兼全)한 사람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세종 7년(1425년) 2월에는 거제현의 사람과 물화가 크게 성할 때까지 거제현의 수호군(守護軍)을 종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강하고, 그 200명은 부근 각 고을의 신백정(新白丁)을 육군과 상호 교환하여 정속시키고 4번으로 나누어 부방(赴防)하도록 시행하였다.

세종 13년(1431년) 7월에는 경상도 감사가 올린 거제도 외곽인 율포의 전토(田土)는 하청 가이슬포에 사는 사람들이 경작하게 하고 옥포(玉浦)·영등포 만호(永登浦萬戶)에게 수호하도록 하였으며, 세종 26년(1444년) 8월에는 경상도 관찰사·도절제사·수군처치사 등에게 거제 등의 고을에 대한 왜적방어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세종 30년(1448년) 12월에는 거제현은 방수가 긴요함으로 백성들의 전세를 현창(縣倉)에 바로 바치게 하여 군수(軍需)의 비축으로 삼았다.

<동여도(김정호)>

이처럼 세종 대에는 대 왜구(對倭寇)정책과 관련하여 거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군사 수의 증강, 군비의 확대, 조직체계의 재편, 강화 등과 같은 형태로 군사 방어체계를 크게 강화·확립시켜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거제현의 오아포는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 수군도절제사)가, 영등포는 수군만호가, 옥포는 가배량 도만호와 견내량 만호가 각각 수어하는 체계로 편제되어 있었다. 특히 대마도 정벌과 거제현의 복구과정에서 거제현의 군사적 기능 및 현민의 보호가 재인식되어 군사력 증강은 보다 확대되어 갔다. 세조연간에는 전국의 방위체제를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재편 강화하면서 거제현의 군사체계도 변화되

어 갔다. 세조 원년(1455) 9월에는 거제진이 사천진, 세조 3년(1457년) 10월에는 창원진에 각각 속하고 있었다. 이 해에 이미 거제현의 중요한 각 포에 군사와 병선 및 성보가 갖추어져 있었는데 영등포·옥포·지세포·조라포·오아포가 그것이다. 세조 4년(1458년) 2월에는 거진(巨鎭)을 설치하였고, 세조5년(1459년) 7월에는 거제현 수군의 주진(主鎭)을 거제 가배량(오아포)에 두었고, 제포(지금의 진해 웅천)에 거진(巨鎭)을, 9개포에 제진(諸鎭)을 두었다.

● 거제부 7진영 군액. [선단구성, 수사교졸(수군인원) 嶺南鎭誌(1894년)]

| | 진명 | 지세포(만호) | 옥포(만호) | 영등(만호) | 조라포(만호) | 가배량(만호) | 율포(권관) | 장목포(별장) | 합 계 | 중림포(전선대장) |
|---|---|---|---|---|---|---|---|---|---|---|
| | 선종 | 귀선 | 귀선 | 전선 | 전선 | 귀선 | 전선 | 전선 | 귀(3),전(4) | 전선 |
| 귀(전)선 1척 | 旗牌官 | 1 기패관 | 좌동(軍官18, 鎭守11, 知印7, 使令9) / 지세포 10,7,7,10. | 좌동(軍官9, 鎭守9, 知印4, 使令6) | 좌동(軍官18, 鎭守10, 知印7, 使令10) | 좌동(軍官8, 鎭守8, 知印2, 使令6) | 좌동(軍官18, 鎭守8, 知印5, 使令6) | 좌동(軍官7, 鎭守7, 知印2, 使令4) | | 전선 2척 |
| | 都訓導 | 1 도훈도 | | | | | | | | |
| | 射夫 | 18 사부 | | | | | | | | |
| | 火砲手 | 10화포수 | | | | | | | | |
| | 砲手 | 24포수 | | | | | | | | |
| | 鈍工 | 1 타공 | | | | | 2 | 1 | | |
| | 練手 | 1 요수 | | | | | 1 | 1 | | |
| | 疾手 | 1 정수 | | | | | 1 | 1 | | |
| | 鮑櫓軍 | 120 능노군 | | 122 | 120 | 119 | 120 | 120 | 841 | |
| | 소계 | 177명 | 177 | 179 | 177 | 176 | 178 | 177 | 1,241 | |
| 병선 1척 | 船將 | 1선장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병선 2척 |
| | 射夫 | 10사부 | | | | | | | | |
| | 砲手 | 10포수 | | | | | | | | |
| | 沙工 | 1 사공 | | | | | | | | |
| | 鮑櫓軍 | 14능노군 | | 9 | 14 | 11 | 11 | 14 | 87 | |
| | 소계 | 36명 | 36 | 31 | 36 | 33 | 33 | 36 | 241 | |
| 사후선 2척 | 沙工 | 2사공 | 좌 동 | 좌 동 | 좌동 | 2 | 2 | 2 | | 사후선4척 |
| | 鮑櫓軍 | 8능노군 | | | | 9 | 7 | 8 | | |
| | 소계 | 10 | 10 | 10 | 10 | 11 | 9 | 10 | 70 | |
| 水師校卒(鎭下) | | 223 | 223 | 220 | 223 | 220 | 220 | 223 | 1,552 | |
| 別燥幾(인) | | 別將 3 | 番將 2 | | | 鎭將2 | 別將 1 | | 8 | |
| 燥幾軍(명) | | 10 | 8 | | | 4 | 13 | | 35 | |
| 防軍 방군 | | 1,200 | 좌 동 | 좌 동 | 좌동 | 좌 동 | 좌 동 | 480 | 7,680 | |
| 武學무학 | | 212 | | | | | | 84 | 1,356 | |
| 添格武學 | | 24첨격무학 | | | | | | 92 | 236 | |
| 募軍 모군 | | | | | | | | 400 | 400 | |
| 各色 軍校 | | 1,449 | 1,446 | 1,436 | 1,436 | 1,442 | 1,450 | 1,056 | 9,715 | |
| 진하(鎭下) | | 13 | 10 | | | 6 | 14 | | 43 | |
| 총계 | | 1,672 | 1,669 | 1,656 | 1,659 | 1,662 | 1,670 | 1,279 | 11,267 | |
| 거진리(距鎭里)진에서떨어져있는 망대 | | 鈴逸南山(20) 능일곶산 | 玉山(20)옥산 | | | 登山(25) 등산, 南鎭(5)남망 | 柯乙南山(40)갈곶산 | | 총5곳 | |

거제의 각 포가 세조 5년(1459년) 7월에는 제진체제(諸鎭體制)로 재편되어 갔다. 거제수군의 주진은 오아포 등지, 제진은 옥포·지세포·영등포·조라포 등지에 설치되었다. 그 규모와 이후의 연혁변화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경상도, 거제현 진보 등을 비롯한 지리지나 읍지 등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거제지역은 세조 13년(1467년) 군사 요충지로서 특수지역에 설치된 유방군(留

防軍)이라는 군사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거제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임을 재확인하게 한다. 1469년 이후 주진체제가 폐지되고 영(營)으로 바뀌면서 거제섬도 재편과정을 겪었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관방조(關防條)에는 “영등포는 현 동쪽으로 하청리과 거리는 42리이며 군병강(軍兵舡) 7척·무군병강(無軍兵舡) 6척·기강군(騎舡軍) 7백명, 옥포는 연초리와 15리 120보에 있으며 군병강 10척·기강군 1천명·무군병강 6척, 지세포는 현 남쪽 내에 있으며 관청과는 30리60보이며 군병강 12척·기강군 천60명·무군병강 5척, 조라포는 현 남쪽으로 명진리와 관문(官門) 30리50보이며 군병강 8척·기강군 6백명·무군병강 3척, 우수영은 현의 남쪽으로 오아포에 있으며 관문 35리80보이며 군병강 21척·기강군 2천1백2십명·무군강 10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성종 16년(1485) 3월에는 영마다 보루를 설치하여 군사 방어시설을 강화시켜 나갔다. 현재까지 거제지역에서 확인되거나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읍성(邑城), 관방성(關防城·營·鎭·堡), 산성(山城)은 거제지역이 왜적방어의 관문이었으며, 왜구침략에 대한 거제사람들의 피해와 방어의지를 알려 주는 역사·문화적 흔적이다. 또한 임진왜란 직후 왜군이 남해연안 지역에서 장기 주둔을 목적으로 쌓은 왜성(倭城)도 그 당시 거제지역이 군사적 해상 요충지였으며, 거제 지역민들이 왜군의 침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거제현(巨濟縣)의 토산품과 진상품

조선시대의 부세는 전세(田稅)와 신역(身役), 그리고 진공(進貢)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공물은 군현 단위로 그 지방의 산물과 토지 결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여 민호가 공납하는 토산의 현물로서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였다. 공물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물을 비롯하여 가내수공업품, 해산물, 과실류, 광산물 등 천연산물이 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제도의 토산품(물산)과 더불어 거제읍민의 고된 부세 부담이 된 진공(進貢)현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각종 사료 기록에 전하는 토산품(土産品) 물산(物産)를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현물납으로 이어진 진상(進上)과 공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거제는 예로부터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어자원의 보고(寶庫)를 지녔으므로, 일찍부터 수산물과 과실 등이 중앙 및 지방 관부에 상납되었다. 더욱이 서해의 안면도 및 변산반도 일대, 서남해의 완도와 더불어 다수의 봉산(封山)을 보유한 까닭에 산림 자원과 연관된 임산

물의 산출도 적지 않았다. 19세기 후반에 성책(成冊)을 비변사에 보고하는 도내 송전(松田)이 20 고을에 170곳이었는데, 거제 한 고을에서만 무려 45곳이었다.

거제부(巨濟府)의 주요 산물(産物)을 열거해 보면 어물류는 전복과 홍합을 비롯하여 문어, 청어, 대구어, 해삼과 전어, 조기와 농어, 낙지 등과 해조류로는 미역과 김, 가사리, 우뭇가사리 등을 들 수 있다.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이 외에도 상어와 준치, 숭어와 홍어 그리고 수달(水獺)까지도 등장하고 있었다. 과실로는 유자와 석류, 비자 등이 자생하였고 천문동과 맥문동의 한약재와 표고버섯과 갈분(葛粉)이 많이 났다. 이 외에도 무성한 수풀 속에서 弓삭木(활, 창 등을 만드는 나무)이 반출되고, 흑우(黑牛)와 사슴이 사육되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진상품 내지는 공납물로 봉건사회가 끝날 때까지 올려졌다. 그리고 19세기 중엽과 말엽의 두 시기를 대비하여 검토해 보면 상납 시기와 품목별 물량의 차이만 다소 나타날 뿐, 품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조선시대 거제도 진상품과 물산(物産)>

(가) 18세기 진공(進貢)품목 / 거제부읍지(巨濟府邑誌, 1759년) 여지도서(輿地圖書)

천문동, 맥문동, 해의(김), 생청어, 생록(말리지 않은 녹용), 단인복, 표고버섯, 녹용, 건전어(말린 전어), 백문어, 생복식해(전복 젓갈), 건복(말린 전복), 홍합, 해삼, 유자.[天門冬 麥門冬 海衣 生靑魚 生鹿 短引鰒 蕈古 鹿茸 乾箭魚 白文魚 生鰒食醢 乾鰒 紅蛤 海蔘 袖子(柚子)]

(나) 19세기 후반 거제도 진상품

① 진상품 : 전복(22貼 2串/ 8첩 7곶 5개), 마른 홍합(11斗 7두/ 9두 7도 8홉), 마른 해삼(11두/ 5두 8도), 생청어(31마리/ 25마리) 그리고 소금에 약간 절인 생복(280개/ 127개)이 주된 것이었고, 표고버섯(4斤 5兩/ 4근 6냥)과 돗자리(草席)(6立/ 5립),十冬音(1枝/〃)이 어우러졌다.

주로 순영에 삭선(朔膳)이나 물선(物膳)으로 상납하였지만, 왕대비전이나 중궁전의 탄일 물선으로 오르기도 하였다. 흑우와 생청어는 황간현과 창원부에 올려졌는

데, 후자는 특히 종묘천신(宗廟薦新)에 받들어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일성록(日省錄) 순조 5년 정월 19일. 실제로 거제 앞 바다에서 해독(海毒)이 발생하여 홍합을 채식(採食)한 석격(船格)이 치사하고, 천신(薦新) 진상물인 생복(生鰒)을 건복(乾鰒)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별회곡(別會穀)으로 바꿔 무납(貿納)한다고 하나 결국은 만호에게 부과되기 마련이었다.

이 외에도 7진보에서는 별도로 통영에 물납이 이뤄졌다. 36把半(파반) 길이의 망자(網子,그물)와 대곶(大串,대꼬챙이) 2同, 표고 버섯과 천문동, 맥문동, 백복령(白茯령), 산약(山藥) 등의 약재와 유자와 잣, 그리고 궁삭목과 산유자목, 갯동백나무 등이 그 물종이었다. 가배량진의 경우에는 전어(4마리), 문어(2마리), 조생 미역(30꼭지), 김(每戶 3홉 5작식)을 거두어 거제부에 수납(輸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더러는 부민(府民)들에게 급가(給價)하여 거두어 들였다 하더라도, 추가액수가 늘어나 온전하게 실가(實價)에 이르기는 어려웠다.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온 그들에게 끊임없는 현물납의 부과는 늘 생계의 위협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었다.

② 7진보 통영 물납 : 36把半(파반) 길이의 網子(그물)와 大串(대꼬챙이) 2同, 표고버섯과 천문동, 맥문동, 백복령(白茯령), 산약(山藥) 등의 약재와 유자와 잣, 그리고 궁삭목과 산유자목, 갯동백나무 등. 가배량진의 경우에는 전어(4마리), 문어(2마리), 조생 미역(30꼭지), 김(每戶 3홉 5작식)을 거두어 거제부에 수납(輸納) 함.

<조선시대 거제도 토산품(土産品) 각종 기록물>

(가) 조선초기 세종실록(世宗實錄)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거제현에는 거제현의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 개간 토지)이 709결이며 논이 조금 많다고 한다. 토산생산품은 벼·조·콩·메밀이며, 토공(土貢)은 대구·문어·생포·미역·우무·표고버섯·세모이다. 바닷물을 끓이는 염소(鹽所)는 4곳으로 둘은 모두 현 동쪽에 있고 하나는 현 서쪽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현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李荇)1506년 거제 상문동 유배] 1530년 작성.
【토산】 『구증』 옻[漆]·활과 창·수달(水獺), 왜닥[倭楮] 유자도(柚子島)에 심

는다.　문어・전복[鰒]・조개・홍어・청어・미역・대구[大口魚]・유자・석류・표고[香蕈]・꿀[蜂蜜]・산무애뱀[白花蛇]・지황・해삼・모래무지[鯊魚]・전어.　『신증』＋ 준치[眞魚]・조기[石首魚]・숭어[]秀魚・농어[鱸魚]・낙지[絡締]・소금・치자. [+대[竹]・녹용(鹿茸)・김[海衣]]

(다) 물산(物産) 거제부읍지(巨濟府邑誌, 1759년) 여지도서(輿地圖書)

漆(칠, 옻) 弓榤(궁삭,활 재료나무) 水獺(수달) 倭楮(왜저,산닥나무) 種柚子島(종유자도) 文魚(문어) 蝮蛤(복합) 紅魚(홍어) 靑魚(청어) 大口魚(대구어) 柚(유자) 石榴(석류) 香蕈(향심,표고버섯) 蜂蜜(봉밀,벌꿀) 白花蛇(백화사,산무애뱀) 地黃(지황) 海蔘(해삼) 沙魚(사어,모래무지,상어) 箭魚(전어) －舊增옛날에는 眞魚(진어,준치) 石首魚(석수어,조기) 秀魚(수어,숭어) 鱸魚(농어) 絡蹄(낙제,낙지) 鹽(소금) 梔子(외자,치자)

(라) <거제 토산품> 1750년대 해동지도

삭(榤 창). 수달(水獺). 왜저(倭楮 닥나무) : 종 유자도(種柚子島). 수어(秀魚 숭어). 문어(文魚). 전어(錢魚). 청어(靑魚). 홍어(洪魚). 석류(石榴). 지황(地黃). 해삼(海參). 유(柚 유자). 백화미(白花米). 석수어(石首魚 조기). 봉밀(蜂蜜 벌꿀). 곽(藿 미역). 대구어(大口魚대구). 사어(鯊魚 모래무지, 상어). 복합(鰒蛤 전복, 백합조개). 외자(梔子 치자나무). 향심(香蕈 표고버섯). 진어(眞魚준치). 노어(鱸魚 농어). 낙제(絡蹄 낙지). 염(鹽소금)

(마) 토산(土産) 거제읍지 1864년 대동지지

대, 옻, 왜저, 유자, 치자, 석류, 표고버섯, 벌꿀, 녹용, 김, 곽(미역), 해삼, 전복, 문어 등 어물 15종, 궁삭, 수달.[竹漆倭楮柚梔榴香蕈蜂蜜鹿茸海衣藿海蔘鰒 文魚等魚物十五種 弓榤水獺]

(바) 토산(土産,특산물)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1899년

흑우 궁삭(활) 유자 석류 봉밀(벌꿀) 치자 천문동 맥문동 표고버섯 갈분(칡) 문어 전복 백합조개 청어 미역 대구어 해삼 전어 석수어(조기) 노어(농어) 낙지(絡蹄) 소금 김 우뭇가사리.[黑牛 弓榤 柚石 榴 蜂蜜 梔子 天門冬 麥門冬 蕨古 葛粉 文魚

鰒蛤 靑魚 藿 大口魚 海參 錢魚 石首魚 鱸魚 絡締 塩 海衣 加士里牛毛]

그 외 삭(槊 창). 수달(水獺). 왜저(倭楮 닥나무) 종유자도(種柚子島). 수어(秀魚 숭어). 전어(錢魚). 홍어(洪魚). 지황(地黃). 백화미(白花米). 사어(鯊魚 모래무지, 상어). 진어(眞魚준치). 염(鹽소금) 등이 있었다.

(사) 19세기 거제부 주요 산물 : 전복 홍합 문어, 청어, 대구어, 해삼, 전어, 조기, 농어, 낙지, 미역, 김, 가사리, 우뭇가사리, 유자, 석류, 비자, 천문동, 맥문동 한약재, 표고버섯, 갈분(葛粉), 弓삭木이 반출되고, 흑우(黑牛), 사슴, 인삼(2錢 6分)과 天門冬(2냥), 맥문동(麥門冬)(4냥), 흑우(5마리)

● <조선시대 거제부(현) 진상품 토산품[土産品, 물산(物産)]> 기록 上.

| 품 목 | 1481년 | 1530 | 1759 | 1864 | 1899 | 비 고 |
|---|---|---|---|---|---|---|
| 옻(漆),칠 | ○ | ○ | ○ | ○ | | |
| 활과창,궁삭(弓槊) | ○ | ○ | ○ | ○ | ○ | |
| 수달(水獺) | ○ | ○ | ○ | ○ | ○ | |
| 왜닥(倭楮),왜저 | ○ | ○ | ○ | ○ | ○ | |
| 유자(柚子) | ○ | ○ | ○ | ○ | ○ | ①1481년 성종때 동국여지승람 자료. |
| 문어(文魚) | ○ | ○ | ○ | ○ | ○ | |
| 전복(鰒) | ○ | ○ | ○ | ○ | ○ | |
| 조개(蛤), 홍합, 백합 | ○ | ○ | ○ | | ○ | |
| 홍어(紅魚) | ○ | ○ | ○ | | ○ | ②1530년 중종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이행(李荇) 거제 상문동 유배, 거의 정확한 기록). |
| 청어(靑魚) | ○ | ○ | ○ | | ○ | |
| 미역(藿) | ○ | ○ | ○ | ○ | ○ | |
| 대구(大口魚) | ○ | ○ | ○ | | ○ | |
| 석류(石榴) | ○ | ○ | ○ | ○ | ○ | |
| 표고버섯(香蕈)蔈古 | ○ | ○ | ○ | ○ | ○ | |
| 벌꿀(蜂蜜) | ○ | ○ | ○ | ○ | ○ | ③1759년 여지도서에 수록된 거제부읍지(巨濟府邑誌,) |
| 산무애뱀(白花蛇) | ○ | ○ | ○ | | | |
| 지황(地黃) | ○ | ○ | ○ | | ○ | |
| 해삼(海蔘) | ○ | ○ | ○ | ○ | ○ | |
| 모래무지(鯊魚,沙魚) | ○ | ○ | ○ | | ○ | |
| 전어(箭魚) | ○ | ○ | ○ | | ○ | ④1864년 거제부읍지 |
| 준치(眞魚) | | ○ | | | ○ | |
| 조기(石首魚) | | ○ | | | ○ | |
| 숭어(秀魚) | | ○ | | | ○ | ⑤1899년 거제군읍지 |
| 농어(鱸魚) | | ○ | | | ○ | |
| 낙지(絡締) | | ○ | | | ○ | |
| 소금(鹽) | | ○ | | | ○ | |

| | | | | | | |
|---|---|---|---|---|---|---|
| 치자(梔子) | | ○ | | ○ | ○ | |
| +대(竹) | | ○ | | | | |
| +녹용(鹿茸),사슴 | | ○ | | ○ | ○ | |
| +김(海衣) | | ○ | | ○ | ○ | |
| 가사리 | | | | | ○ | |
| 우뭇가사리(加士里牛毛) | | | | | ○ | |
| 비자 | | | | | ○ | |
| 천문동(天門冬) | | | | | ○ | |
| 맥문동(麥門冬) | | | | | ○ | |
| 갈분(葛粉) | | | | | ○ | |
| 흑우(黑牛) | | | | | ○ | |
| 인삼 | | | | | ○ | |
| 백화미(白花米) | | | | | ○ | |
| 돗자리(草席) | | | | | ○ | |
| 열두름(十冬音) | 물고기나 나물을 짚으로 두 줄로 엮어 진상하는 것. | | | | ○ | |
| 위와는 다른 별도의 7진보 물납 중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br>網子(그물), 大串(대꼬챙이), 표고 버섯, 천문동, 맥문동, 백복령(白茯苓), 山藥 등의 약재, 유자, 잣, 궁삭목, 산유자목, 갯동백나무 | | | | | | |

4) 거제(巨濟) 목장역사 및 구점(驅點)

거제도 목장은 1012년 고려 현종 3년, 칠천도에 목장을 처음 설치한 후 조선말기 거제목장이 폐쇄될 때까지 약 900년간 목장을 운영하였으니 거제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조선 말기까지, 거제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도가 큰 순서는, 첫째 바다를 통한 선박건조와 거제 7진영 수군 및 해안방위와 전쟁의 1300년 역사. 둘째 거제도 유배자(유배문학 포함)관련 800년 역사. 셋째 거제도 목장(고려~조선말기 약900년)의 역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조선초기에는 거제 7목장을 두었으나 단종 즉위년 1452년부터 거제부 목장 9개소 설치, 4개포구 영전을 설치하였다. 거제 7목장은 "산달도, 구천동, 탑포, 구영등, 장목포, 구조라포, 지세포"이며, 이후 1678년 숙종 4년 기록 중 거제목장 9개소는 "칠천도, 가조도, 산달도, 구천동, 탑포, 구영등, 장목포, 구조라포, 지세포" 목장이다(대동여지도, 신동국여지승람). 조선말기에 거제7목장(牛馬場)이 통폐합 되었다.

특히 조선전기 거제시 상문동 삼거리, 동부면 구천동 마을은 당시 거제읍치였던 고현성과 가까웠던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구천동 목장의 '구천점마소(九川點馬所)'가 있었다. 이에 거제도목장의 총감독관이었던 경상우평사(慶尙右評事, 정6품 외반직)

이 점마소(點馬所)에 거주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당시에 말의 말굽을 보호하던 '편자', 안장의 '등자(鐙子)' 등을 만들던 대장간도 보유하고 있었다. 1500년대 기록에 따르면, 거제 말(馬)은 갈기가 검은색이고 몸통은 자흑(紫黑)색의 털을 가진 자류말(紫騮馬)과 빛깔이 검은 가라말(加羅馬)이 주종을 이루었고, 가끔은 흰점이 있는 말도 있었다한다. 해마다 서울로 수십 마리씩 보냈고 목장 운영을 위해 인근지역에 말을 팔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는 거제도 전체가 거대한 목장지였음을 말해주지만, 거제민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일반 거제민의 가장 큰 고초는 3년마다 실시되는 목장의 구점(驅點, 국마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감사)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지만, 구점의 역(役)에는 백성들이 몇 백 몇 천의 인원이 동원되어 농번기나 흉년에는 그 고역이 상당했다. 거제도에 분산되어 있는 목장 관리와 목자들의 경비는 고스란히 거제민의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초기에는 각 목장을 7진영에다 분담하여 그 역할을 나누기도 했으며 부역(역사)하는 날수가 최소 10일 이상이나 되었다. 당시 가라산 목장의 구점 때에는 옥포, 지세포, 고현에서 각기 수백 명의 장년들이 동원되었다.

(가) 거제7목장 구점(驅點)금지 1645년. <조선왕조실록>

다음은 거제 7목장은 구점(驅點)하지 말 것 등을 청하는 사복시(司僕寺)의 계(啓)이다. 구점은 목장에서 기르는 국마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감사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장 감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인조 23년(1645) 8월 10일.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목장(牧場)에서 식년 [式年 : 자(子)·오(午)·묘(卯)·유(酉)년] 마다 말을 점열하는 일은 마정(馬政)에서 큰일이니 참으로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을 휘몰아다 숫자를 점고 하는 것은 실로 큰일이어서 휘모는데 들어가는 군사가 백 천 명일뿐만 아니라 본관(本官)이 홀로 담당하지 못해 반드시 전결(田結)의 다소에 따라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의 마장(馬場)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정(分定)하는 일이 산골이나 바닷가 외딴 고을을 물론하고 한 도 안에 두루 미쳐, 원근에서 양식을 싸들고 왕래하는 이외에 머물러 역사하는 일수가 적어도 10일

이나 보름이 되고 많으면 수십 일이 더 되며, 심지어 목장에 목책을 두르고 크고 작은 새끼줄을 치며 풀을 베어 쌓는 갖가지 일로 본관의 온 경내 백성이 밤낮으로 오래 종사하여 쉬지 못합니다. 말을 점열하면서 사복시(司僕寺)의 원역(員役)과 차원(差員)이 거느린 사람과 목장에 들인 후 감목관(監牧官) 일행의 여러 날 동안의 주전(廚傳)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목장을 설치한 곳도 아주 외딴 언덕이거나 혹은 산골짜기나 바닷가여서 모두 인가와 아주 떨어진 곳이므로 각 행차의 상하가 오래 머물 장소에는 반드시 온돌(溫堗)이 있는 임시가옥(假家)을 지어야 하는 등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목자(牧子)들의 살과 뼈를 깎아 별도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다 아뢸 수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폐단이 있음은 알았으나 막중한 마정(馬政)의 일을 때로 점열하지 않으면 성장한 말을 헛되이 버리고 번식되어도 흩어지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 점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큰 흉년을 당해서 백성들의 시체가 골짜기를 메우게 되어 비록 마음을 오로지 써도 제대로 구휼할 겨를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말을 휘모는 일은 나뭇잎이 진 후에 포구(浦口)를 출입하기 때문에 얼어붙는 진흙에 발이 빠져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 반드시 상하게 되므로 더욱 불쌍합니다. 본시(本寺 : 사복시를 말함)의 뜻 역시 이와 같으나 자신이 유사(有司)가 되어 해마다 으레 행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감히 마음대로 정지하기를 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들이 모여 헤아려 보았는데 이와 같이 기근이 든 때에는 마땅히 「정(靜)의 길(吉)」을 준용하여 성인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가축을 천히 여긴다.」는 뜻을 본받기를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금년의 점마는 임시로 정지하기를 특별히 분부하시어 굶주린 백성들의 약간의 폐해나마 없애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종2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비변사(備邊司)가 왕에게 아뢴 내용으로, 큰 흉년이 들었으니 3년마다 실시되는 목장 감사를 잠시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속사정을 살펴보면 당시 목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비변사는 조정에서 목장들의 목마실태를 현장에서 감사하는 점마(點馬)가 「목자(牧子)들의 살과 뼈를 깎아 별도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다 아뢸 수 없을 정도」로 민폐가 심한 일이라고 왕에게 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겨울에 시행되는 이 일로 목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고하고 있다. 「말을 휘모는 일은 나뭇잎이 진 후에 포구(浦口)를 출입하기 때문에 얼어붙는

진흙에 발이 빠져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 반드시 상하게 되므로 더욱 불쌍합니다.」 점마는 목자로서 당연히 치러야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동안 그 목자들이 감독관들의 체재(滯在)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다는 것이다. 방목을 하므로 무성한 풀과 나뭇잎이 모두 진 후인 한겨울에야 말들을 한 곳에 모아 점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일 또한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모진 일이라고 고하고 있다. 그 폐해가 얼마나 컸으면 관리인 비변사조차도 '목자들의 뼈와 살을 깎아'라고 표현했겠는가.

(나) 거제도 목장 역사 기록물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거제현의 목장'편에는 구천동(九千洞, 둘레 119리 250보, 말 1,115필), 산달도(山達島, 둘레 15리 7보 2척, 소 89두), 칠천도(漆川島, 둘레 51리 60보, 말 176필), 한산도(閑山島, 둘레 54리 100보, 말 173필), 용초도(龍草島, 둘레 32리, 말 58필), 영등곶(永登串, 둘레 50리 170보, 말 67필) 등이 있으며, 염분(鹽盆)에는 사목리(沙木里, 사등), 오양포(烏壤浦), 산달포(山達浦), 한다포(閑多浦: 명진), 명진포(溟珍浦), 산촌포(山村浦), 오비포(吾非浦: 연초), 가이포(加耳浦), 하청포(河淸浦), 사외포(絲外浦:하청), 황포(黃浦)가 있다고 적고 있다.

<여지도서 경상도 거제> 칠천도 가조도 목장

① 칠천도목장 : 거제읍치에서 동북 60리, 섬 둘레 45리, 바다에 있고 흑우 49척, 매년 5척식 황간현으로 보내며, 분양말 2필을 매년 7월에 받아 오고, 이듬해 3월 본사 상부로 보낸다. [漆川島牧場 在府東北六十里周四十五里海中黑牛四十九隻每年五隻式牽送黃澗縣分養馬二匹每年七月受來翌年三月上送本寺] / 칠천도 : 거제 읍치에서 동북 50리, 바다에 있고 섬 둘레가 51리, 목장이 있다. [漆川島 在府東北五十里海中周五十一里有牧場]

특히 칠천도 목장은 거제읍치에서 동북 60리, 섬 둘레 45리, 바다에 있고 흑우 49척, 매년 5척식 황간현으로 보내며, 분양말 2필을 매년 7월에 받아 오고, 이듬해 3월 본사 상부로 보낸다. 1663년 5백 20여 두(頭)였고, 1745-1765년에는 칠천도(제향흑우소방목장)와 가조도(제마소방목장)에 목장을 설치하였고 칠천도에 제형흑우 49마리, 가조도에 목마 77마리 방목했으며, 목자군이 칠천도에 111명, 가조도에 93명이 있었다.

② 거제가조도 : 암말 수말 64필내 매년 봉진말 2필, 10월6일에 홍선목장에서 말을 끌어오며 길러서 다음해 4월 일 원래 관청 상부로 보낸다. 가조도는 말을상곶(고성현) 남쪽이며 백성의 사유지가 있다. [巨濟加助島(거제가조도) 雌雄馬六十四匹內每年封進馬二匹十月初六日自興善牧牽來喂養來年四月日上送本寺 加助島(가조도) 在末乙上串南有民田]. 가조도는 말과 소 특히 흑우(黑牛)를 길렀으며 감독관이 파견 관리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선주인(여객주인)은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전답에서 수세를 받았다.

(다) 조선전기 거제도 목장의 운영 상황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27년 1445년 “거제현(巨濟縣)의 명진포(溟珍浦)에는 목장을 쌓아 아천(鵝川) 성황당(城隍堂)을 거쳐 가라산(加羅山)에 이르면 3천 필은 놓을 수 있습니다.”하여 탑보와 가라산에 목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음해 세종28년 1446년 경상도 거제(巨濟) 가라산(加羅山) 목장 제1소는 거제 현사(巨濟縣事)로, 제2소는 지세포만호(知細浦萬戶)로, 제3소는 옥포만호(玉浦萬戶)로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조12년 1466년 2월21일에는 병조에서 각도(各島)에 국마를 방목케 할 것을 건의하는데, "거제(巨濟)의 조음도(助音島=가조음도=가조도)는 80여 필 방목하라. 청컨대 자원에 따라 국마(國馬) 암수를 주어 방목하게 하고, 각기 수호하여 3년 뒤에 암말 10필마다 어린 숫말[雄馬] 한 필을 세공(歲貢) 으로 바쳐서 국용(國用)을 삼게 할 것이며, 이 밖의 작은 여러 섬에 스스로 점령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소서.”하여 시행하였다. 일운면 구조라진은 거제도 7목장의 수세 상납을 관장(임진왜란 전까지)하였고 이후에는 진주의 창선도 목장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산달도 목장은 조선 세종 때부터 목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조선후기에는 통영 둔전도 있어 한산도 통제사의 소속 수군들의 관리 유지에 이를 사용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16년(1485년)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목장(牧場)은 많으나, 물과 풀이 모자라서 말을 기르기에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신이 지나온 거제현 구천장(九千場, 구천동)·영등장(永登場, 구영등)으로 말하면 말은 많이 번식하였으나, 우장(牛場)에서 기르는 소는 들짐승과 같아서 밭을 갈 수 없고 희생(犧牲)에도 쓸 수 없으므로, 실로 쓸데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장 중에서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은 말을 놓아기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목장을 폐지하여 목

자군(牧子軍)을 다른 역(役)에 차정하면, 국가에 무익하지 않겠습니다.”하였다.

5) 거제현과 3속현의 성씨(姓氏) 일람(一覽)

나말여초 이래 거제지역에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유력한 씨족, 또는 거제를 본관으로 하면서, 향리들이 모여 고을의 사무를 처리하던 읍사(邑司)를 구성하였던 거제현의 토성(土姓)은 주로 고려시대 거제지역의 인근 군현의 토성에서 이속되어온 내성(來姓)과, 여말선초 이래로 거제현의 향리가 부족하여 이를 보충내지 열읍간(列邑間) 조정한 결과 옮겨와서 형성된 속성(續姓), 그리고 거제지역 촌락지배의 성단(姓團, 씨족 집단)으로서 거제현의 성립 시에 참가한 읍내(邑內)의 인리성(人吏姓, 아전)과 함께 토성이 된 백성성(百姓姓), 토성이 확정된 후에도 거제현의 관내(管內)에서 독자적인 구역을 보유한 채 임내(任內)와 병열해 있던 촌락의 성단인 촌성(村姓), 그리고 거제현의 세 속현인 아주현, 송변현, 명진현과 그 하부단위인 향(鄕)·부곡(部曲)의 토착 지배적인 성씨집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도서명(거제현 성씨열람) | 주읍·임내의 읍명 또는 성격 | 거제현 토성(土姓) 촌성(村姓) | 내(來)·속성(續姓)지명 |
|---|---|---|---|
| 경상도지리지 | 거제현 | 鄭, 潘, 朴, 尹, 曹, 孫(6)<br>村姓(朴, 白) | 羅 |
| | 아주현 | 田, 文, 葛, 曹, 촌성(曹) | |
| | 송변현 | 朴, 孫 | |
| | 명진현 | | |
| | 하청부곡 | 河, 曹 | |
| | 죽토부곡 | 曹 | |
| | 말근곡 | 朴 | |
| | 연정장 | 曹, 申 | |
| | 덕해향 | | |
| | 고정부곡 | | |
| 세종실록지리지 | 거제현 | 鄭, 潘, 朴, 尹, 촌성(朴, 白),<br>백성(孫, 曹) | 來姓(羅), 續姓(辛,영산),<br>李(고성) |
| | 아주현 | 申, 文, 葛, 曹 | |
| | 송변현 | 朴, 孫 | |
| | 명진현 | 任, 曹, 韓, 許, 河 | 續姓(申, 아주) |
| | 하청부곡 | 金, 宋 | |
| | 말근곡 | 曹 | |
| | 연정장 | 曹, 申 | |
| | 덕해향 | 朴 | |

| | | | |
|---|---|---|---|
| | 고정부곡 | 曹 | |

위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거제현의 백성성으로 분류된 손(孫)·조(曹)의 성씨집단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토성으로 분류되어 있어 거제현의 경우는 토성과 백성성이 동일한 이족(吏族) 성씨집단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지리지의 토성에는 정(鄭)·반(潘)으로 기재된 순서가 반·정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세종연간에서 성종 연간에 이르면서 거제현에 있어서 토착 성씨집단의 세력판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종연간에 우세하였던 정씨집단이 성종 연간에는 반씨 집단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표>에 기술된 이들 성씨집단은 내성(來姓, 다른 고장에서 들어온 성씨)과 속성(續姓, 지역의 유력 성씨)을 제외하면 나말여초 이래로 조선전기까지 거제지역의 토착세력이며, 내성과 속성은 고려시대와 여말선초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향리의 역할을 한 세력집단이다. 이들 성씨집단 가운데 고려말 이래로 중앙의 사족(士族)으로 성장한 경우는 반씨(潘氏)와 아주 신씨(申氏)가 있다. 반씨는 고려말 폐행(嬖幸)으로 출세한 거제사람 반복해(潘福海)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 반익순(潘益淳)은 우시중(右侍中), 그의 조부인 반부(潘阜)는 고려의 사절로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일본에 갔으며, 문형(文衡)을 주관하여 좋은 인재를 등용했다. 거제반씨 가문이 대일 외교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은 거제지역이 대일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일본의 사정에 밝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제로(潘悌老)는 조선 태종 때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은 감찰(監察)까지 되었고 이 가문은 안동지방에 이주하여 재지 사족(在地士族)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권지 호장(權知戶長) 신영미(申英美)를 시조로 하는 아주신씨(鵝洲申氏)는 거제에서 거창으로 나가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5대에 상주(尙州)로 이주하였고, 6대 때에 다시 의성지방으로 옮겨 갔으며, 이곳에서 족세(族勢)가 번성하여 조선후기에는 사족(士族)과 이족(吏族)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고려말 왜구의 침략으로 거제를 비롯한 연안 도서지역의 토성집단은 본관지를 떠나 다른 군현으로 전전함에 따라 본관

지에서의 자기 성장의 기회를 놓쳤지만 거제 반(潘)씨와 아주 신(申)씨는 후일 영남사림파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배출하는 가문으로 성장했다.

조선초기 거제현은 최전선 변방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양반 계급보다 양인(농·어민)이 99.9%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거제현은 지주나 자작농보다 소작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변방 고을이었다. 또한 거제현민들은 세금 수탈, 사등성·고현성 등과 관방성곽 석축에 동원되는 부역과, 거제 7진에 부여되는 병역의 의무로써 수자리 살던 수군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일본과의 외교적 부대경비까지 부담해야만 했던 양민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 15세기 조선통신사 거제도에서 출발하다.

거제도는 고대 한국•중국•일본의 해상교통로의 요충지(要衝地)로써 다양한 문화가 용광로처럼 융해되어 넘쳐나는 곳이었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본과의 무역은 기원전부터 이어온, 거제도를 경유한 해상로(海上路)를 이용했는데, 전라남도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경남의 마산(합포), 웅천(진해), 김해, 부산포 등에서 출발해 거제도의 다대포・지세포・아주동(옥포) 등지에서 배를 정박한 후에 해상의 일기를 살핀 후, 쓰시마 난류(쿠로시오 지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에 이르는 바닷길이었다. 여말선초 공식적으로 20여 차례나 이루어진 일본 외교사절단(外交使節團) 중에 두세 차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거제도를 경유하여 대마도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의 무역, 김해 가야국의 일본 항해길, 몽고의 일본정벌, 여말선초(麗末鮮初) 3차례 대마도 정벌 모두, 거제도 해상을 경유해서 대마도로 향하였다. 고려말기부터는 가끔씩 부산포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연중 동해로 흐르는 대한해협의 쓰시마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마도 도착이 어려워, 거제도의 아주현이나 지세포까지 해상 연안을 따라와서 일기를 살핀 후에 대마도로 향했다. 그래서 조선초기 통신사(사절단)의 대마도 항해 길의 출발지(出發地)나 기착지(寄着地)로 거제도가 이용되었다. 또한 15세기 거제도는 섬을 빙 둘러 수군7진영이 구축되고 계해조약(癸亥條約)의 체결로 대마도 왜선들의 문인(文引)을 확인하고 어세(漁稅)

를 받기에 이른다.

대마도(對馬島)로 가던 일본사절단이, 대마도 항해 길의 출발지(出發地)나 기착지(寄着地)로써 거제시 지세포(知世浦) 또는 구조라, 다대포 항구를 이용한 시점은 고려말기부터였으나, 조선통신사가 본격적으로 출발지나 경유지로 이용한 시기는 15세기였고 항구는 지세포였다. 당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조선)통신사(通信使)', 일본이 조선에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 칭했다. 16세기 초 삼포왜란 이후(以後)부터 일본사절단은 동래현 부산포를 이용해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는데 이는 선박의 기능과 축척된 항해술의 발전이 한몫을 했으며 또한 육지에서 일본으로 가는 가장 빠른 여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가) 여말선초(麗末鮮初) 조선통신사(회례사) 파견

'외교통신(外交通信)'은 두 나라가 서로 신의(信義)를 통하여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절의 명칭은 보빙사(報聘使), 회례사(回禮使), 회례관(回禮官), 통신관(通信官), 경차관(敬差官) 등 다양하였다.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에 통신사라는 명칭이 처음 쓰인 것은 1413년(태종 13)에 박분(朴賁)을 정사로 한 사절단이었으나 이 사행(使行 사신행차)은 도중에 정사가 병이 나서 중지되었고, 그 뒤 1429년(세종 11) 박서생(朴瑞生)을 정사로 한 사절단이 일본 교토(京都) 쇼군에게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하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 최초의 통신사(日本通信使)라고 할 수 있다. 기록上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으로 가는 일행을 '통신사'라는 호칭을 처음 쓴 것은 고려시대 1375년, 무로마치(室町) 막부장군에게 왜구 금지를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할 때였는데 그때는 명칭만 통신사였을 뿐, 그 조건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

고려 말기의 여일(麗日) 관계는 여원연합군의 정벌과 왜구의 침구(侵寇 침략과 노략질)로 인해 지극히 위태로웠다. 당시 1292년(충렬왕18) 몽골에 의해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태복윤(太僕尹) 김유성(金有成), 원나라의 조양필(趙良弼)이 선유사(宣諭使)로, 곽린(郭麟)은 서장관(書狀官, 문서의 기록을 담당)으로 일본에 갔다. 이때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집권하던 시기로서 동정(東征)한 데 원한을 품고 구류되어 있다가 모두 일본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김룡(金龍)과

김일(金逸)을 금적사(禁賊使)로 보냈는데, 일본 조정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일본 막부와 고려 정부의 협조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우왕(禑王) 원년에는 나흥유(羅興儒)를 파견하였고, 1377년(우왕3)에는 안길상(安吉祥)을 보내었으며 같은 해에 정몽주(鄭夢周)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길상은 병사하였고, 나흥유와 정몽주는 구금되었다가, 1378년 7월에 정몽주(鄭夢周)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있던 윤명, 안우세 등 수백 인을 데리고 귀국하니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여일관계에 있어서의 사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이자용(李子庸)과 한국주(韓國柱)를, 5년에는 윤사충(尹思忠)을 보내어 보빙(報聘 답례 방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의 일본통신사들은 때로 평화교린의 상황에서 사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목숨을 담보로 하였다.

○ 조선전기 통신사 일행은 일본과 대마도 호위선단을 제외 한, 상사(上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 수행원, 격군을 포함 100 여명에 2~4척의 선단으로 꾸렸는데 조선후기에는 400 여명에 6척의 선단이나 되었다. 실제로 일본으로 가는 사신단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는 바닷길에 난파의 전례가 자주 발생하는 대마도까지, 예상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 때문이었다. 또한 호위를 맡고 있는 대마도주 왜인들과 막부장군들의 수하들이 사신을 응접함에 있어서 언제 돌변할지 몰라 매우 염려되었으며 특히 왜국의 음식과 풍토병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다. 조선중기까지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돌아오는 길에 도착한 우리나라 남해안 항구는, 당시 쓰시마 난류와 바람의 방향 등이 주(主)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동해안 여러 지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거제도, 웅천(제포), 가덕도, 다대포, 부산포, 울산 등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자주 전한다.

○ 조선 건국 후에는 1394년(태조 3) 5월28일 일본회례사(日本回禮使) 김거원(金巨原)이 중(僧) 범명(梵明)과 더불어 사로잡혀 갔던 본국인(本國人) 5백 69명을 거느리고 왔고, 1394년(태조 3) 10월11일 최용소(崔龍蘇)가 일본회례사(回禮使)로 일본 구주(九州)에 파견되어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이미카와(令州了俊)에게 왜구를 토벌하여 양국의 우호를 도모하자는 국서를 전하고, 이마카와가 차견(差遣)한

승려 종구(宗俱)와 함께, 1395년(태조 4) 7월10일 피로인 570여 명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1408년(태종 8) 3월 14일 일본 통신관(日本通信官) 부사직 박화(朴和)가 본국(本國)에서 잡혀간 사람 남녀 백여 인을 추쇄(推刷)해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다. 1410년(태종 10) 4월 14일 사직(司直) 박화(朴和)가 일본(日本)에서 돌아왔는데, 지좌전(志佐殿) 원추고(源秋高)가 형부 대랑(刑部大郎)을 보내어 호송(護送)하고, 예물(禮物)을 바쳤다. 1409년(기축년) 2월에 박화를 지좌전에 사신으로 보냈으니, 붙잡혀 간 남녀(男女)를 구(求)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1413년(태종 13) 12월1일 통신관(通信官) 검교(檢校) 공조 참의 박분(朴賁)을 일본에 보내기 위해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명령하여 호피(虎皮)·표피(豹皮) 10장과 잣[松子] 10석을 주어 보내게 하였다. 다음해 1414년 2월1일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 박분(朴賁)이 경상도 지경에 이르렀으나 통신행렬을 중지 시켜 되돌아오게 했다.

1419년 대마도 정벌 후 일본통신사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 2년(1420년) 윤1월 15일 일본에서 사절을 보낸데 대한 답례로 1420년(세종 2) 10월8일 일본국회례사(日本國回禮使) 통사(通事) 윤인보(尹仁甫)를 임명, 10월25일 일본회례사(日本回禮使) 인녕부소윤(仁寧府少尹) 송희경(宋希璟)을 답례로 보내게 된다. 이때에는 부산을 출발하여 돌아올 때는 제포(웅천)에 도착하여 김해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1422년(세종 4) 12월 20일, 일본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과 부사(副使) 이예(李藝) 등이 길을 떠나니, 각각 옷 한 벌씩과 모관(毛冠)·갓[笠]·신[靴]과 약품을 내리고, 서장관(書狀官)인 봉례랑(奉禮郎) 오경지(吳敬之)와 통사(通事) 윤인보(尹仁甫) 등에게 각각 모의관(毛衣冠)·갓·신을 내렸다. 1423년(세종 5) 10월13일 일본국회례사(日本國回禮使) 서장관(書狀官) 봉례랑 오경지(吳敬之) 등이 돌아왔다.

1424년(세종 6) 2월 7일 일본 회례사(回禮使)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박안신(朴安臣)과 부사(副使) 대호군(大護軍) 이예(李藝) 등이 배사(拜辭)하였다. 10월 7일 일본 회례사(回禮使) 박안신(朴安臣)이 거느리고 간 선군(船軍) 중 사망한 16명의 초혼제도 또한 지내게 했다. 1428년(세종 10) 11월26일에는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박서생(朴瑞生)이 임명되었고 12월7일 일본통신사 대사성(大司成) 박서생(朴瑞生), 부사(副使) 대호군(大護軍) 이예(李藝), 서장관

전 부교리(副校理) 김극유(金克柔)가 일본의 대내전과 소이전에 물건을 보내게 하였는데, 1429년(세종 11) 12월 3일 통신사 박서생(朴瑞生)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일본 국왕 원의교(源義敎)의 답서(答書)를 바쳤다. 일본국(日本國) 통신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고득종(高得宗)과 부사(副使) 대호군(大護軍) 윤인보(尹仁甫) 등이 1439년(기미년) 8월에 선편(船便)으로 출발하여 1440년(세종 22) 경신년 5월에 돌아왔다. 특히 이예(李藝)는 사신으로 다녀온 총 40여 차례 대부분을, 거제도를 경유하여 대마도와 큐슈 등지를 다녀왔다. 1419년 이종무 대마도정벌 時 통역관 및 보좌관으로 다녀온 후부터 거제도 지세포를 출발지로 이용하니 이후부터 통신사 일행들은 자연스레 거제도를 경유하게 되었다. 1442년(세종 24)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게 되어 글 잘하는 신하를 서장관으로 삼아야 했는데, 신숙주(申叔舟)가 뽑혔다. 일본에 이르자, 그의 재주를 듣고 시를 써 달라는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즉석에서 붓을 들고 시를 줄줄 써 주어 모두가 감탄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통신사 일행과 함께 쓰시마(對馬島)에 들러 무역 협정인 계해조약(癸亥條約)을 맺었다. 1443년(세종 25) 계해년에, 일본국 통신사 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 부사 대호군 윤인보(尹仁甫), 종사관(從事官) 훈련원 주부(訓鍊院注簿) 신숙주(申叔舟)가 동년(同年) 2월에 선편으로 출발하여 동년 10월에 돌아왔다고 되어있다. 조위(曺偉)의 서형(庶兄) 조신(曺伸)은 역관으로 동행하였고 이 후 2차례 더 일본을 다녀왔다.

1459년(세조 5) 8월23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을 일본국(日本國)의 통신사(通信使)로 삼고, 행호군(行護軍) 이종실(李從實)을 부사(副使)로 삼고, 선군(船軍) 한을(韓乙), 종부시 주부(宗簿寺注簿) 이근(李覲)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예물(禮物)을 가지고 수미(秀彌)와 더불어 일본국(日本國)에 함께 가도록 하였다. 10월 8일 새벽에 1백여 인이 세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일본 국왕(日本國王) 사신(使臣)의 배 2척과 대마도(對馬島) 왜선(倭船) 2척과 함께 거제도 지세포에서 출발하였다. 그 뒤 일본에서 풍랑을 만나 폐몰하였다. 1475년(성종 6) 을미년에는 일본국 통신사가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배맹후(裵孟厚)라고 되어 있고 1477년(성종 8)에는 일본국 통신사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 배맹후와 부사 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채수(蔡壽)는 차출되어 행장(行裝)을 갖추었으나 모두 보내지 말라는 전교를 받았다.

1476년(성종 7) 7월 26일 대마도 선위사(對馬島宣慰使) 김자정(金自貞)이 중추(倭中樞) 평무속(平茂續)·첨지(僉知) 피고여문(皮古汝文)·호군(護軍) 원무기(源茂崎), 특송(特送) 조국차(助國次)와 지세포(知世浦)를 출발하여 대마도의 서북쪽에 있는 사수나포(沙愁那浦)에 도착했다. 돌아올 때는 부산포를 거쳐 왔다. 1479년(성종 10) 기해년에는 일본국 통신사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이형원(李亨元), 부사 대호군 이계동(李季仝), 종사관 김흔(金訢), 조신(曺伸) 등이 차출되어 길을 떠났으나 정사(正使) 이형원이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병에 걸려 돌아오다가 지세포(知世浦)에서 죽자 일행을 모두 되돌아오게 하였다. 1487년(성종 18) 3월 26일 대마도(對馬島) 선위사(宣慰使) 정성근(鄭誠謹)이 사조(辭朝)하니, 명하여 대접하게 하였다. 6월 10일 대마도 선위사(對馬島宣慰使) 정성근(鄭誠謹)이 와서 복명(復命)하자,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정성근이 아뢰기를, "신(臣)이 5월 초2일 진시(辰時 오전7~9시)에 배를 출발하였는데, 그날 바람이 순조롭기 때문에 포시(晡時 오후 4시경)에 대마도(對馬島) 땅에 이르렀습니다."했다.

○ 조선초기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은 서울(한양)에서 출발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약 7개월~11개월가량 걸렸다. 사신의 행차 길에는 많은 수의 수행원과 수많은 화물이 동반되었고 바다의 뱃길도 순탄치 않아 항구에서 대기하는 날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 한일관계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왜구의 노략질 문제였고, 조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마도주나 막부장군에게 통신사를 파견했다. 따라서 통신사 파견의 표면적 이유는 왜구 금압의 요청과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장군습직 축하 등 주로 정치·외교적인 목적에서였다.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파견되는 일본국왕사의 주(主)임무는 동(銅)을 가져와 대신 생필품인 쌀·콩·목면을 구해가는 경제적인 목적이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선종(禪宗)이 크게 유행하자 조선의 대장경과 범종을 가져가는 문화적 목적이기도 했다.

(나) 조·일 무역에 대한 계해조약(癸亥條約) 체결

고려 말부터 왜구가 우리나라 연안을 약탈하는 등 침입을 일삼자 1419년 그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뒤 조선은 통교를 중단하였다. 이에 왜구들은 식량과 생활필수

품이 곤궁해질 수밖에 없었고, 대마도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왜구의 금압을 서약하면서 통교를 간청하였다. 1426년 조선은 그들의 간청도 있고, 또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무역을 허락하는 한편, 삼포와 서울에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해서만 왜인들의 숙박과 무역을 허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주에게 입국증명서(圖書•書契•行狀•文引)를 만들어주어 입국하는 왜인은 이를 소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송선(使送船)과 무역선(세견선)도 그 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1438년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에 대하여 25척씩 나누어 삼포에 도착하게 하는 균박법(均泊法)과 윤차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삼포윤박법(三浦輪泊法)을 실시하였다. 입국 왜인의 수는 제한하여 그 크기에 따라 대선 40인, 중선 30인, 소선은 20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증명서 없이 왕래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이렇게 조금씩 교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 나갔는데, 1443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된 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과 이예(李藝) 신숙주(申叔舟) 등의 사절단이 귀환길에 대마도주 소사다모리(종정성宗貞盛)와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대한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였다. 내용은 세견선은 50척으로 할 것, 삼포에 머무르는 사람의 체류기간은 20일로 하며 상경자(上京者)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한해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할 것, 좌선인(坐船人)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으로 한할 것, 고초도(孤草島)에서 어획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文引)을 받아 어세(漁稅)를 낼 것 등이었다. 왜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후부터 본국으로 귀환시까지 비용은 조선측이 부담했는데, 그 접대비용과 세역미두가 너무 많아 재정긴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정책은 앞서 마련된 법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예외취급이 너무 빈발해서, 왜인들은 이를 위반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이후 삼포왜란(三浦倭亂)의 원인이 되었다.

신숙주(申叔舟)의 조어금약(釣魚禁約) <해동제국기종(海東諸國記終)>에 의하면, '대마도 사람으로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도주(島主)의 도서(圖書)와 문인(文引) 3통을 받아서 지세포(知世浦 거제도)에 도착하여 문인을 바치면, 만호(萬戶)가 문인을 다시 만들어 준다. 고초도(孤草島)의 정해진 곳 외에는 아무데나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며, 고기잡이를 마치면 지세포(知世浦)에 돌아와서, 만호에게 문인을 돌리고 세어(稅魚)를 바친다. 만호는 도주의 문인에 회비(回批)하여 인(印)을 찍어 돌려줌

으로써 서로 증거로 삼는다. 만약 문인이 없는 자이거나, 풍랑을 감내하지 못한다 핑계하고 몰래 무기(武器)를 가지고 변방 섬에 횡행하는 자는 적(賊)으로서 논죄(論罪)한다'하였다.

계해약조로 인하여 대마도인들이 거제시 지세포에 어세를 납부하고 남해안의 평화로운 조업은 실제로 약50년 간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1467년 이후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각 지역 군웅들의 할거와 쟁투가 뚜렷해지는 격동의 시대가 되었다. 이후 100년 가까이 지속되는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막이 열리면서 변방의 주민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되었다. 1493년 경상감사 이극돈(李克墩)의 장계에 따르면, "1485년 을사년에 왜의 소선 11수(艘)가 마지막으로 세를 바쳤을 뿐이고, 그 뒤 각 년(各年)에는 한 사람도 문인을 받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계해약조는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 조약을 개정할 때까지 대마도주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지만 실효적 조약으로써 남아 있었다.

당시 거제시 지세포에는 전사(傳舍) 즉, 관원(官員)을 대접(待接)하여 묵게 하는 객사와 관청, 세관(稅關), 객주(客主), 그리고 여행객(旅行客)의 여독(旅毒)을 풀고 향락을 맡아하던 기방(妓房)과 의원(醫院) 등을 모두 갖추게 된다. 지세포(知世浦)에 거류(居留)하는 왜인들도 생겨났고, 선박을 수리 건조하는 조선소는 물론, 전선(戰船)이나 어선, 선박의 정박지(碇泊地)에 시설물이 들어섰으며, 더불어 수군(水軍)들이 수자리 살던 마을이 곳곳에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조선정부의 사신이 파견될 때마다 통신사(通信使) 영빙선(迎聘船)인, 일본막부 신사(信使)의 배들과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왜선(倭船)들이 드나들곤 했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 떠나기 전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바닷가에서 반드시 해신제(海神祭)를 지냈다. 조선전기 세조에서 성종 시기에 그 항구의 성대함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후 왜인들의 계해조약의 위반사례가 많아져 조금씩 쇠퇴의 길을 걷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삼포왜란이 일어나고 일본통신사가 부산포를 이용함에 따라 자연스레 쇠퇴·소멸하였다.

7) 거제도의 항거왜인(恒居倭人)과 삼포왜란

조선시대 거제지역민의 사회·경제적 생활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요소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조선시대 거제지역에 살았던 왜인문제와 그들의 생활모습이다. 건국 초기부터 조선의 대왜구(對倭寇)·대일(對日)정책은 교린의 원칙에 따라 사신을 파견하거나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왜구의 금지를 꾀하는 한편, 출몰하는 왜구를 직접 회유하기도 하였다. 투항 왜구에게 벼슬, 토지, 가옥 등을 제공하여 향화(向化)시키게 되자 조선 태조 말년에는 투항 귀순한 왜구가 많았다. 이들 투항 귀순왜구를 항왜(降倭), 투화왜(投化倭), 향화왜(向化倭)라고 지칭하였으며, 거주를 희망하는 왜인을 항거왜인(恒居倭人)이라 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교역을 원하는 흥리왜인(興利倭人), 또는 상왜(商倭)에게 무역을 허락하였다. 또한 표류민 송환이나 진화를 바친 왜인, 양국의 외교교섭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왜인, 특수한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한 왜인은 수직왜인(受職倭人)이라 하여 벼슬을 주어 회유하였으며, 성(姓)을 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여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던 정치세력의 사신이라는 명의로서 내조하는 것을 허락한 왜인을 사송왜인(使送倭人)이라 하였다.

그런데 투항 왜인의 수적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폐단도 발생하였다. 왜인들의 경제적 점유비중이 증가하였고, 조선인과의 교환(交歡)하는 자도 발생하였으며, 군사기밀을 일본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태종대에는 왜인들을 통제하여 흥리왜인(興利倭人, 두 나라를 왕래하는 왜인)에게 일정한 포소(浦所)에서 무역하도록 제한하였다. 조선 태종은 만호(萬戶)가 주둔하는 부산포와 내이포(제포)를 개항하여 입항을 한정시켰다. 그러나 왜인들의 불만과 요구가 확대되고 그 폐단이 계속 일어나므로 부득이 태종 18년(1418)에는 염포와 거제도의 가배량에도 항거왜인을 제한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태종 18년(1418년) 이후 거제도 동부면의 가배량 등지에도 일정한 거주지를 설정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왜인들이 생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태종 18년 3월에는 병조가 경상도 수군도절제사에 의하여 계장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좌도(左道) 염포 이외 우도(右道) 가배량에 각각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항거왜인을 모조리 찾아내어 안치·거주하여 살도록 하자는 건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영세(尹永世)씨가 소장하였던 매기록(梅記錄)에는 조선 태종 18년 4월에 가배량에

왜상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포(浦)의 민(民)들이 놀랐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이로써 태종 18년에는 거제 가배량 지역에 항거왜인이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사(高麗史) 권41, 공민왕(恭愍王) 18년 가을 7월 신축에 거제(巨濟)·남해현(南海縣)에 귀화한 왜인(倭人)들이 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거제섬에는 이미 고려말부터 귀화 왜인들이 거주하였으며, 조선 초기에도 이들이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世宗) 초기 상왕(上王)인 태종(太宗)의 주도로 대마도(對馬島) 정벌이 단행됨으로써 거제도의 항거왜인도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 5년(1423년) 10월부터는 이미 개항된 부산포와 내이포 두 곳의 내왕을 허용하였고, 세종 8년 1월에는 대마도주의 간청에 따라 염포까지 개항하여 3포(三浦)가 개항되었다. 이 시기 이후 항거왜인이 거제현에 다시 돌아 와서 거주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세종 8년 1월 계축에는 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거제도에 있는 농토를 주어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내이포, 부산포 이외 좌우도의 각지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좌랑(佐郎) 신기(愼幾)가 답서를 보내어 거제도의 농토 요청건을 거부하고, 부산포와 내이포 및 염포의 3포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세종 10년 5월 기사에는 대마도의 좌이문대랑(左衛門大郎)이 조선의 예조에 글을 보내어 거제도 밖의 작은 섬에 사람을 보내어 보리를 심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우리 측은 거제도의 밖에 경작할 땅이 없다 하고 계달(啓達)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세종연간에는 대마도 왜인이 농업과 교역을 명분으로 거제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대마도(對馬島) 정벌이후 세종연간에는 거제도에 항거왜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대마도 왜인이 거제지역에서 항거하기를 원했던 연유는 거제지역이 대마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해상교통의 거점이라는 점과 함께 농업 및 해양 수산물의 생산기반이 유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세종대의 3포 개항이후 성종(成宗)을 거쳐 연산군(燕山君)과 중종(中宗) 때에 이르러 왜인들의 왕래가 빈번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항거왜인(恒居倭人)들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왜인들에 대

한 통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세종 20년에는 왜인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하여 왜관과 왜막(왜인의 집)의 주위에 이중으로 장벽을 두르고 서쪽과 북쪽 두 곳에 문을 만들어, 상주하는 문지기에게 왜인의 출납을 감시케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세종 25년에는 세견선(歲遣船)을 1년 50척, 세사미(歲賜米) 200석으로 제한하였으며, 조선에서 발급한 도서(圖書)나 대마도주가 발행한 도항증명서인 문인(文引)이 없는 경우는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의 폐단은 제거되지 못하고 있었다. 왜인들은 거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나 항해에 필요한 순풍을 기다릴 때 또는 선박 수리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체제기간을 연장하다가 마침내 3포에 집을 지어 정착하는 왜인도 많았다. 1497년(연산군 3년)에는 부산포 왜인들이 해구 내면(海口內面)의 공·사유(公私有) 어장(漁場)과 채취한 해산물을 멋대로 점거·탈취하였으며, 제포 왜인은 금산(禁山)의 소나무 목재를 마음대로 벌목하고 녹도 만호(鹿島萬戶)를 살해하였으며 돌산(突山) 목마군(牧馬軍)의 의복, 식량과 함께 진주(晋州)에서 조운해 오는 왜료(倭料)를 탈취하는 등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아가 감찰(監察) 박전(朴詮)의 상소에는 「근년 이래로부터는 쇄환하는 법이 폐지되고 호수(戶數)의 약속이 해이해져 알이 자라남이 점차 번성하여 호수의 많기가 그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강한 것을 믿고 악한 버릇이 생겨 날로 방사(放肆)하게 커져서 항상 우리 백성과 더불어 스스로 그 강용(强勇)함을 자랑하여 언어가 불공하고 서신의 사연도 패만(悖慢)합니다. 변장(邊將) 보기를 노예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자주 변방의 백성을 해치며, 민가를 불살라 없애고 민재(民財)를 위협하여 노략질하여 마을에서 자행하니 그 형세가 장차 막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조정에서 복육(覆育)하는 은혜가 이미 두터워도 시랑(豺狼)과 같은 한없는 욕심은 날로 부족하여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표독하고 사납게 치장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신은 등창 때문에 배가 터지는 걱정이나 꼬리가 커져서 제어하기 어려운 근심이 먼 날에 있지 않고 가까운 날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여 3포에 있어서 항거왜인과 흉리왜인 등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장차 제어하기 곤란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정은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종 5년(1510)에는 소위 삼포왜란이 발생하였으며, 거제지역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1510년(중종 5년) 4월 초4일에 대마도의 대관종병부소보성친(代官宗兵部小輔盛親)이 왜선(倭船) 1,000여 척을 거느리고 거제의 북단인 영등포(永登浦)로 침입을 기도하였다. 영등포는 부산포에서 웅천을 연결하는 해상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진이 설치되어 있던 해안의 군사 요충지였다. 영등포 군민(軍民)이 단결해 이를 격퇴하였다. 그래서 같은 달 병신일에 왜구는 병력의 반을 주물도(主勿島, 이물도,이수도)에 주둔시켜 거제현을 계속 공격하고, 나머지는 웅천·부산포 등지로 이동시켰다. 주물도의 왜구는 4월 초5일 왜선 5척과 왜적 100여 명이 영등포의 남쪽에 위치한 하청리(河淸里)에 상륙하였으나, 거제현령 오세한(吳世翰)이 매복 병력으로 적을 살상하고 노략질 당한 현민들의 기물을 되찾았다. 또한 4월 13일 왜적 20여 명이 조라포 등지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이내 거제도 해안은 왜구의 거점지가 되었다. 결국 조선군의 승리로 삼포왜란이 진압되면서 거제지역도 회복되었으나 그 인적·물적 피해는 상당하였다. 그런데 삼포왜란에서 거제지역민이 관군과 연합하여 전선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는 거제지역민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지역적 수호의식의 실천이었다. 삼포왜란 이후 조선과 대마도(對馬島)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나 왜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시 임신조약(壬申條約)을 체결하고 교류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조약의 기본내용은 삼포거주의 금지, 세견선과 세견미의 축소 등을 규정하여 삼포왜란 이전보다 왜인에게 불리하였다. 이에 왜구의 침략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으며, 1523년(중종 18년) 4월에는 왜적이 거제를 비롯하여 남해·욕지도까지 남해연안 섬지역을 대규모로 침입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종 39년(1544) 9월에는 왜선이 고성 앞바다 사량(蛇梁)을 침략하는 사량왜변(蛇梁倭變)이 있었고, 명종 10년(1555) 5월에는 전라도 영암을 침략한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발발하였다. 또한 16세기 후반에는 조선과 일본의 국내사정이 크게 변화함으로써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전면적인 일본의 침략이 예고 되었던 것이다.

8) 임진왜란과 거제도

동아시아 전쟁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豊臣秀吉)이 1592년(선조 25) 음력 4월13일(양력 5월 23일)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입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동양 3국(朝鮮·明·日本)의 병력 수백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그 영향은 심각하고도 광범위하였다. 특히 침략국인 일본은 문화적 이득은 획득했으나 인적·물적 및 정신적으로 모두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중국 명나라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으며, 조선은 전국토가 황폐화되었다.

거제도는 1592년 5월7일(음)에 옥포에서 수군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5월12일(음) 읍치 고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이로써 거제도의 모든 진들이 폐진(廢鎭)되었고 일본군의 점령지로 바뀌었다. 이에 거제도는 1598년 임진란이 끝날 때까지 적의 소굴로 남게 된다.

영의정 류성룡은 "전쟁의 재난은 참혹하여 열흘 사이에 3도가 무너지고 8도가 무너지고도 오늘도 우리나라가 건재함은 하늘이 도운 탓"이라고 했을 정도다. 최전방 거제도는 전쟁의 와중에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 견내량과 학익진의 한산도 대첩, 삼도수군이 궤멸했던 칠천량 해전 등의 크고 작은 해상전투가 있었다.

(가) 옥포해전과 읍치 고현성 함락

옥포해전은 전라좌수영관할 함선 85척(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과 경상우수영관할 함선 6척(판옥선 4척, 협선 2척)이 합류하여 왜선 26척을 당파 분멸한, 승리한 해전이었다. 왜군이나 우리나라의 사상자는 각각 몇 명에 불과했고 왜선만 26척이 파괴되었으니 우월한 기동력과 해상의 함포력(艦砲力, 총통화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경상우수영과 전라좌수영의 함대가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승리한 의미 있는 최초의 전투였다. 일반적으로 이순신의 제1차 출전동안 옥포, 합포, 적진포 승리를 묶어 흔히 '옥포 대첩'이라고 한다. 세 전투에는 연속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편 한국사>는 옥포 해전 승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옥포 해전의 전승이야말로 조선 수군으로 하여금 적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갖게 해준 중요한 일전이었다. 양측의 수군 전력이 노출된 서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곧 조선 측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일본 측은 초전에 패전한 충격으로 인해 크게 전의가 손상되었음은 물론 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그 후의 작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옥포해전 발발일인 음력 5월7일 전날(前日)인 6일에, 왜군은 장목면 율천(율포진영)에서 1박 한 후에 7일 아침에 옥포로 이동하여 배를 정박하고 있던 차에, 이순신과 원균의 연합 함대가 거제 송미포(다대포)에서 1박 후 5월 7일 새벽에 출발하여 오전10시경에 옥포에 들이 닥쳤다. 왜선 30 여척 중에 26척을 격파 침몰 시키고 정오쯤 전투가 끝나고 영등포(장목면 구영등)으로 이동하여 하루를 머물고자 했는데 오후 4시쯤 웅천 땅 합포 쪽에 5척의 왜선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출전하여 5척 모두를 불 질러 격침 시키고, 남포에서 1박한 후, 고성 땅 적진포(통영시 광도면, 고성군 거류면) 왜선 11척 격파하고, 전라도 여수로 되돌아갔다.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에는 1차 출전 후 총42척 격파, 수급2구, 조선인 3명 구출했다고 적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일본측 기록 등에 기록된 자료를 모두 검토해본 결과, 옥포 해전에서 일본군은 약 1500명 정도였고, 우리 수군이나 일본군 양측의 사상자는 각각 3~4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포에서 발생한 해전은 약 2시간 정도이고, 일방적인 조선 수군의 승리였다.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은, 한마디로 거제도를 3박 4일 동안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두르면서 3군데 해상 전투에서 승리한 수군 장정이었다.

이후 일본군들은 옥포 성곽 주위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여, 5월 9일날 송정 고개를

넘어 당시 거제읍치 고현성에 도착하였고, 3일 동안 치열한 전투 끝에 5월 12일 고현성이 함락되었다. 당시 왜군이 고현성을 공격하려는 시점에,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은 진주관할 고을의 군대를 모두 진주성으로 집결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 명령은 왕명이라, 거제현령 김준민(金俊民)은 어쩔 수 없이 약200 명의 군사를 모아 진주성으로 떠나면서 전직 판관을 지낸 만산(晩山) 김후석(金厚錫)에게 지역방어를 부탁하고 출전하였다. 이후 고현성주를 맡은 윤승보(尹承輔)는 장렬히 전사하였고 수문장(거제3장사) 등등은 살아남아 거제의병들과 함께 잠복 매복 등의 게릴라전을 일으켰고 하청장터 등에서 굴욕전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는 수문장 김희진 등의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며, 이순신 장군에게 적의 첩보를 알려주기도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거제의병들이 지속적으로 거제 곳곳에서 왜군을 괴롭히니 고현성 등에서 일시 물러나기도 했으나, 왜군들은 거제도에 왜성을 구축하여 임진난이 끝날 때까지 거제도는 적의 소굴로 남게 되었다.

특히 왜군들은 하청 장목면 일대에 왜성을 구축하며 한때 왜군이 거제도에 5~6천 명이 넘게 주둔할 때도 있었고, 특히 바다를 접한 곳인 구조라 지세포 옥포 장문포 영등포 견내량 등지에 본거지를 만들어 조선 수군을 감시했으며, 언제든 바다를 통해, 연락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래서인지 거제의병은 주로 거제도 內 육상 깊숙한 곳에서 왜놈들을 공격 하였으나, 왜놈을 몰아내기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런고로 거제의병 대다수가 곽재우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 고향 땅의 수복을 위해 싸웠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후, 거제도 왜군은 모두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거제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임난 전에 약2만 명의 거제인구가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또한 수천 명이 일본으로 노예로 잡혀 갔고(당시 총10만명 포로 중 경남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망자도 수천 명이 발생했으며, 1만 명 정도는 육지로 떠나가니, 이후 임난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데 약 80년의 기간이 걸렸다.

(나) 거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錄)과 거제출신 전쟁영웅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는 예로부터 왜놈과 마주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적이 침략했을 때, 거제도를 방어하려는 거제현민들이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다. 이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의 공로가 있었는지는, 조선왕조실록과 난중일기 등에 등장하는 거제현민의 이름과 더불어, 선조 37년(1604) 10월에 내린 선무공신(宣武功臣) 18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1년이 지나서 임진왜란 때에 공적이 있다고 새로 뽑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475명 명단에 거제의병 22명의 명단에서 알 수 있다.

『선조실록』 권 186, 선조 38년(만력 33년 1605년) 4월 16일(경신)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녹권(錄券)은 2,475명을 포함하여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등 9,060명에 내렸는데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들어있는 22명 명단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거제도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의병이 되었고 그들의 활동은 거제도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왜적이 서쪽으로 진격하고자 하는 작전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충무공 이순신의 해상활동을 도우는 계기가 되었고 왜적의 수륙병진 전략이 지체될 수 있었다.

1592년 (음)5월7일 옥포해전에서 패하고 전선을 잃은 일본군이 주작치(송정고개)를 넘어 고현읍성으로 출정코자 했다. 이에 분연히 일어난 거제의병이 송정고개에서 1차로 기습공격을 했고 다음날 연초면 죽토리 연사리 일대에서 2차로 매복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왜군의 진격속도를 이틀 정도 늦추었다. 이는 거제 최초의 의병전투를 이끈 역사적인 쾌거였다. 이후 거제의병들이 고현성 방어에 주력하다가 3일만에 성이 함락되자, 이들은 계룡산 국사봉 앵산 등지에 숨어 몇 년간의 의병활동을 이어갔고, 거제3장사[신응수(辛應壽), 윤영상(尹榮祥), 김희진(金希璡)]의 하청 장날 설욕전 등등의 빛나는 역사적 투쟁도 이루어 냈다. 거제의병은 주로 거제도 內 육상 깊숙한 곳에서 왜놈들을 공격 하였으나, 왜놈을 몰아내기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런고로 거제의병 대다수가 곽재우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 고향 땅의 수복을 위해 싸웠다. 임진난 거제도 의병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 이상의 치욕을 받지 않는 계기를 만들었던,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거제도의 자부심으로 남았다. 의병활동은 이 땅의 역사에서 호국의 정신으로 계승되어,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의 독립운동가에게로 계승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전한다.

○ 거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錄) 22位 명단을 간략히 소개한다. 1등 공신 5

명 : 정(正) 신응수(辛應壽), 첨정(僉正) 윤영상(尹榮祥), 부정(副正) 반중경(潘仲慶), 첨정(僉正) 김희진(金希璡), 판관(判官) 신덕룡(辛德龍). 2등 공신 14명 : 수문장(守門將) 윤승보(尹承輔), 정(正) 여막동(余莫同), 보인(保人) 김옥춘(金玉春), 판관(判官) 반관해(潘觀海), 금군(禁軍) 옥계성(玉桂成), 부정(副正) 윤흥량(尹興良), 첨정(僉正) 조윤전(趙允詮), 부장(部將) 제인국(諸仁國) 제괵(諸摑), 금군(禁軍) 제억(諸億), 수문장(守門將) 이언량(李彦良), 수문장(守門將) 반중인(潘仲仁), 판관(判官) 김후석(金厚錫), 수문장 제진(諸進), 부정(副正) 유녹상(劉祿祥). 3등 공신 3명 : 부장(部將) 제홍록(諸弘祿), 수문장(守門將) 윤개보(尹玠輔), 면천(免賤) 원산(元山) 또는 원평(元平)이 있었다.

그 외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錄) 1등 공신 절충장군(折衝將軍) 우수(禹壽)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안골포 만호를 역임했고 거제시 장목면 구영등 출신이다. 그는 아버지 뒤를 이어, 경상우수영 관할 內, 무관 집안 거제도 출신으로, 리더십은 물론 바닷길과 항해술, 그리고 선박을 다루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임진란이 끝날 때까지 안골포 만호로써, 웅포 당항포 장문포 영등포 다대포 칠천량 명량해전 노량해전, 그리고 1604년 당포 무장상선 나포까지 모든 해상 전투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운 자랑스러운 거제인이다. 덧붙여 병신년(丙申,1596년) 난중일기에서 경상우수영 소속 수군 중에 거제 출신들을 살펴보면, 안골포만호(安骨浦萬戶) 거제출신 우수(禹壽)장군과, 거제출신 옥포진영 소속군관으로 오수(吳壽), 박춘양(朴春陽), 공태원(孔太元), 권숙(權俶), 신홍수(申弘壽), 정사립(鄭思立), 조기(趙琦), 김숙(金俶), 김인복(金仁福), 오철(吳轍) 등이 있었다.

9) 거제(巨濟)의 관방(關防)시설의 현황과 건조물(建造物). 조선후기

거제는 해방(海防)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부각되었고, 부내(府內)에 7진이 19세기 말엽까지 존립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군진과 이웃한 통영의 영향력 아래 많은 부문에서 제약을 받았다. 섬의 여건상 농업적 기반이 취약했으므로 자연 바다에 의존한 삶을 꾸려왔다. 부세의 상당액은 해세(海稅)와 수산물 등이 점유하게 되었다. 특히 풍부한 수자원과 임산물의 반입으로 다양한 물종의 진공(進貢) 분담이 지속되었다.

앞서의 변진(邊鎭)의 역할 구도 때문에 군액 할당은 중앙 군문 보다는 통영을 위시한 지방 군영에 대한 몫이 컸으며, 따로 7진과 읍 수군의 유지를 위해 배정된 액수는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실역자 1,500여 명에다 군포와 군전을 납부한 각색 군교가 줄잡아 만 여 명이나 되었다. 지세포진의 예에서 보듯이 진하리(鎭下里)에 해당되는 이웃 동리는 그만큼 다양한 명목의 부세나 잡역의 징발 대상이 되었고, 이른바 진촌(鎭村)이 형성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면리의 개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거제부민의 생활은 각종 군역과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고된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각종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제 7진보는 폐진될 무렵까지 변방 해상 방위를 위하여 끊임없이 유지 관리되어 거제부민과 더불어 지켜내었고, 진영 내 건물 칸수가 평균적으로 줄잡아도 3·40여 칸에 이르렀음은 그 번성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가) 조선후기 거제 7진보의 재정 운영

영남진지(嶺南鎭誌) 1894년. 1700년대 중기 약 1섬=1냥, 균역법 시행 후에 작성된 자료임. 쌀(米) ; 섬(石)-말(斗)-되(刀)-홉(合). ( )는 실계산액.

| 거제 7 진영 | | 옥 포 | 지세포 | 조라포 | 가배량 | 영등포 | 율포 | 장목포 |
|---|---|---|---|---|---|---|---|---|
| 방결전질(防結錢秩) 수입 | 결전(結錢) | 1,206 | 1,161 | 1,206 | 1,161 | 1,161 | 1,206 | 492 |
| | 방전(防錢) | 2,160 | 2,160 | 2,160 | 2,412 | 2,070 | 2,160 | 948 |
| | 사부방전(射夫防錢) | 216 | 216 | 216 | - | - | 216 | - |
| | 첨격전(添格錢) | 36 | 36 | 36 | - | - | 36 | 36 |
| | 포량가목(砲糧價木)(냥) | 96 | 96 | 96 | - | - | 96 | 60 |
| | 합전(장부 기재 상) | 3,714냥 | 3,669 | 3,714 | 3,573 | 3,231 | 3,714 | 1,536 |
| 상하납질(上下納秩) 지출 | 만호 급여(萬戶)料錢 | 1,179냥 | 1,149 | 1,179 | 1,161 | 1,507.5 | 1,500 | 390 |
| | 실재(實在) | 2,490냥 | 2,520 | 2,490 | (2,412)냥 | (1,723.5) | (2,169) | (1,146) |
| | 교리 군졸 지급(校吏軍卒支給) | - | 1,624 | 401.12 | - | 1,669.5 | 378.8 | - |
| | 사포수(射砲手) 風和 6朔 | - | 96 | - | - | - | - | - |
| | 순영문납(巡營門納) | 115.5 | 16 | 444 | - | 54 | 113 | - |
| | 통영문납(統營門納) | 540.9 | 35 | 484.85 | - | - | 639.7 | - |
| | 각종합용하전(各種 合用 | - | - | - | 1,470 | - | - | 707.7 |

| | | | | | | | | |
|---|---|---|---|---|---|---|---|---|
| | 下錢) | | | | | | | |
| | 진영 공용(鎭 公用) | 1,833.67 | – | 1,159.97 | 942 | – | 1,045 | – |
| | 사포량미(射砲糧米)(석) | 石－斗－刀<br>62–10–1<br>섬–말–되 | 62– | 62–10–1 | 62– | – | 62–11–2 | 23–13–5 |
| | 도합 하전<br>(총 지출) | 2,490.7 | 2,920 | 2,690(2,489.94) | 2,412냥 | 1,723.5 | 2,176.5 | 1,097.7 |
| | 재전(在錢) | – | 845(749) | – | – | – | –7.5 | 438.3 |

[주1] 결전(結錢) : 조선 말기,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는 돈을 이르던 말.

[주2] 방결(防結) : 고을 아전이 백성에게 땅의 세금을 기한 전(前)에 감액하여 받아서 아전 끼리 돌려쓰기도 하고 사사로이 융통하여 쓰기도 하던 일.

[주3] 재전(在錢) : 셈하고 남은 돈. / 재전(齋錢) : 잿돈. 초상계에서, 초상난 집에 상비(喪費)로 보내는 몫의 돈. 예전에, 능이나 종묘 등의 제사를 지내는 곳을 이르던 말.

[주4] 순영문납(巡營門納) : 감사 즉 관찰사 납부. 통영문납(統營門納) : 통제사 납부.

● <지세포진의 재정 사례>

대부분 7진영의 재정 사례가 비슷하여 지세포진영의 재정 사례를 예로 들어 간략히 설명한다. 지세포진의 사례책에 첨부된 「우전래사례(右傳來事例)」에서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의 현황을 엿볼 수 있다. 즉 『부역실총(賦役實總)』 단계에서 결전이 1,153냥에 달하고 있었고, 포량미가 62석 여에 이르렀으며 절가(折價)가 곤란하기는 하나 다수의 물종(物種)이 통영에 상납되고 있었다. 아래에서도 보면 지출액의 1/4 가량이 통영문에 배정되고 있었고, 경아문과 순영, 경상우병영과 거제부에도 할당되고 있었다.

| 지세포진의 재정 지출<br>상·하납질(錢) | 내 역 |
|---|---|
| 1,149냥 | 12朔 만호(萬戶) 月급 (1년 년봉). (전체 30% 차지함.) |

| | |
|---|---|
| | 실재는 2,520냥으로 기타 수입이 연봉과 비슷함. |
| 96냥 | 風和 6朔(6삭) 射砲手 支給 |
| 쌀(米) 62섬(石)= (약62냥) | 風和 6朔 射砲手 支給 |
| 66냥 5전 | 京司納 서울관청 납 |
| 186냥 | 巡營門納 감사 관아 납 |
| 878냥 5전 | 統營門納 통영관아 납 (전체 1/4 차지) |
| 22냥 | 晋州兵營門納 진주병영 관아 납 |
| 16냥 | 本府納 지방 관부 납 |
| 6냥 3전 | 淸道郡 4季朔(4계삭) 穀簿勘債(곡부감채) |
| 368냥 | 結防錢(결방전) 推來所費(추래소비) |
| 370냥 | 校吏軍卒 支給 (교리군졸 지급) |
| 재전(在錢) 421냥 6전 | 隨時公用(수시공용) |
| 합전 3,578냥 3전 | 쌀(米) ; 섬(石)-말(斗)-되(刀)-홉(合), ( )는 실계산액. |

① 당시 월급 : 1명 만호(종4품) 96냥/월, 전체지출 30%차지. 통영관아 납부는 전체 25% 차지함(18세기 말~19세기 초기 때). 실재는 2,520냥으로 기타 수입이 2배 이상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말기에는 만호 재직 후에 서울에 집을 한 채씩 구입했다고 한다.

② 18세기 초엽 심청전 공양미 300석=약 300냥=현재 가치로 약 1억2천15만원 정도됨. 이후에 계속 1냥의 가치가 하락하여 19세기말에는 1냥의 가치가 1/6로 하락함. 당백전 발행 당시에는 1/35 까지 떨어졌다.

③ 많은 전문 직업 군졸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했고 그나마 19세기 중후기는 급료를 받기도 힘든 실정이었음이 여타 자료에도 나타난다. 당시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엄청 났고 힘든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영남진지(嶺南鎭誌)> 지세포진. 관하의 洞內가 8동, 洞外가 4리로 12동리였으며, 民戶가 거의 200여 호나 되었다. (18세기말~19세기초). 수시로 공용(公用)과 앞서의 공납(公納)이 뒤섞여 지급이 되나, 각영(各營)에서 거두어들인 바가 세월이 갈수록 늘 부족하므로 군졸에게 지급하여 쓸 것은 군포를 거둘 것이라는 데서, 부족분을 해민(海民)에게서 확보하고자 하는 저간의 사정을 확인하게 된다.

● 거제 제진(諸鎭)의 재정 운영을 살펴보면, 통영에 상납한 약재나 과실, 각종 재목 외에도 고기잡이(漁) 조군가전(條軍價錢)과 예망군(曳網軍,어업종사 수군)의 급

대전, 훈국선의 신조고가전(新造雇價錢)까지 납부하였다. 각 진의 주세입원은 수군이나 사부전(射夫錢)을 화폐와 무명으로 거둔 것과 감포(減布)를 대신한 결전, 그리고 포량미(砲糧米)가 주였다. 진장(鎭將)의 요전(料錢)이나 요찬가(料饌價)는 바로 위의 방포(防布)나 결전에서 취하기도 하였다. 망자(網子)와 대곡가전(代串價錢), 표고 외에 약재로는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백복(白茯)령, 산약(山藥), 유자(柚子), 해송자(海松子) 등과 목재는 궁삭목(弓삭木), 산유자목(山柚子木), 해동목(海桐木)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체로 19세기 말엽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하였다. 주로 순영에서 획부되는 방군전(防軍錢)과 균역법 이후의 감포액(減布額) 대신 지급된 결전, 그리고 부방군(赴防軍)의 군전과 포량미·목이 주 세입원이었다.

통영에 상납된 항목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봄·가을 두 절기의 약재와 표고(연례납), 진상 어조의 그물과 대꼬챙이 및 어조군(漁條軍) 4명의 대납(代納), 진상 대구어를 실은 선세납, 경사납(京司納) 약채납(藥債納), 연례의 이장(耳匠) 대납, 첨조목(添助木) 대납, 유자(柚子) 대납, 만호의 도방채납(到防債納), 주사군 마감채납(舟師軍 磨勘債納), 송감채납(松勘債納), 간년중기감채납(間年重記勘債納), 12朔삭 조부채납(朝付債納), 춘하양등(春夏兩等) 포폄채납(褒貶債納), 年例仕滿債納(연예사만채납), 수조전령비장하(水操傳令裨將下), 일채납(日債納), 영방필채납(營房筆債納), 각반세의대납(各班歲儀代納), 통인방세의대납(通引房歲儀代納), 역가납(役價納), 각영공장채납(各營公狀債納)의 22항목이었다.

순영에는 연예약환전납(年例藥丸錢納), 세말감채(歲末勘債)가 대부분을 차지한 포흠분이 되돌아와서 분배된 포환배납(逋還排納)(341냥)이었다. 또한 진(鎭)의 공용질(公用秩)에는 통영문 봉채이구납(捧債利口納)과 순영문 편분이구납(便分利口納), 청도군 4계삭감채(季朔勘債), 진상 해삼대로 본부납, 진주 병영의 도청관방계채납(都廳官防契債納), 순대주인(巡代主人) 삭말채(朔末債), 만호의 새로 도임시 통영문 가반점하(各班帖下) 및 노수(路需), 1년 진용(鎭用) 토인지가(通引紙價), 연예각공해수보본진(年例各公해修補本鎭), 만호영문래왕로비하(萬戶營門來往路費下), 각읍방결전(各邑防結錢) 유이수래비하(流伊受來費下), 각양영납사지공하(各樣營納事支供

下)의 12항목이다. 18세기 말엽의 통영 상납질에 그물 36파반과 대꼬챙이 2同, 약재 각4근식(천문동, 맥문동, 백복령)과 유자 50개가 할당되었고, 진상 어조군의 대전(代錢) 81냥과 비교할 때 훨씬 항목과 그 분담액이 불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 <거제 7진보의 해사(海舍) 진하(鎭下) 건물 칸수와 배치 현황>

영남진지(嶺南鎭誌, 1894년). *○(②는 칸수)는 진지(鎭誌), ( )는 초가(草家), 진한 글자는 『사금책(査檢冊)』

| 진명(鎭名) / 해사명(海舍名) | 옥포(玉浦) | 지세포(知世浦) | 조라포(助羅浦) | 가배량(加背梁) | 영등(永登) | 율포(栗浦) | 장목(長木) |
|---|---|---|---|---|---|---|---|
| 객사(客舍) | ○, 4 | 3 | ○, 3 | ○ ( 今無), 3 | 3 | 3 | ⑧, 4 |
| ㅡ門 | 3 | 3 | | 3 | 3 | 3 | 3 |
| 아사(衙舍) | 4 | 4 | 4 | ○, 3 | 3 | 4 | 3 |
| ㅡ門 | 3 | | 3 | 2 | 3 | 3 | 3 |
| 내아(內衙) | (3) 顚壓무너져 없음 | 3, ㅡ庫舍 (3) | (3) 전압(顚壓) | 4 | ③, 3 | 2 전압(顚壓) | 3 門樓 3 |
| 환곡고(還穀庫) | (2) | | | 2 | ④, 2 | | |
| 군기고(軍器庫) | | (1) | | | ③, 2 | 3 | ③ |
| 군관청(軍官廳) | 5 | 4 顚壓 | 4 | 4 | ③, 4 | | ⑥, 4 |
| ㅡ庫舍 | (3) | (4) | (3) | 3 | ㅡ門 1 | | ㅡ門 (1) |
| 이청(吏廳) | 5 | 4 | | 4 | ⑥, 6 | 4 | ⑥, 5 |
| ㅡ庫舍 | (3) 顚壓 | (3) | | | ㅡ門 1 | ㅡ門 1 | ㅡ門 1 |
| 사령청(使令廳) | 2 | 3 | 3 | 3 | ③, 3 | 3 | ④, 3 |
| ㅡ庫舍 | (3) | | | | | | |
| 어변정(禦邊亭) | 4 | | ○待ㅡ官門 外南 | | | ③ 官門外 西 | ○(+閉門樓) |
| 화약고(火藥庫) | ○, 1 | 1 | ○, 1 | 2 顚壓 | ②,1 朽傷 | ○ 官門外 南 2 | ① |
| 사부청(射夫廳) | | | | 3 | ③ | | |
| 포수청(砲手廳) | | | | | ③, 3 | | |
| 화포청(火砲 | | | | | ③, 2 | ○ 官門 | |

| 廳) | | | | | | 外 西 | |
|---|---|---|---|---|---|---|---|
| 육물고(陸物庫) | ○ | | ○ | | | | |
| 창고(倉庫) | | | ③ 官門內 東 | 水營舊址 設置 | | ③ 官門內 南 | ⑥ |
| 동헌(東軒) | ○ | | ○ | ○ | ③ | | 內外-⑥ |
| 각청(各廳) | | | | ○ | | | |
| 선소(船所) | | | | ○ | ③ | | |
| 전우(殿宇) | | | | | ○ | ④ | |
| 즉물고(汁物庫) | | | | | ○ | | ③ |
| 공소(供所) | | | | | | ③ | |
| 수직소(守直所) | | | | | | ③ | |
| 통인방(通引房) | | | | | | | ③ |
| 이상(以上) 해사수(海舍數 | 총계 45 초가(14) | 총계 36 초 가 (11) | 총계 24 초가(6) | 총계 36 | 총계 40 | 총계 28 | 총계 33 초가 (1) |

(나) 거제도 봉수대 운영

조선초기 거제도의 봉수(烽燧)시설에 대해 살펴보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경상도, 거제현, 산천 및 봉수에는 사등포(沙等浦), 탑포(塔浦 송변현이 있음), 오비포(吾非浦), 가이포(加耳浦), 하청포(河淸浦 하청부곡에 있음), 사외포(絲外浦), 황포(黃浦), 한다포(閒多浦), 명진포(溟珍浦 명진현에 있음), 산촌포(山村浦), 오양포(烏壤浦 오양역에 있음) 등과 같은 포와 함께, 남쪽으로 가라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고성현 미륵산에 응하는 계룡산(鷄龍山) 봉수, 북쪽으로 계룡산에 응하는 가라산 봉수를 각각 기재하여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에 비해 더 많은 포와 봉수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거제도에 위치한 봉수시설은 왜구 및 일본의 침략이나 그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변방의 중요한 군사통신 기능을 담당하였음이 분명하다.

<거제도 봉망군 자료> 망대와 봉수대가 함께 있는 곳에는 봉망군이라 일컬음.

| 거제도 봉대망대 | 남망봉대 | 가라산봉수대 | 눌일곶망, | 옥산망, 옥녀 |
|---|---|---|---|---|

| | (가배량소관) | (율포진 소관) | 봉수대<br>(지세포 소관) | 봉 봉수대<br>(옥포 소관) |
|---|---|---|---|---|
| 별봉수(別烽燧) (인) | 망장(望將) 2 | 별장(別將) 1 | 망장(望將) 3 | 번장(番將) 2 |
| 봉수군(烽燧軍) (명) | 4 명 | 13 명 | 10명 | 8명 |
| *별봉(距鎭거진-里)진에서 떨어져 있는 수자리 망군. | 登山(25)망대<br>南望(5) 망대 | 갈곶산(柯乙串山, 加乙串山) (40) | 눌일곶산(訥逸串山)<br>(20) | 옥산(玉山, 옥림산)<br>(20) |

○ 조선왕조실록 : 봉화(烽火)가 1곳이니, 가라산(加羅山)이 현 남쪽 바닷가에 있다.【서쪽으로 고성(固城) 미륵산(彌勒山)에 응한다.】

제2로 봉수 출발점 : 거제(巨濟) 가라산(加羅山)--미륵산(彌勒山)--고성--서울 방향.

○ 지세포봉수대와 와현봉수대는 제2로 연변봉수(가라산)의 최초 보조간봉(와현,지세포)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출처 : 전국봉수망, 증보문헌비고) --갑오개혁초

기 1894년 폐지 됨.

ㄱ. 우리지역 조선시대 군인 : 진영에 있거나 봉군에 있거나 모두 수자리 살게 했다.

(수자리 변방군인은 지역에 거주 하면서 군인으로 복무 함.)

ㄴ. 경봉수 : 봉화의 중앙 집합처, 종착점. 서울 남산(목멱산)봉수대

ㄷ. 연변봉수 : 적을 바로 맞는 곳, 봉수 연락체계 시작점 (가라산봉수대)

ㄹ. 내지 봉수 : 경봉수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있는 봉수들

○ 우리 거제도의 봉수대는 가라산봉수대가 가장 중요도가 크고 또한 인원수 및 관리자의 직급이 가장 높았다. 별장(別將) 아래 직급이 번장(番將)임.

(다) 거제도 성곽(城郭)

거제도는 일본 대마도와 마주하는 지리적 요해처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성곽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4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왜성도 4개소나 포함되어 있어 섬 전체가 성곽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곽 축조시기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넓은 시간 폭을 가지고 지형에 따라 산성과 평지성으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삼국~고려시대의 치소성, 조선시대 읍성 및 진보성,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축조된 왜성 등 다양한 성곽이 축조되었다. 현재 성곽유적 국가사적은 '둔덕기성'이 있고 관아 건축물로는 '거제현관아'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거제의 성곽을 살펴보자. 먼저 주로 평지에 쌓은 평지성으로 고현성(古縣城), 사등성(沙等城), 아주성(鵝洲城)과 같은 읍성(邑城)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의 석성으로, 신라시대 처음 축조된 다대산성(多大山城)과 옥산금성(玉山金城), 당산성(堂山城)·아주현성(鵝洲縣城) 경우에는 일반 산성과 달리 신라시대 송변현(松邊縣)과 명진현(溟珍縣) 아주현(鵝洲縣) 치소의 현성(縣城)이었다. 그 당시 거제군의 치소 둔덕면 거림리의 군현성(郡縣城)은 둔덕기성(屯德岐城, 폐왕성)이었다. 그래서 축조시기가 평지에 있는 읍성보다 빠르다. 이러한 신라시대 처음 축조된 군현성(郡

縣城)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필요에 따라 개축하며 이용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수군진영이 설치되면서 보(堡), 진(鎭), 영(營)에 위치한 곳에 쌓은 구율포성(舊栗浦城, 栗浦堡), 옥포성(玉浦城), 가배량성(加背梁城), 구영등포성(舊永登浦城), 구조라포성(舊助羅浦城), 지세포성(知世浦城)은 군사적 목적에 해당하는 관방성(關防城)이다. 같은 관방(關防)시설로 역(驛)이 위치한 곳에 쌓은 평지성은 오양성(烏壤城)이 유일하다. 또 거제도 산성은 대부분 야산의 계곡을 성내(城內)로 삼은 포곡성(包谷城)과 산 정상을 둘러싼 테뫼산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 왜성은 장목면(長木面) 장목리(長木里)와 구영리(舊營里), 그리고 사등면(沙等面) 덕호리(德湖里)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또한 거제지역에는 조선시대 성지(城址)를 비롯하여 분청사기(粉靑沙器)와 백자요지(白磁窯址)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이 당시 거제지역이 국방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제도 성곽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학적 위치상 왜구방어라는 숙명을 떠안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소수의 해적에 의한 약탈뿐만 아니라, 삼포왜란 임진왜란 등이 발발하여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래서 왜구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거제섬을 빙 둘러 수군진영을 설치하였고 수군진성(水軍鎭城)을 쌓아 굳건한 항전태세를 유지코자 했다. 그런고로 거제도 전체가 가히 변방 관방성(關防城)의 박물관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성곽 유적에 대한 거제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거제문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거제의 누정(樓亭)과 향교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높게 지은 다락집을 '누정(樓亭)'이라 부르는데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거제는 바닷가 8진영과 읍치, 교통요지에 누정이 위치했다. 특히 관청 객사에도 누각을 만들어 접대·향연 및 풍속에 따른 의식을 가졌다. 평면구조는 대부분 직사각형이며 풍류·교육·접대·공공의식 등 문화적 공간으로써 복합적 기능을 겸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거제누정으로, 견내량 동쪽벼랑에 무이루(撫夷樓), 오아포에 위

치한 만경루(萬景樓)청해루(靑海樓)임해정(臨海亭)과 고현성 객관북쪽의 황취루(黃翠樓), 한산도와 죽림포의 진남루(鎭南樓)제승정(制勝亭)대변정(待變亭)이 있었다.

1759년과 1899년 거제군읍지에는, 무이루(撫夷樓)[재 견내량 동쪽해안 금폐(在見乃梁今廢)]. 만경루(萬景樓)청해루(淸海樓)임해정(臨海亭)해안정(海晏亭)[모두 오아포 위치 금폐(俱在烏兒浦今廢)]. 황취루(黃翠樓)[재 고현성 內 객관 금폐]. 죽림포(竹林浦)의 대변정유양각(待變亭維陽閣) 현령 차의린 건립. 제승정(制勝亭) 현령 윤이태 건립. 운주루(運籌樓) 부사 변진영 건립. 한산도 제승당(制勝堂) 통제사 조경 건립. 진남루 부사 윤수인 건립. 사중대(師中臺) 부사 양완(梁垸) 건립 금폐.]라 전한다.

거제7진영 內 기록으로는, 구조라성(城)내 청심각(淸心閣), 양화에 양화정(楊花亭), 지세포에 백사식송정(白沙植松亭),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옥포의 수관루(受款樓), 장목면 관포리 해안정(海晏亭), 둔덕면 학산리 영등포에 풍차루(風借樓) 누각 등, 조선시대에만 약20 개의 누정이 분포했다.

누정 명칭의 뜻을 살펴보면 "무이(撫夷/오랑캐를 주무르다), 해안(海晏/편안한 바다), 진남(鎭南/진영의 남쪽), 제승(制勝/이기는 방법), 수관(受款/정성을 이루자)"의 용례에서 반영하듯, 그 의미는 지역민의 독특한 해상방어의 기원의식이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해(靑海)임해(臨海)황취(黃翠)해안(海晏)만경(萬景)"등의 뜻에는 사면이 바다인 거제도의 아름다운 지리적 특징이 드러나 있다.

● 한편 거제향교는 거제지역민의 유교적 소양과 문화를 확대시키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였다. 고려말 이후 존속되어온 향교는 조선시대 적극적인 홍학 정책에 힘입어 다시 복구 재건되거나 창건되었다. 목민관으로 부임하는 수령들은 자연히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여 지방 사족들과 힘을 합쳐서 향교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국가에서는 여러 특전을 베풀어줌으로서 전국에 향교가 확산되어 나갔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각 군현지역의 학교에 기재된 향교는 성종 17년(1486)까지 전국에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향교는 거제현에도 존재했는데, 1453년에 끝난 당시 거제치소 고현성 축조 時, 고현성 서문 1리(약400m) 서문 골짜기(서문골)에 거제향교가 있었고 황취루(黃翠樓) 누각은

객관과 마주하며 북쪽에 위치했다. 이로써 거제도에도 유학을 배우는 공교육이 시작되었다(1453년). 1592년 5월 12일 임진왜란 時, 고현성이 함락되고 거제향교도 소실되었다고 현판문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후 누추하게 중건하여 고현동 거제향교의 명맥을 이어 갔다고 17세기 초기 조임도(趙任道)의 거제향교 동서 곁채에 다섯 분 봉안을 고하는 대성문(巨濟鄕校東西廡奉安五賢時告大聖文)에서 전한다. 1885년(철종 6) 을축년(乙丑年), 상한 시임(上澣時任) 신재봉(辛在鳳)의 <향교이건기(鄕校移建記)>에 따르면, 갑진년(甲辰年) 1664년(현종 5) 거제 동헌이 거제면으로 옮겨올 때, 현 서정리로 함께 옮겨와 복원했다가 52년 후 1715년 을미년(乙未年)에 거제의 동쪽 기슭 도륜동(道淪洞) 좌(左)편으로 이건(移建)했다. 이후 75년이 지난, 경술년(庚戌年) 1790년 정조14년에 계룡산(龍山) 아래로 이건(移建)했다가 다시 72년 후 1862년 임술년(壬戌年)에 서정리 현(現)터, 구기(舊基)로 재이건(再移建)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토지의 주인인 사(社)와 오곡의 우두머리인 직(稷)의 두 신위(神位)에 제사드리는 곳인 사직단(社稷壇)은 고현성 서쪽에 있었고 공자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문묘(文廟)는 향교에,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城隍神)을 모신 당우(堂宇) 성황사(城隍祠)는 고현성 남쪽 1리 지점에, 역질이 돌아서 여귀(厲鬼)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를 올리는 여단(厲壇)은 현(縣) 북쪽에 있었다.

10) 조선후기 거제읍치 관가(官家) 건물(建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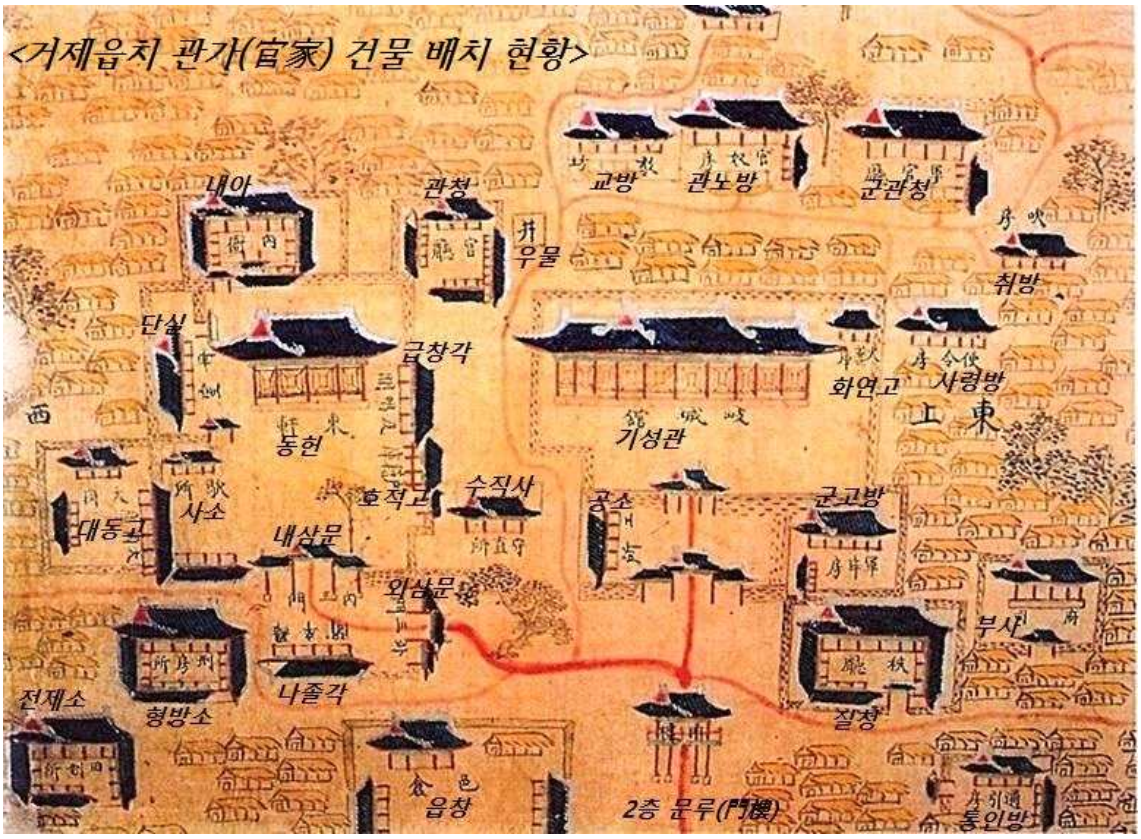
거제면 일대는 조선후기 약 250년 동안 거제도의 읍치가 있었던 곳이라, 현재 그 역사적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거제면 명진리의 옛 명진현지, 죽림포 수군진영, 옥산금성, 동상리 거제반곡서원, 서상리 기성관, 질청과 면사무소, 거제향교 등이 있고, 죽림포 수군진영이 있었던 거제면 앞바다는 거제부사가 주관한 거제 8진영의 수군합조(합동수군훈련)의 그 역사적 자취가 서려 있다. 또한 거제부 단묘(壇廟)로 사직단(社稷壇, 在郡西五里)이나 성황단(城隍壇, 在郡南三里), 여단(厲壇, 在郡北五里)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거제현관아(巨濟縣官衙)는 기성관(岐城館)과 거제질청(巨濟秩廳)을 묶어 2007년 7월 31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84호로 지정되었다.

1427년(조선 세종 9년) 이후 일반적인 객사(客舍)는 지방을 여행하는 관리나 사신의 숙소로 이용되었으며 전패(殿牌)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왕궁을 향해 망월례를 하던 곳인데, 거제도는 이전의 간단한 객사 외에, 대규모 크기의 객관(客館)을 1453년에 고현성 내에 처음 건립되었다. 이후 1471년에 건립된 '기성관(岐城館) 객사(客舍)'는 임진왜란으로 고현성이 폐성된 이후 거제면으로 이건 되었고 주로 귀빈(貴賓)의 객사로 이용되었다가, 경술국치(1910년) 이듬해에는 거제초등학교의 교실로 사용되기도 했다. 건평 265㎡에 고목이 울창한 고대 위에 층단식으로 축조된 기성관은 본관과 외삼문, 석축기와 담장이 매우 세련된 고전미를 잘 간직하고 있어 경남 4대 고건축물(촉석루, 세병관, 영남루, 기성관)의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거제면으로 읍치가 이건할 당시인 1644년과 1661년, 두 차례 도입(島入)한 명나라 유민들의 영향으로, 원목을 사용한 기둥의 중장미와 선의 개방, 단청 중심에 그리는 산수화는 남아식 불화단청(南亞式 佛畵丹靑)으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건축기법이라 예술성이 더욱 높게 평가된다.

<거제부읍지>에 따르면, 거제부 동헌(現거제면사무소)과 질청, 기성관, 그 외 부속건물(통인방, 군관청, 형방소, 아사, 내아 관청 등)에서 주로 사무와 일을 맡았던 분이 공식적으로 총 179명 이었다. 동헌 중심건물에 거제도호부사(무종 3품), 거제향청(鄕廳)의 우두머리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50인, 아전(인리) 30인, 거제부사의 관인을 보관하고 날인의 일을 맡던 토관직인 지인 50인, 관청의 심부름꾼 사령 13명, 관노 남13명 여 19명이 있었다.(都護府使 武從三品 座首一人別監二人軍官五十人人吏三十人知印十五人使令十三名官奴十三口婢十九口). 이 외에도 거제부사의 가솔들은 물론, 거제관기와 거제도 內 면단위 각 지역에서 파견된 사람이 한두 명씩 상주하기도 했다. 19세기초 기록 상, 거제부 관직(아전)에 등장하는 54분 중에 "유(兪)씨 14명, 윤(尹)씨 12명, 옥(玉)씨 8명"이고, 나머지는 "임,신,남,하,진,이,김,주,최,정,원"씨가 1~2자리씩 차지했으며, 대한제국시절에는 '하(河),유(兪),이(李)'씨가 거제관리(아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제현의 관아인 "동헌(東軒), 기성관(岐城館), 질청(秩廳), 관청(官廳), 내아(內衙), 공소(工所), 통인방(通引房), 형방소(刑房所), 읍창(邑倉), 단실(丹室), 수직소(守直所) 외삼문(外三門), 내삼문(內三門), 군관청(軍官廳), 관노방(官奴房), 교방

(敎坊), 사령방(使令房), 군고방(軍庫房)" 등은 배산 구조와 안산, 관아배치와 진입로 구조가 시각적으로 뚜렷한 축을 형성하여 한양의 광화문-경복궁-백악산-북악산의 축과 매우 흡사한 시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현존하는 관아건물인 기성관은 거제현의 객사로써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단청이 화려하고 웅대한 마루구조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전 동헌(東軒), 내아(內衙), 관청(官廳), 형방소(刑房所), 수직사(守直舍), 외삼문(外三門), 내삼문(內三門), 단실(丹室), 나졸각(羅卒閣), 사소(射所), 호적고(戶籍庫), 급창각(及唱閣) 등의 건물이 비록 헐리고 그 자리에 거제면사무소가 들어서 있지만, 부속 건물이었던 질청이 남아있고 당시 고지도 등의 관련 자료가 많아 당시 읍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유적이다. 따라서 거제읍치의 관아와 거리는 조선후기 읍치의 전형적 경관과 구조를 보여줄 뿐 아니라 주요건물인 객사와 부속건물이 남아있어 역사적, 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현재 기성관 바로 뒤편 약10m 지점, 거제초등학교 운동장 동편에서 서편으로 군관들이 일을 보던 군관청(軍官廳), 관노의 거처인 관노방(官奴房), 관기들에게 가무를 가르치던 교방(敎坊)이 위치했었고 거제초등학교 정문에는 관청 안에 사령들이

모여 있는 곳인 사령방(使令房)이, 면사무소 정문 큰 나무 옆에는 건물 경비와 관리를 담당하던 수직사(守直舍)가 면사무소 서북편에는 약재들을 보관하던 단실(丹室), 면사무소 남쪽 편엔 큰 나무쪽에서 나졸각(羅卒閣)과 유치장 형방소(刑房所)가, 면사무소 서남쪽에 공물 보관 창고 대동고(大同庫), 군관청과 사령방 사이 동편에 음악과 연희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취방(吹房), 現 면사무소 정문 주차장일대에는 호적고(戶籍庫)와 관청에 소속된 사내종의 기거 처인 급창각(及唱閣)이 있었다. 큰 길이 확장되고 도시화과정에서 동헌 기성관 질청을 지키던 군인들의 사무실 군고방(軍庫房), 거제부사가 공사를 처리하던 동헌(東軒, 면사무소 자리)은 물론, 내아(內衙), 관청(官廳), 공소(工所), 통인방(通引房), 형방소(刑房所), 읍창(邑倉), 수직사(守直舍), 전제소(田制所), 부사(府司), 사소(射所), 대동고(大同庫), 2층 문루(門樓), 화연고(火鳶庫) 등, 기와집으로 구성된 건물 약200 칸이 사라졌다.

<1759년 거제부읍지>에 따르면, 공해(公廨) 즉, 관가 소유 건물에는 관리나 사신의 숙소 관사(館舍)인 객사(客舍), 거제수령이 공사를 처리하던 동헌(東軒), 향촌자치기구로서 이용된 청사 향사당(鄕射堂), 군관들이 일을 보던 군관청(軍官廳), 군대의 북과 나팔 등 각종 악기를 보관하던 기고청(旗鼓廳), 아전의 집무실 질청인 인리청(人吏廳)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99년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에 따르면, 읍내에 하창(何倉), 호적고(戶籍庫), 육진군기고(陸陣軍器庫), 병고(兵庫), 죽림포(竹林浦)의 수진군기고(水陣軍器庫), 죽림포 해창(海倉)이, 거제부 단묘(壇廟)로는 사직단(社稷壇)[在郡西五里] 군서(郡西)5리 성황단(城隍壇)[在郡南三里] 군남(郡南)3리 여단(厲壇)[在郡北五里] 군북(郡北)5리에 있었고, 죽림포 누정으로 대변정(待變亭)과 제승정(制勝亭) 운주루(運籌樓)가 위치했으며, 읍내에는 진남루(鎭南樓) 사중대(師中臺)가 있었다 하니 그 옛날 거제부의 화려했던 위용을 짐작케 한다.

한편 1711년 거제현이 거제도호부(巨濟都護府使)로 승격되면서 거제7진과 죽림포 진영을 거제부사가 통합 관장하게 되었고, 죽림포(竹林浦) 진영(鎭營)의 수군은 거제부사가 직접 관장하였다. 기성관은 수백 년간 거제부의 객사(客舍)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거제부사가 거제8진영의 수군합조(훈련)을 실시할 때에만 기성관을

수군조련(水軍操練) 임시 집무실로 이용했다. 거제부사가 주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고을 백성들이 그 장관을 보기위해 죽림포 인근에 새벽부터 모여들어 수천 명이 구경했다고 전한다.

11) 조선후기 행정구역 변천, 면리제(面里制)와 호구(戶口)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이래 잔존했던 속현(屬縣)과 임내(任內)의 정리를 통한 군현제(郡縣制)의 정비와 함께 국가의 지배력을 촌락까지 확대하는 면리제(面里制)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면리제는 자연촌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정착할 수 있었다. 거제도는 조선초기 면리제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각 수군진영과 거제현 관청의 관장지역이 각기 나뉘어져 있었다. 이후 1711년 거제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면리제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거제군(巨濟郡)의 직할 관장(管掌) 지역은 ① 사등면과 ② 둔덕면으로 분할되고, 아주현과 고정부곡은 ③ 고현면으로, 송변현과 명진현은 읍내면(동부 서부)으로, 하청부곡은 ⑤ 청하면(淸河面)으로, 죽토부곡・말근향・덕해향・연정장이 합쳐 ⑥ 연초면으로 바뀌면서 6개면(面) 120개리, 7진영 7목장의 체제를 갖추고 변방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거제부의 면리제의 행정 구역 획정은 약 1400년 前, 신라시대에 처음 설치되었던 향, 부곡, 현(鄕,部曲,縣)의 각 지역 경계에 그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개면이었던 거제부는 이미 1801년 이전에 고현면(古縣面)이 일운(一運)과 이운(二運)으로 분화되고, '읍내면, 하청, 연초, 일운, 이운, 사등, 둔덕면(河淸·延草·一運·二運·沙等·屯德面)'의 '7개면 체제'로 바뀐다. 그 후 읍내면은 그대로 둔 채, 종래의 청하면(淸河面)의 명칭이 하청면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고현면의 분화는, 각기 지세포와 옥포, 조라포가 면내에 자리 잡아 예전의 진하리(鎭下里)를 중심으로 인구의 밀집이나 생산 활동의 활발함이 반영된 소산으로도 여겨진다.

갑오경장 時 둔덕면(屯德面)에 속하였던 '한산도'가 그 인근 군소 도서를 묶어서 독립된 면이 되었고, 연초면(延草面)과 하청면(河淸面)에서 외포면(外浦面)과 장목면(長木面)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10개면(한산도 포함) 139리'로 대폭 불어나게 되었다. 광무 4년(1900년) 통제영 터에다 진남군(鎭南郡)을 설치하면서 한산도(閑山

島) 비진도 매물도(당시 동부면) 등 거제부속도서가 통영(진남군)에 편입되었고, 다시 1914년 용남군과 거제군이 통합하여 통영군이 되었다. 그 후 1953년 1월 거제군이 복군될 때 이러한 부속도서를 통영군에 남겨두고 현재의 거제시 행정구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일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거제도의 면리 편성은 조선말기의 개편이 그 골격을 이룬 셈이다.

다음으로 거제도의 호구(戶口)와 방리(坊里)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거제도는 조선시대까지 군역의 기피, 사노비 누락, 육지에서 도망 와 숨어 살던 사람, 해상유민 등, 정확한 인구집계가 사실상 불가능 했으며, 일부 수군진영의 수군과 유민은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인구통계는 관청에 기재 등록된, 가용할 수 있는 백성들의 통계였다. 조선초기 경상우수영의 거제도 설치와 수군진영 구축, 거제현의 이설로 서기 1500년경에, 약 10000명 이상의 인구수를 갖게 되었고, 임진왜란 때까지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일어났다. 그러나 임진왜란 동안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은 후에, 약 100년 동안 육지로부터 10000명 이상의 이민자와 수군장정이 들어오면서 1690년 이후에야 거제인구수가 20000명을 넘게 된다.

규장각기록에는, 조선초기 세종 때 거창에서 복귀한 거제인은 군정(軍丁) 103명, 주민 153세대 인구 423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거제 전체 인구통계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는 1272년부터 본섬에 남아있던 거제민과 더불어 고려말기부터 육지에서 이주한 유민 수천 명이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거창군에서 환도하기 전에 설치된, 거제도 수군진영 인원(약 3000명)도 제외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뭍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민이 증가하여 조선 숙종 때 주민 6641세대 인구 32,108명으로 기록되어 전하고 있으나, 또 다른 당시 문서에는 18세기 중엽까지 5천 수백여 호의 원호(元戶)에 2만 4천여 명이라고 전한다. 그러다가 18세기 말엽에는 원호 6,981호, 인구수 30,023명으로 불어나서 자료마다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며, 이후로는 6,600여 이상의 호(戶)와 3만 명을 웃도는 인구수가 지속되었다. 단, 19세기 말엽에는 행정 개편과 관하 군진(8진영)의 폐지가 이뤄지면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잦은 왜란과 더불어 바닷가 어민의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어촌의 특징인 '여초현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극심했다. 거기다가 근현

대 6.25전쟁 중, 거제인구는 주민 10만 명, 피난민 약15만 명, 포로 17만 명 등, 한때 약42만 명이나 되었다. 이후 1985년부터의 인구증가와 '남초현상'은 조선경기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다. 참고로 거제도 본섬의 명칭도 사도도(沙都島), 상도(裳島, 거제섬 별호), 거제도(巨濟島)로 변해왔다.

다음은 조선후기 거제(巨濟)의 면리제(面里制) 행정구역 변천과 거제부(巨濟府) 방리(坊里) 및 호구총수(戶口總數)를 1750년부터 1899년까지 정리한 간단한 <표(表)>이다.

● <표 1.> 1750년부터 1899년까지 거제부(巨濟府)·거제군(巨濟郡)의 행정구역 변천과 호구총수(戶口總數) 방리(坊里) 표(表)임.

| 연 도 | 인 구(人口) | | 면수(面數) | 방리(坊里) | 참고문헌 |
|---|---|---|---|---|---|
| | 호수 | 인 구 | | | |
| 1750년 | 5371戶 | 총24734<br>남 1540<br>여 3194 | 6개면<br>읍내 둔덕 사등 고현 연초 하청 | | 지승지도<br>거제부 |
| 1790년 | 5271戶 | 총24734<br>남 1540<br>여 2194 | 6개면<br>읍내 둔덕 사등 고현 연초 하청 | | 여지도 |
| 1832년 | 6981戶 | 총30023<br>남 4822<br>여 5201 | 6개면<br>읍내(동부·서부)·둔덕·사등·고현(일운·이운)·연초·하청 | 83坊 | 거제읍지 |
| 1880년 이후 | 7509戶 | 총31281<br>남 17166<br>여 14115 | 7개면 ⇨ 8개면<br>읍내(서부, 동부) 둔덕 사등 일운 이운 연초 하청 | 84坊 | 거제읍지 |
| 1898년 | 3925戶 | 총14203<br>남 8518<br>여 5685 | 10개면<br>읍내(동부·서부)·둔덕·사등·일운·이운·하청·연초·외포·장목·한산 | 139坊 | 거제군읍지 |

● <표 2.> <거제부(巨濟府) 방리(坊里).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년) : 『巨濟府邑誌』(1832年刊)>

| 면명(面名) | 리수(里數)와 호구(戶口) | 방리수(坊里) | 坊里名(距官門~里) 방리명(관문에서 거리) |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마을명(里名) |
|---|---|---|---|---|

| | | | | |
|---|---|---|---|---|
| | | 數) | | |
| 읍내면邑內面 | 26리, 살림집(元戶) 1,782호 사람수(口數) 7,839명 (남 ; 여 3,871 ; 3,968) | 東部 14 | 고다대포(古多大浦), 저구미{猪仇味(未)}, 갈곶(加乙串)(40리), 망포(網浦), 율포{栗浦←-진하리(鎭下里)}, 가배량{加背梁←-진하리(鎭下里)}(20), 주원도(朱原島)(30월해(越海:바닷길 30리), 구천동{九川洞←구천장(九千場)}, 화치(化峙), 화의(火蟻), 오송정(五松亭)(10), 산촌(山村), 명진{溟(明)珍}, 오수항{梧樹項←오수항(吾水項)}(5) | 솔비포(所乙非浦), 당항(堂項), 봉암(蜂巖), 기동(妓洞), 죽도(竹島), 산달(山獺) |
| | | 西部 7 | 내간덕(內看德), 옥산(玉山)(7), 죽림포(竹林浦), 외간덕(外看德), 녹동(鹿洞)(5), 서정(西亭)(1), 성내읍기(城內邑基) | |
| 둔덕면屯德面 | 20리 元戶 1,321호 口數 5,785명 (2,808 ; 2,977) | 7 | 영등{永登←-진하리(鎭下里)}(35리), 한산도(閑山島)(30리越海:바닷길),하둔덕(下屯德), 산방(山芳), 거림치(巨林峙), 상둔덕(上屯德), 법동포(法東浦)(20) | 여찰포(汝次乙浦), 양포(양浦), 두억포(頭億浦), 장동(長洞), 창동(倉洞), 일정포(一碇浦), 야소포(冶所浦), 멸포(멸乙浦), 비진도(非珍島), 용초(龍草), 호두(胡頭), 동좌(東佐), 서좌(西佐), 왜구미(倭仇味) |
| 사등면沙等面 | 7리, 元戶 467호 口數 1,975명 (983 ; 992) | 6 | 왜성(倭城), 오양(烏壤)(40), 가조도(加助島)(35越海), 지석(支石)(30), 사등(沙等), 두동{豆(頭)洞}(20) | 사근포(沙斤浦) |
| 고현면古縣面 | 23 리, 元戶 1,461호 口數 5,995명 (2,979 ; 3,016) | 一運11 | 지세포{知世浦←-진하리(鎭下里)}, 주림포{舟(酒)林浦}, 항리(項里), 왜구미(倭仇味)(40), 망치(望峙), 양화정(楊花亭)(30), 문동(門洞), 삼거리(三巨里), 남문(南門), 서문(西門), 사동(寺洞)(20) | 장평(長坪), 동문(東門), 능포(凌浦), 두모(杜毋), 진목정(眞木亭)* 『巨濟邑誌』(國中 한 古朝62-16 ; 1880년~) 二運11리 저산(猪山)(20) 추가 |
| | | 二運10 | 장승거리(長承巨里), 옥명포{玉鳴(明)浦}(40), 관송(貫松), 당항(堂項), 아주{鵝(我)洲}, 옥포{玉浦←-진하리(鎭下里)}, 조라포{助羅浦←-진하리(鎭下里)}(30), 해명(海明), 수월(水月), 양정{楊(羊)亭}(20) | |
| 연초면延草面 | 15리 元戶 917호 口數 3,938명 (1,946 ; 1992) | 12 | 이물도(利勿島)(50越海), 외포(外浦), 덕포(德浦), 이곡(梨谷), 문암(門巖), 한해{汗海←한내(汗內)}, 오비{鳥飛←대오비(大烏飛) 소오비(小烏飛)}, 명동(椧洞)(40), 다공(茶貢), 연사{烟沙←연화(烟北) 연남(烟南)}, 송정{松亭←상송정 | 이목리(梨木里), 효자문리(孝子門里), 죽전리(竹田里) |

| | | | | |
|---|---|---|---|---|
| | | | (上松亭) 하송정(下松亭)}, 죽토(竹土)(30) | |
| 하청면河淸面 | 29리 元戶 1,033호 口數 4,491명 (2,235 ; 2,256) | 16 | 저도(猪島)(75리越海), 황포(黃浦), 유포{柳浦←상유포(上柳浦) 하유포(下柳浦)}, 구영등(舊永登), 농소포(農所浦)(70), 저포(這浦), 장목포{長木浦←←진하리(鎭下里)}, 구율포(舊栗浦), 대금산(大今山), 부(시)방{夫(矢)方}(60리), 칠천도(柒川島)(55越海), 사외포(絲外浦), 사곡{巳串←(蛇串)}, 내가이(內加耳), 외가이{外加耳←외가상(外加上) 외가하(外加下)}, 하청{河淸←하청남(河淸南) 하청북(河淸北)}(50) | 석포(石浦), 실전(實田), 궁농소(宮農所), 송진포(松鎭浦), 외질포(外叱浦), 두모포(豆毛浦), 송포(松浦), 대곡(大谷), 어온포(於溫浦), 장곶(獐串), 이물도(利勿島) |
| 총 6개 면(面) | 120리 元戶 6,981호. 총인구수(口數) 30,023명 (남 14,822 녀 15,201) | 총83坊 월해(越海) 바닷길 거리 | | |

● <표 3.> <거제(巨濟)의 방리(坊里). 갑오경장 後,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1899年刊)>

| 면명(面名) | 방리수(坊里數) | 방리명(坊里名) [+신설마을(新設 里名)] [방리=마을] | 慶尙道邑誌』(1832년) 마을이름(里名)에서 빠진 것 |
|---|---|---|---|
| 읍내면 邑內面 | 동부(東部) 14→22 | 다대(多大), 저구(猪仇), 갈곶(加乙串), 율포(栗浦), 가배(加背), 구천(九川), 오송(五松), 산촌(山村), 명진(明珍), 오수(烏首) [+산양(山陽), 남송(南松), 동호(桐湖), 영북(嶺北), 탑포(塔浦), 죽림(竹林), 유천(柳川), 평지(平地), 부촌(富春), 명사(明沙), 다포(多浦), 학동(鶴洞)] | 망포(網浦), 화치(化峙), 화의(火蟻), 주원도(朱原島) / 죽림포(竹林浦), 성내읍기(城內邑基) |
| | 서부(西部) 7→12 | 내간(內看), 옥산(玉山), 외간(外看), 녹동(鹿洞), 서정(西亭) [+금화(金荷), 화원(花院), 서상(西上), 서하(西下), 동상(東上), 동하(東下), 남동(南洞)] | |
| 둔덕면 屯德面 | 7→18 | 영등(永登), 하둔(下屯), 산방(山芳), 거림(巨林), 상둔(上屯), 법동(法東) [+옥동(玉洞), 덕리(德里), 농막(農幕), 유기(柳技), 상서(上西), 녹산(鹿山), 술역(述亦), 적도(赤島), 마장(馬場), 시목(柿木), 어구(於九), 소랑(小郎)] | 한산도(閑山島) |
| 사등면 沙等面 | 6→15 | 왜성(倭城), 오양(烏良(壤)), 가조(加助), 지석(支石), 사등(沙等), 두동(豆洞) [+성촌(城村), 장좌(將左), 사근(沙斤), 청곡(靑谷), 서갈(西加乙), 신계(新溪), 아안(阿岸), 광리(廣里), 신호(新湖)] | |

| | | | |
|---|---|---|---|
| 일 운 면<br>一運面 | 11→22 | 주림(舟林), 항리(項里), 왜구(倭仇), 망치(望峙), 양화(楊花), 문동(門東(洞)), 삼거(三巨), 서문(西門) [+장평(長坪), 연곡(年谷), 동문(東門), 금곡(金谷), 용산(龍山), 교항(橋項), 소동(小洞), 대동(大洞), 회진(會珍), 선창(船倉), 미조(彌助), 와현(臥峴), 조라도(助羅島=내도 외도), 지심도(只心島)] | 지세포(知世浦), 남문(南門), 사동(寺洞) / 관송(貫松), 당항(堂項), 수월(水月) |
| 이 운 면<br>二運面 | 10→18 | 장승(長承), 옥명(玉明), 상아(上鵝), 하아{(下鵝)(←아주(鵝洲)}, 옥포(玉浦), 조라(助羅), 해명(海明), 양정{(良井)(양양정(楊·羊亭)}, 능포{菱(凌)浦}, 두모(杜母), [+*저산(猪山), 수양(水陽), 수동(水東), 거로(居老), 관화(貫化), 국산(菊山), 영태(嶺台), 우산(牛山)] | |
| 연 초 면<br>延草面 | 12→18 | 덕치{德峙(浦)}, 이목(梨木), 이남{梨南(←이곡(梨谷)}, 문암(門巖), 한내{汗內(←한해(汗海)}, 대도(大島), 소도{小島(←대,소오비(大·小烏飛)}, 명상(明上), 명하{明下(←명동(棆洞)}, 다공(茶貢), 연사(烟沙), 상송(上松), 하송{下松(←송정(松亭)}, 죽토(竹土) [+관암(冠岩), 죽전(竹田), 천곡(泉谷), 주령(珠嶺)] | 이물도(利勿島), 외포(外浦) |
| 하 청 면<br>河淸面 | 16→14 | 석포(石浦), 실전(實田), 장곶{長(獐)串}, 어온(於溫), 송포(松浦), 대곡(大谷), 외질포{外叱浦(瓜田)}, 외상(外上), 외하(外下), 하청(河淸), [+하구(河九), 연구(蓮九), 덕곡(德谷), 해안(海安)] | 이물도(利勿島) / 저포(這浦), 구율포(舊栗浦), 대금산(大今山), 칠천도(柒川島), 사외포(絲外浦), 사곡(巳串), 내가이(內加耳), 외가이(外加耳) |
| 외 포 면<br>外浦面 | 8 | 덕상(德上), 이호(利湖), 덕하(德下), 유동(柳洞), 시방{矢(夫)方}, 대령(大令), 보곡(寶谷), 율천(栗川) | |
| 장 목 면<br>長木面 | 11 | 장목(長木), 관포(冠浦), 송진(松眞), 황포(黃浦), 구영{舊永(←구영등(舊永登)}, 상유(上柳), 하유{下柳(←유포(柳浦)}, 저도(猪島), 농소(農所), 궁종(宮農), 두모(頭毛) | |
| 한 산 면<br>閑山面 | 14 | 죽도(竹島), 산달(山達), 추원(秋元), 봉암(烽岩), 양포(양浦), 비진(比珍), 두억(頭億), 동좌(東佐), 서좌(西佐), 창동(倉洞), 매동(梅洞), 하포(荷浦), 용초(龍草), 호두(胡頭) | |
| 10面(10개 면) | 83→139里 | | *표 글은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리명(里名) |

12) 거제부 수군조련(水軍操練), 수군 군사훈련

거제부의 8진영(7진영+죽림포진)이 함께 거제면 죽림포 앞바다에 모여 거제부사가 주관하는 수군훈련을 실시했다. 거제7진영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거

제고을 백성들이 그 장관을 보기위해 새벽부터 모여들어 수천 명이 구경했다고 한다.

거제도는 1711년 거제도호부로 승격되면서 거제면 죽림포(竹林浦 배숲개)에 어해정(禦海亭)을 두어 전선대장(戰船代將)이 전함(戰艦)을 상비(常備)하고 해군 양성을 하였다. 객사(客舍) 기성관(岐城館)은 아전(衙前)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거제부 수군 훈련 때에는 지휘본부 집무실로 변통해 사용했다. 수군조련에는 거제부사와 거제의 2선장이 이끄는 각 선단(船團, 1전선·1병선·2사후선)의 승선원은 각각 239명이며, 합하여 500명 내외의 군교와 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훈련에 참가하는 7진보의 군액은 각 진마다 1귀(전)선, 1병선, 2사후선의 1개 선단에 배정된 군액이 220명 내외로 7진의 수사교졸(水師校卒)만도 1,552명에 이른다. 여기다가 수군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거제부에는 5곳의 봉수대 및 요망처(瞭望處)에 배치된 별봉수와 봉수군, 나아가서 군포를 부담하는 방군(防軍)과 무학(武學) 및 첨격 무학(添格武學), 모군의 각색 군교가 9,715명에 이른다. 이러하여 총 관계군이 줄잡아 1만 1천여 명에 달했다.

거제면 죽림 앞바다에서 행한 군점(軍點 군선, 군사, 집물 등을 점검) 행사가 큰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당시 군점(軍點) 행사 때 그때의 광경을 노래한 민요가 있다. “산양산촌 연지동안에 / 비단거우가(비단 거위가) 떠들오네 / 아리싸리 구월일랑가 / 얼싸좋다 명당초야 / 목에목에 오시목에(오수리 오수 마을에). / 둥달았다 죽림포야.“

<거제부 수군조련> 거제면 앞바다

○ 조선후기 수군통제영이 위치한 경상도 통영 거제 앞바다에서 수시로 대규모 수군훈련이 벌어졌다. 조선 시대 수군의 기동 훈련은 경상·전라·충청 3도 수군이 총집결, 봄에 실시하는 춘조(春操)와 각 도별로 가을에 실시하는 추조(秋操)로 나눠 실시됐으며, 때로는 가덕도 앞바다에서 수군훈련이 열리기도 했다. 총 병력은 53개 고을 수령과 51개 수군진영의 장수들이 지휘하는 거북선 43척을 포함한 군선 548척과 장졸 3만 6천여 명, 군량 9만석으로 조선시대 관방 최대 규모를 과시했다.

삼도수군통제사가 경상우수사를 겸하고 있다 보니, 19세기 거제의 군액(軍額)은 소수의 중앙 군액만 배정되고 있을 뿐, 사실상 통제영 수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수군의 군사합동훈련인 통제영군점수조에서 수군을 조련하는 전진에는 다섯 영(營)이 있다. 각 영마다 그 아래에 다섯 사파총(司把摠 : 전, 좌, 중, 우, 후)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다섯 초관(哨官 : 전, 좌, 중, 우, 후)이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 편제상 거제는 거제부사가 중영(中營)의 중사파총(中司把摠)을 맡고, 그 예하의 전(前)·좌(左)·우(右)·후촌관(後哨官)을 옥포·지세포·조라포 만호(萬戶)와 거제 2선장이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율포 권관(權管 종9품의 수장(守將))과 가배량 만호(萬戶 종4품), 장목포 별장(別將 정7품)과 영등 만호(萬戶)도 각기 일령(一領)

중 후령(後領), 이령(二領) 중 전령(前領)과 후령(後領) 그리고 좌선봉겸 척후병(左先鋒兼 斥候將)을 맡아서 경상우수영의 일익을 이끌게 된다. 거제부사와 거제의 2선장이 이끄는 각 선단(船團, 1전선·1병선·2사후선)의 승선원은 각각 239명이며, 합하여 500명 내외의 군교와 수군으로 구성되고 있다.

거제부 조선후기 '병사문서'에는 7진영의 군점을 실시한 자료가 일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자료에 '장목포' '지세포'의 군사훈련 인원 점검이 들어있다. 전선(기패관, 도훈도, 사부, 화포수, 포수, 타공, 요수, 정수, 능노군)과 병선(선장, 사부, 포수, 사공, 능노군) 및 사후선(사공, 능노군)의 이름이 적혀있고, 지세포진은 이름 아래, 거주지, 나이,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있어 당시 고을에 거주하는 분들의 개략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수군의 군점 時 인원점검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삼도수군 합동훈련인 '통제영군점수조'나 거제부 수군조련 등은 조정에서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려 춘조(春操 봄 훈련)를 실시하지 않은 때가 많았고, 추조(秋操 가을 훈련)는 해마다 실시하는 편이긴 하나 실시하지 않는 때(年)가 더 많았다. 한편 경상우수영 관하의 31개 진보(鎭堡) 가운데 거제부내(府內)에 7개진이 자리 잡아 이웃한 고성현의 5개진과 함께 최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7진은 설치시기와 이진(移鎭), 그리고 일시적 치폐(置廢)가 있기는 하였지만 지방군제가 해체되는 1895년까지 존속하였다.

13) 표류왜인 처리 및 과다한 조세부담과 옥포왜학

거제도에 도착한 표류 왜민(漂倭民)의 체류와 송환을 위한 부대경비는 고스란히 거제부민에게 떠넘겨졌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왜공고(倭供庫)가 옥포와 지세포에 각기 한 곳이 있었고, 왜공미(倭供米)를 운반하여 표박(漂迫 표류) 형편에 따라 지급했다. 왜선이 바람에 표류하여 우리나라 경계 상에 정박하면, 단지 땔나무와 물을 지급하지, 원래 요(料, 돈)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만약 국경을 마주하는 해상 좌우연해에 정박하면 양찬(糧饌 양식과 반찬)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예로부터 관례(古例)였다. 물론 일본 또한 상호교린의 원칙에 따라 그러했다. 그러나 빈번한 표류왜인으로 인해 그 제반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해도의 읍민들은 무열고(懋悅庫)

란 일종의 민고(民庫)를 운영해야만 했다.

실제로 前거제부사 권환(權煥, 1805~1806년 재임)의 원정(原情)에 따르면 19세기 초 읍의 대동미(大同米)를 순영(巡營)으로부터 해마다 400석을 획급 받아 표왜(漂倭)의 공급지수(供給之需)로 삼았고 묵은 쌀은 개색(改色)할 때 환무(還貿)하여 시가 차익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경상우도 암행어사 조기겸(趙基謙)의 별단에 의하면 거제와 웅천(熊川) 양읍의 표왜지공(漂倭支供)의 부족수가 천여 석에 이르러 수조(收租)하여 획급함이 2·3할 밖에 감당되지 않았다. 과외로 백성에게 거두게 되니 유망이 잇따르게 되었으므로 나중 도신(道臣)에게 가분모(加分耗) 1천 석을 해마다 양읍에 분배하여 왜량(倭糧)의 부족수를 보충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가) 거제도 봉망대(烽望臺) 및 거제 표류 왜인(倭人) 처리

일본 대마도와 가장 근접해 있는 거제도는 고대로부터 많은 외국 선박들이 지나가는 해상통로였다. 왜구의 침범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였고 왜선(倭船)의 표류로 연안에 표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주민의 피해가 상당하였다. 표류 선박에 대한 제반비용은 모두 그 지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지역은 해안방어 차원에서 망대(望臺, 봉망대)를 여러 곳에 설치하였다. 그 중에 5곳이 중앙정부로부터 관리되고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곳이었다. '눌일곶, 옥산, 등산, 남망, 갈곶산 망대'가 그러하다. 먼저 망군으로부터 표류한 왜선을 발견하고 관할 진영에 보고한 후, 선박을 예인하여 정박시킨 후, 옥포 왜학(통역관)이 와서 문정(사건 조사)하여 직할 상부로 보고하면, 중앙정부까지 장계가 올라가고 그 사후처리를 지시받아 실행 처리하였다.

또한 표류선박의 왜인 체류비용은 물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비를 모두 거제도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주 마찰이 생기기도 했으며, 왜인의 수를 부풀려 보고하는 일까지 빈번하여 상부로부터 문책을 받기도 하였다. 왜인 수가 많을수록 표류선박 비용 보상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왜인으로서 왜관에 있다가 죽은 자와 우리나라에서 표류 도중에 물에 빠져 죽은 자 및 관우(館宇)의 실화(失火) 등의 일은 조정에서 그때마다 경중을 구별하여 물품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를 휼전(恤典)이라 했다.

한편 거제도 망대(望臺)는 조선왕조실록에 망군과 봉군의 활동사항과 보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옥산망(옥포) 눌일곶망(지세포) 가덕도망 부산 다대망과의 긴밀한 상호 연락체계가 구축되었다. 거제도 망대를 소개하면, '지세포관할 눌일곶산(訥逸串山) 20명, 옥포관할 옥산(玉山) 20명, 가배량 소속 등산(登山) 25명, 가배량 관할 남망(南望) 5명, 율포 관할 갈곶산(柯乙串山) 40명 - 여지도서 경상도편 거제 7진보-' 모두 5곳이며, 망군(望軍)은 수자리를 사는 게 원칙이었다. 봉수대와 함께 근무하는 곳은 봉군과 망군이 통합하여 '봉망군(烽望軍)'으로 불렸고. 거제도의 봉수대 인근과 망대부근에는 지금도 집터가 남아 있는데, 봉군과는 달리 망군은 가족과 함께 생활(수자리)하면서 망군의 역할을 해내었다. 바다에 수상한 배가 출몰하면 그 경중에 따라 즉시 신호로 알리거나 봉화를 올렸고, 동시에 한 명은 관할 수군진영까지 달려가 직접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영조실록> 영조29년(1753년)에 거제의 망군(望軍)이 보고하고 대처한 기록을 살펴보자.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이사선(李思先)이 금월초 9일 성첩장(成貼狀)에다 당일내 공문이 와서 본 월초 7일에 문서에 관인을 찍었는데, 옥포만호 손명혁(孫命奕), 조라만호 서정복(徐廷復), 지세포만호 김세형(金世珩) 등이 동시에 급히 보고해 왔다. 당일에 옥포 관할 옥산망군(玉山望軍)의 양인 이시필(李時必), 조라(助羅) 토병 사노 설재창(薛再昌), 지세포 눌일곶망군(訥逸串望軍) 정병 박중삼(朴重三) 등이 아침에 나아가 일시에 아뢰기를 호운도(呼雲島) 앞에 왜선으로 보이는 3척의 배가 나타나 해상에 떠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을 새워 술수를 쓰는지 아니면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하니, 새벽쯤 날이 밝아질 때까지 엄하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알렸다. 또한 헛되이 쫓아가지 말라고 급히 성첩을 보내놓았다. 봉망군(烽望軍) 등이 상세히 지켜보다가 아뢰는 바, 어제 야간이라 두 척인지 세 척인지 판단하지 못하다가 한척을 보냈으나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전해 왔다.

(나) 거제도 옥포 왜학(倭學)

우리나라는 태종 15년(1416)에야 정식으로 왜학(倭學)이 설치되어 30여명이 배우

기 시작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이 험한 데다 중국어 역관처럼 벼슬 얻을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었다. 조선왕조의 관제가 갖춰지자 '경국대전'을 간행했는데, 사역원에 정9품 왜학훈도(倭學訓導)가 2명 배속되어서 생도들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이 왕래하는 부산포와 제포에도 왜학훈도가 1명씩 배치되었는데, 매달 쌀 10말과 콩 5말을 녹봉으로 받았다. 태종 전에는 거제도에 귀화한 왜인이 다수 있어 그 귀화인들이 주로 통역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조선초에 지세포에서 왜인들의 여행통행증 문인을 주고받을 때, 지세포성 관리로서 문인을 전담하는 통역관(왜학, 소통사)가 거주하였으며, 임진란 이후에는 1706년부터 옥포에서 전담 왜어역관(倭語譯官)이 거주하면서 거제도 지역에 왜인 표류 선박이 예인될 때마다 문정(사건 조사)을 실시하여 상부로 보고하였다.

○ 거제도 옥포진성 내에는 왜학 역관(譯官)이 생도들을 가르친 왜학당(倭學堂)과, 왜인의 위한 비상식량과 각종기록을 보관하던 왜량고(倭糧庫)가 있었다.(옥포진성 고지도) 그리고 옥포통사(玉浦通事, 통역관)는 1명으로 3달마다 교대하는데, 옥포에 입번할 때 동래부에서 초료(草料)를 지급하였다. 간혹 1년씩 교대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옥포의 종9품 왜학훈도는 왜관(倭館)의 왜인(倭人)을 접대하고 변정(邊情)을 전담하였으며, 왜학(倭學)을 설치하여 역학(譯學)의 학생을 가르쳤다. 왜학인의 정원수는 조선초 태종때 기록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왜학(일본어)는 서울 사역원(司譯院) 15(40), 부산포 10, 제포 10(0) 염포 6(0), 제주 0(15), 거제 0(5명/옥포). 이 중 왜학은 서울 사역원(司譯院 번역통역 관청) 이외에는 일본과 교섭이 잦은 부산진, 거제, 제주도에서만 가르쳤다. 소통사의 급료는 《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 부창색(釜倉色)에, 1인당 매달 6말씩 지급하는 것은 큰 달[大月]의 경우인데 총 12섬이 지급되었다. 작은 달[小月]은 11섬 9말이 지급되었다.

왜선 즉 대마도 선박이 주로 표착한 곳은 다대포(多大浦), 가덕도(加德島), 지세포(知世浦), 옥포(玉浦) 등으로, 부산포와 통영 근처가 주류를 이룬다. 조선후기 왜선의 표착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통영(統營)에는 1648년 왜선의 문정(問情)을 위하여 왜학역관(倭學譯官) 1명이 파견근무 시키다가, 이후 1706년에는 거제(巨濟 옥포)로 옮겼다. 《通文館志 卷1 沿革 外任》

○ 왜학훈도(倭學訓導)는 고려 문종 때 비로소 각 도에 설치하였다가 고종 때에 폐지하였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각 도 및 군, 현에 훈도 1인씩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왜구에 대한 대비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정3품 아문(衙門)인 사역원(司譯院)에는 왜학훈도(倭學訓導) 2명(정9품)을 고정 배치시켰으며, 또한 경상도의 각 부, 군, 현에 배치되어 있는 훈도는 모두 55명에 이르렀다. 그 중 종9품의 왜학훈도는 부산포(釜山浦), 제포(薺浦)에 각각 1명을 두었고, 임기는 900일이었다. 훈도는 왜관(倭館)의 왜인(倭人)을 접대하고 변정(邊情 변경의 형편)을 전담하였으며, 왜학(倭學)을 설치하여 역학(譯學)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리고 거제의 옥포왜학(玉浦倭學)이 같은 왜학 윤덕조(尹德祖)의 죄를 사태(沙汰)하고 대임(代任)의 차하(差下)를 청하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윤덕조(尹德祖)를 처치(處置)할 것을 청하는 예조판서(禮曹判書)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기록하고 있다. 위 조선왕조 기록으로 보면 같은 왜학끼리도 그 죄를 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조선후기 거제부(巨濟府)의 행정상황과 도민(島民)의 생활상

임진왜란 직후에 거제도는 7년간의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위치했던 관계로 피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사헌 홍무적(洪茂績)이 1615년~1623년 동안 거제도 고현동 유배 時에 다음과 같이 거제도를 읊었다. "거제(巨濟)는 영남(嶺南)의 대해(大海) 가운데에 있다. 섬 전체에 장독(瘴毒)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황량한 땅에 인적(人跡)도 드물다. 하늘을 뒤덮는 수풀과 늪지대가 광대하게 펼쳐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울창하게 우거진 황묘(黃茆)와 백초(白草)뿐 몇 십 리를 걸어가도 사람 사는 곳을 볼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고 여름에는 오랜 기간 장맛비가 내리기 때문에 각종 독사(毒蛇)와 독충(毒蟲)이 우굴거리는데 대책을 세워 조금 완화시켜 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토지가 척박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판에 올해는 또 흉년까지 겹쳤다. 그런데 내다 팔 재물도 없을 뿐더러 꾸어 줄 만한 곳도 없어서 죽을 끓여 먹어도 몇 사람 입을 대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늘 굶주린 기색을 띠고 있다."

17세기에는 임진왜란 후 다시 정묘·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의 인구 증가가 둔화되었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저하, 관리들의 탐학(貪虐)에 의한 군정(軍政)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거제현의 행정은 역사 이래 약70년 동안, 너무나 힘든 곤궁한 처지가 지속되었다. 읍치 고현성은 임진란으로 황폐화되었고 이를 재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근근이 주민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663년과 1664년은 영남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정부에서 굶주린 백성을 모두 구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남해 거제에 유배온 자들을 형편이 나은 읍에 참작해서 이배하게 하되, 그 중에서 그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 터전을 삼고서 이배되고 싶어 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소원대로 그곳에 그냥 두게 했다. 사실상 유배를 풀어 주고 터전을 일구어 고을의 일손을 덜어주도록 했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부터는 거제현(巨濟縣)에 면리제가 도입되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

려시대까지 존속하였던 거제현·군이 사등면과 둔덕면으로, 아주현과 고정부곡이 고현면으로, 송변현과 명진현이 서부면으로 다시 읍내면과 동부면으로 분화되었고, 하청부곡은 청하면(淸河面)으로, 죽토부곡 말근향 덕해향 연정장은 연초면으로 바뀌면서, 6개면(面) 120개리, 7진영 7목장의 체제를 갖추고 변방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후 1801년 이전에 고현면(古縣面)이 일운(一運)과 이운(二運)으로 분화되고, '읍내면,하청,연초,일운,이운,사등,둔덕면(河淸·延草·一運·二運·沙等·屯德面)'의 7개면 체제로 다시 분화된다. 다시 읍내면은 그대로 둔 채, 종래의 청하면(淸河面)의 명칭이 하청면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고현면의 분화는 각기 지세포와 옥포, 조라포가 면내에 자리 잡아 예전의 진하리(鎭下里)를 중심으로 인구의 밀집이나 생산 활동의 활발함이 반영된 소산으로도 여겨진다. 갑오경장 時 둔덕면(屯德面)에 속하였던 '한산도'가 그 인근 군소 도서를 묶어서 독립된 면이 되고, 연초면(延草面)과 하청면(河淸面)에서 외포면(外浦面)과 장목면(長木面)으로 떨어져 나옴으로써 '9개면(한산도 포함 10개면)'과 139리로 대폭 불어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거제도의 면리 편성은 이 시기의 개편이 그 골격을 이룬 셈이다. 그런데 이 무렵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당수 신설된 동명(洞名)도 있지만, 이운·하청·장목면에서 보듯이 옛 지명을 복구하여 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가) 1664년 거제읍치 이전 사유

조선왕조실록 현종5년(1664년) 3월 19일, 경상감사 이상진(李尙眞)이 치계하기를, "각 읍의 기민(飢民) 수가 통계 11만3438명인데 날마다 엄히 단속하여 각별히 구제하고는 있으나 지금 민간에는 극심한 춘궁기여서 뿌리박고 사는 백성이라 하여 기민 축에 끼지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 자는 그를 세밀히 골라내어, 으레 급여하는 8결을 기준으로 한 환자곡 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별도로 조곡을 계속 주고 있고, 병(전염병)에 걸린 자는 모두 4284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건량(乾粮)을 주어 그들 겨레붙이나 이웃에서 보살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기민 병민이 날로 불어나고 있어 앞으로 진구책을 계속하자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하니, 사안을 진휼청에 내렸다. 진휼청이 회계하기를, "기민과 병민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죽 먹일 거리는 계속 대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1664년 윤6월 5일 장계에 따르면, 감사 이상진이 바닷가를 두 차례 순시하며 그

곳의 물정과 사세를 가지고 통제사 및 수사·병사와 서로 의논하고, 또 각포를 차례로 살펴보고서 자기의 소견에 따라 조모조목 나열하여 치계하였다. 또한 1664년 윤6월 13일 장계에는, "신이 각포(各浦)를 차례로 순찰할 적에 바닷가에 사는 민생이 참으로 매우 측은합니다." 경상도 거제현(巨濟縣)은 물과 토질이 매우 나빠 병으로 죽는 관리가 많았다. 감사 이상진이 계문하여 "본 현(고정리, 고현성)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 명진촌(明珍村)으로 읍을 옮기자고 청하였다."

1664년 7월 4일, 이상진이 치계하기를, "신은 진휼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나라에 비축이 없는 것이 큰 걱정이 됨을 알았습니다. 진휼하는데도 그러한데 불행하게 병난을 만나 군량이 없으면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남쪽 변방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올 때 외적의 환이 있는 법이니, 절반씩만 저축하면 군량과 진휼에 있어서도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도 각읍의 진휼에 쓸 미곡에 대해 특명으로 세미를 견감해 주고, 주리고 병든 백성에게 받을 조적(환곡을 꾸어 주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도 모두 모곡(耗穀)을 면제해 주었다.

당시 영남해안 지방은 흉년과 질병으로 인해 죽는 자가 속출했다. 경상감사 이상진이 거제현의 백성을 구제하고자 지형이나 이해(利害)가 어떠한지를 살펴, 넓은 평야와 왜적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명진촌(거제면)으로 1664년 7월에 옮기게 됨은 대단한 변통(變通)에 속하는 일이었다. 또한 왜적의 공세에 대항 후 공세적인 측면에서, 수성과 방어가 용이한 지형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했다. 거제면은 초대통제사 이순신의 임기동안 한산도와 마주하여 그나마 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거제도를 포함하여 남쪽 변방을 방어하는 주현영보(州縣營堡)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검토한 것은 이상진의 소견이었고 그 결정은 왕명이었다.

(나) 1711년 거제도호부 승격 사유(事由)

1711년에 거제도호부(巨濟都護府)로 승격한 사유(事由)는, 1664년 가을 거제면 서상리로 읍치를 옮긴 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행정관청인 거제현과 수군 관할인 진영의 지역으로 구역이 나뉘어 끝없는 마찰이 생겼다(특히 부역과 세금 관계). 현령은 종5품이었고 수군만호는 종4품이라 거제현령이 거제도 전체를 관할

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는 최전방 변방의 관청과 군대의 이중적인 권력구조와 더불어, 고려말 거제행정 관청이 거창군 가조현에 있을 때, 수군진영은 거제도 본섬을 관장했던 역사도 한몫을 했다.

이에 거제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임진난과 병자호란 등을 겪은 후, 18세기 거제도는 해안 방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숙종30년 1704년 2월19일부터 1705년 12월까지 거제현령(巨濟縣令, 종5품)을 역임한 변진영 거제도호부사(巨濟都護府使, 종3품)를 승차(陞差)시켜, 1711년 5월25일부터 거제 초대 부사를 맡기게 된다. 그러나 거제도호부로 승격된 일은 관찰사의 장계 이전, "거제현(巨濟縣)은 동래(東萊)와 한산(閑山) 사이에 있고 내양(內洋)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므로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사(防禦使)를 두어 8진(八鎭)을 통괄하게 해야 한다는 1707년 거제 유학 '신수오(辛受五)'의 상소에 의해, 조정에서 오랜 검토 후에 내린 결정이며, 당시 거제현의 규모로는 도호부 승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는 우리 거제민의 희망이 이루어진 역사적 결과였다. 임진왜란 후, 거제의 해안 방위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었고, 거제현령과 각 진영의 만호가 각기 독립된 재정과 운영을 하고 있어, 거제도 전체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거제의 현령은 관직일 뿐, 섬 하나를 빙 둘러 배치된 8진(거제읍치죽림포, 지세포, 옥포, 영등포, 조라포, 장목포, 율포, 가배량(소비포))에 한가한 벼슬(만호, 권관 등)이 많아 권력이 나누어져 있었다. 거제부(巨濟府)로 승격시켜 "거제부사가 방어사(防禦使)가 되어 본 읍과 여러 진영을 모두 통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통제영과 전라도 왜적의 진출을 막기 위한 최고의 요해처임을 깨달은 조정의 결정이었다. 김해진관 소속 거제도호부(巨濟都護府)는 1895년 고종의 지방제도 개정 이전까지 약 184년 동안 지속되었다.

(다) 거제유배인 거제인의 생활상을 기록하다.

조선의 사대부 유배자는 인문학자이자 자연과학자이고, 낯선 곳에서 살던 경계인(境界人)이었다. 낯선 변방에 도착해 현지 주민과 교류하며 생활하다보니 그동안 기술하거나 관찰하지 않은 자연, 생태와 풍속 문화에 대한 충실한 관찰자이자 보고자가 되었다. 그들은 오늘날 한양이 아닌 다른 지역, 특히 궁벽한 마을이나 섬의 생태나 풍속, 역사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조선시대 거제 유명 유배인으로는 이행(李荇 1478~1534), 김세필(金世弼

1473~1533), 홍언충(洪彦忠 1473~1508), 정황(丁熿 1512～1560), 송시열(宋時烈 1607~1689), 김진규(金鎭圭 1658~1716),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조병현(趙秉鉉 1791～1849), 이유원(李裕元 1814～1888) 등이 있었다. 그 중에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 낙하생(洛下生) 이학규(李學逵 1770～1835),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은 거제면 읍치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제인의 생활상을 기록했다.

"거제도는 육지로부터 이주하는 유민이 많고 토착인은 많지 않다. 밤낮으로 바람이 배를 달리게 하여 왜인에 대비하고 여덟 진영이 한 섬에 빙 둘러 있고 백성은 대부분 물가에서 거주한다. 태평성대가 백년이나 계속되어 해안 경비가 필요 없고 이층 다락배가 오히려 절로 항구 앞에 늘어선다. 거제선비나 학자는 단순하고 거친 풍습으로 인해 많지 않다. 거제도는 집집마다 푸른 대나무와 배롱나무 꽃이 만발하고 누런 유자가 반쯤 익었을 때에는 아름다움을 뽐냄이 가득하다. 채소밭엔 섣달 달빛이 눈 속에서 새롭고, 섬섬옥수 청실을 여자아이에게 보내니 치마 걷어 매양 가슴에 끼워 놓고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른아이 없이 함께 시름만 같이 할 뿐이다. 바다 그물(고망)을 가로 세로로 해면에다 넓혀 놓으니 푸른 비늘 큰 입을 가진 물고기가 어장 속에서 돌아다닌다. 소는 풀어 놓고 흩어진 채로 기르고, 노루와 사슴을 소중히 여긴다. 담장을 만들려고 골짜기 골짜기마다 돌을 쌓고 비바람에 자나깨나 근심하고, 석양이 내릴 때까지 내려와 한가한 잠을 잔다. 양곡배가 겹겹이 바닷길을 덮고 내주(서남쪽 해안)로부터 소식 전하니 낮 동안은 서로 떠들썩하다. 지방관이 모두에게 땅을 나눠주니 물가 백성들이 존경하고 경서를 읽는 서생이 편안하여 자손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농사와 어업 외에도 감자농사에 힘쓰며 혹은 산 앞쪽 위에서 칡뿌리를 캔다. 마을 문은 열어놓고 사람이 다니도록 비워두며, 풍속은 조용하고 수확이 적어도 마음을 편안해 한다. 좋은 의복과 토삼으로 원기가 왕성하여 거제민은 풍토병을 가벼이 여기며 고향에서 늙어간다."

또한 거제는 바닷가인지라, 귀신을 많이 숭상한다. 마을마다 무당이 있으며, 음력2월이 효과가 좋다고 더욱 심하게 두려워한다. 그리고 대지(땅)를 위해 무당이 제사를 지낸다. 매양 큰 대나무를 가지고 다니며 낚싯대로 춤을 춘다. 신의(신에 의지)

라 말하며 사람들이 신과 함께 한다. 어부는 배 젓는 장대로 두 번 흔들어 빌고는 술잔을 들이키며, "신령한 바다뱀이 있어, 무사항해를 빌고, 또한 돛대로도 점칠 수 있다"한다.

더하여, 거제(裳郡) 백성 풍습으로는 쉬이 친해지기 어렵고 탐라(濟州)보다 누추하고 보배가 적다. 어리석고 완고하여 교묘하게 남을 속임이 이제 풍속이 되었다. 서쪽 통영을 보니 멀리 구름 사이로 배가 가는데 조릿대 같다. 익숙한 전투를 연연히 알고 있는 바가 오래되었다. 뱃가에서 시장을 여니 삼남에서 모여든다. 배 출입은 매서운 바람과 물때에 맞춰서 정박한다. 섬 둘레 고기잡이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며 넓고 아득한 바다 이곳저곳에는 한가할 틈이 없다.

무당과 박수가 떠들썩하게 잡가를 부르고 신당이 집집마다 관계하지 않는 곳이 없다. 비록 질병에 대해 말을 하더라도 모두 귀신에 씌었다 말하고 설령 곳간 창고가 있다 해도 모름지기 다시 채우지는 못한다. 늦가을 잘 익은 유자에 서리 내리니 대바구니에 가득 채워 서로에게 이어진 뱃길로 남양 큰 바다를 건너간다. 가라산 꼭대기에 에워싼 망대가 저녁 안개를 헤치고 봉화를 처음 올리기 시작한다. 한 점 무사히 전하고자 천리에 알리고 봉래궁궐 아래서도 의심치 않는다. 고래는 전설상의 교룡같이 큰 허물인데도 화살촉 띠를 두르고 마도의 바람을 좇아 바다를 떠다닌다. "굵고 검은 줄이 이어진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 통발로 둘러싸인 대나무 통이 제각기 다르니 어떤 때에 쓰려는지? 또한 노의 삐걱 젓는 소리가 잡구(雜謳)노래 같다. 밭에는 해조류로 거름 쳐서 고맙게도 수확이 넉넉하지만 금년엔 어찌 다시 세금독촉에 곤하지 않을까? 대나무 숲 갯가(죽림포)에 어린아이가 스스로 헤엄치고 있어 살펴보니 "물 깊이 들어가야 살찐 복어(전복)를 잡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목숨 걸고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데도 대개는 "고을 관아문의 권위를 위해 채찍으로 때린다"고 한다. 비릿한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습기 찬 구름 되어 고고히 뿜낸다. 남쪽 변방엔 자고로 일찍 죽는 사람이 많다. 찬찬히 살펴보면 거주민들은 흰털과 검은털이 적고 붉은빛이 많아 보인다. 항해 전에 운반선에서 배 젓는 장대로 두 번 빌고는 이별의 술잔을 들이키고는 선상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뱀이 있어 거래가 좋을꺼라" 하며 "돛대로도 점칠 수 있다" 한다. 그리고 이학규 선생이 19세기 초, 거제면 외간리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거제부민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

다. 거제부민의 갓과 의복은 물론 음식까지 중국 광동성 남방식 문화를 널리 애용하고 있었고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다. “갓과 의복을 보니 백월(중국 광동 지방)과 같을 뿐만 아니라, 천리 양락(양의 젖으로 만든 음식)의 추한 것에 웃으니 그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더냐.”[不翅若百粤之視冠裳 千里之笑羊酪者 幾數千秊矣]라고 적고 있다.

덧붙여 거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다. 잦은 왜구와 해적의 출몰로 인해 각 읍치성이나 수군진영 이문(里門)에서 저녁 10시를 전후해, 문지기와 야경꾼이 거제에서 흔하디 흔한 소라고동 나팔을 서너 번씩 연이어 불어 통행금지를 알렸다. 그리고 새벽 4시쯤에는 통행해제를 알리는 소라나팔을 불었다. 거제현민들은 이 소리를 기상시간으로 알고 일어나 일과를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야경꾼이 거리를 다니면서 성긴 소라나팔을 불어 안전한 잠을 청하도록 했다. 소라나팔을 나각(螺角)이라 한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장계에 따르면,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소라고동을 불어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하며, 각 진영마다 소라 부는 군인이 따로 있었고 공격수의 신호로 쓰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룻배나 전선이 상선(上船)하거나 발선(發船) 할 때나, 수군진영 훈련 때에도 어김없이 사용했다. "바다에 걸쳐 여러 진(鎭)이 설치되어 전선(戰船)이 수십 척이나 되는데 나각(螺角)을 불어 새벽을 깨우니 많은 병기가 쌓여 있다[跨海建鎭樓船數十尺鳴角警曉多兵有積]."는 거제부사의 옛 기록에도 나온다.

(라) 조선후기 거제부의 해세액(海稅額)과 재정 현황

거제도는 농지보다 어선과 선세(船稅)에 있어 다른 군(郡과 비교된다. 당시 18세기 말 거제도는 해읍(海邑)으로 분류되어 행상선 157척(선세 242냥), 어(염)상선 100척(200냥), 어선 3척(2냥), 어업보조선 119척(1008냥), 삼선(杉船, 792척 762냥), 광선(廣 船, 15척, 18냥), 노선(櫓船, 71척, 71냥), 통선(桶船, 69척, 76냥) 총 1,326척(2,379냥)을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해읍인 울산, 동래, 양산, 김해보다 높은 수치였다. 고성은 거제보다 조금 많은 1,397척(1,906)이나 통선 비율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성보다 높았다.

1894년 거제군의 해세액(海稅額)을 살펴보면, 경남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세 3,582냥, 곽세 328냥, 염세(염부수) 46(13좌), 선세 1,027냥, 어상선세 200냥, 행상선세 243냥 총 5,426냥으로 해읍과 낙동강연안, 도서지역 등을 포함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제도는 전세(田稅)보다 해세가 3%나 높았다. 따라서 해세문제로 세금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였다. 1895년 1월 10일 거제의 한 백성이 2천냥이 넘는 세금(해세)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주들만 살찌운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갑오년 재해로 민중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896년 7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거제의 백성들은 세금을 줄여주고 구휼미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1897년부터 1900년까지 대홍수로 인하여 흉작이 들고 궁핍해자 거제군에서 조세감면과 구제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각에 보냈다. 그러나 내각에서는 거제의 어·염·선세 2천80냥, 1894~96년 결호전(結戶錢) 중 미납된 6만 2100냥 등을 납부하라고 압박하였다. 결국 1899년 5월 진상하는 물고기를 중간에서 착복하는 일까지 일어나 내각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18세기 거제부의 시기결(새로 경작하는 전답에 매기던 결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논이 700결 미만(거제도 기준 420만평), 밭이 1천 2백여 결(720만평)인데 비하여 19세기에는 밭은 엇비슷하나 논은 7백 수십여 결로 적지만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몽리답(蒙利沓, 수리시설 경작)의 확대와도 연관이 될 성싶다. (거제인구 2~3만명, 전답은 관청에 등록된 자료 기준)

19세기 중엽의 영남 71읍 가운데 이른바 겨우 1천 결 내외의 토지를 보유한 잔읍(殘邑) 28읍 중 하나로 거제의 농업적 기반이 취약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삶의 터전을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제민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와 대동미의 분담에서 볼 수 있듯이 거제에 남긴 유치미(적치해 둔 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균세의 대종을 이룬 어염선세(어민에게 부과한 세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8~19세기에 영남의 해세 분담읍은 대략 32~35읍인데, 거제 1읍의 분담율은 1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때는 최다액을 부담하기도 했다. 물론 균역청과 통영에 납부하는 것이 주종을 이뤘지만, 그 외에도 궁방(宮房)인 명례궁(明禮宮)이나 감영에 획부된 액수나, 이서와 군교의 탐학을 고려하면 거제부민의 고역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외에 군역과 진공(進貢) 상납, 조선역(造船役)을 비롯한 각종

잡역의 부담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읍민들의 궁핍을 더욱 초래하는 요인들이었다.

○ 조선말기 거제부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액은 환가가 가능한 곡물이 쌀 1,713석, 콩 136석, 벼 253석과 보리와 합곡이 398석으로 모두 2,500여 석에 이른다. 돈이 9,879냥으로 이 무렵의 상정가(詳定價) 석당 3냥으로 환산하면 3,300석에 가까우므로 줄잡아 6천여 석 내외가 총 세입액이 된다. 이것은 물론 수납시의 공식적인 부대비용인 선가태가잡비(船價태價雜費)의 쌀 401석과 돈 945냥을 합산하면 훨씬 불어나게 된다. 어업 생산고가 다액을 차지했던 거제도의 현실적 여건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다시피 가격 산정이 어려운 다종다양한 상납물이 즐비하였고, 부세화한 환곡의 분담이 빠져있는 점과 관하 7진보에 따로 배당된 각종 부담과 잡역의 동원을 가늠하면, 엄청난 부담을 거제부민들에게 지우고 있었다. 중앙 재정 주무부서인 호조와 3청에 납부된 액수만 하더라도 엄청났다. 한편 병조와 중앙 4군영 및 2개 부서에 올린 각종 가포전(價布錢)은 다음에서 살필 군역 부담의 실제를 적절하게 보여준다. 1790년대 '지승지도 거제편'에는 원전답(元田畓)이 총 3007결(結) 82복(卜) 1속(束)이고, 쌀과 각종 잡곡을 합한 총 합작곡(合雜穀)이 17409석(石) 9말(두斗) 8도(刀) 5홉(합合) 9석(夕)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제도의 실제 수용비(需用費)를 다룬 항목인에서는 관수미(官需米)와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아녹위미태(衙祿位米太) 등은 19세기 말엽까지도 거의 고정된 액수였다. 이를 제외하고 가변성을 띤 세목 가운데 비중이 높은 것이 해세전의 십일조(十一條)와 각종 군보전(軍保田)이었다. 그 외에 둔세와 화전세가 일부 충당되었다. 19세기 말엽의 '거제부사례(巨濟府事例)'에 따르면 수용비는 쌀 196석 10두로 같은 액수인데, 해세십일조(海稅十一租)가 378냥 1전 6푼, 화전세가 쌀 80석 12두 2도 5홉으로 해세(海稅)가 가장 많았다.

15) 조선말기 삼정(三政)의 문란과 과도한 세금부담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삼정이 문란해졌다. 삼정(三政)의 문란(紊亂)이란,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田政, 토지조세)·군정(軍政, 군역의 부과)·환정(還政, 정부보유 미곡의 대여 제도)이 문란해졌음을 말한다. 부패한 수령과 아전, 토호들의 착취가 날로 심해져 정해진 금액 이상의 전세(田稅, 토지세)를 거두었고 각종 부가세를 징수하였다. 군정(軍政)은 장정이 직접 병역을 치르는 대신 군포(軍布, 삼베와 무명)를 내던 것을 말하고 환곡(還穀)은 본래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미곡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식(利息)을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었던 것이 후기에는 고리대인 "장리(贓吏)"로 변하여 그 폐단이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하였다. 특히 백성들은 부세운영과 부세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지만 관(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해결하고자 변통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후기 백성들은 전세, 군역, 환곡이 지방에서 징수되면서 지방의 부세관습과 폐단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19세기에 수군진영이 섬을 빙 둘러 있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변방의 거제지역민들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진상(進上)·요역(徭役)·왜선(倭船)·공궤(供饋)·군포전(軍布錢) 등의 항목에서 적지 않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었다.

● 한편 조선후기 거제도는 1744년(영조 20) 8월 황충의 재앙, 1770년(영조 35) 1월 익사나 불에 타서 죽은 사건, 거제봉산(封山)의 여러 번 화재, 정조 대의 기근 피해, 전국적인 현상인 지방수령의 부패와 농민들의 수난 등이 이어져 전통 신분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조선말기 거제민은 신분상, 일부 관노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중인 내지 양민의 지위였다. 섬을 빙 둘러 있는 수군진영과 그 가족은 모두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양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군역과 진상, 잡역의 부담이 지대했다. 또한 어촌 지역의 특성상 천재지변이나 어로 작업, 상업 활동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종종 벌어지곤 했다. 선인(船人)을 태운 채 큰 바람을 만나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마을에 태풍이나 불이 나서 마을 전체가 타 버린 일도 있었다.

○ 또한 연해 어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제도는 표왜인(漂倭民)의 지공(支供, 음식물 제공)과 더불어 거제부민에게 가장 큰 폐해를 안긴 것이 바로 조막지역(造幕之役 선박 건조 부역)이었다. 즉 도해선(渡海船), 훈국선(訓局船), 통영문(統營門)의 8전선과 해읍(該邑)의 1·2전선의 신조(新造 새로 배를 만듬)때 이장(耳匠 목수)과 사격(沙格, 사공과 격군)을 중심으로 한 인력 동원과 가용목(加龍木) 등의 선재(船材)의 운반은 그 몫이 지대하였다. 거제에는 아예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 또는 부역에 나가는 대신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들에게 걷어 들인 곡식 또는 기금을 보관하는 창고였던 보역창(補役倉)을 설치하여 이를 전담하고 있었다. 이미 18세기 말엽의 3진(옥포, 가배량, 장목)의 훈국선(訓局船)과 도해선(渡海船)의 신조고가전(新造雇價錢 배를 건조할 때 드는 비용)을 상당액 진졸(鎭卒 진영의 군졸)로부터 걷고 있었다. 조선(造船)을 위한 기본 재원은 읍재정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었지만, 나머지 선재 운반에서부터 잡다한 공정(工程)에는 다양한 명목의 부속 자재의 분담과 잡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거제 주민들의 고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군역(軍役)을 안고 있는 주민은 수군진의 운영을 위해 직접 군역을 지거나 운영비를 담당해야 했다. 또한 통영에 전복 홍합 등 각종 해산물을 현물로 납부해야 했고, 표류한 왜선(倭船)의 접대와 조선(造船 선박 건조) 부역에도 나서야 했다. 어업이 주된 생계수단이고, 군영을 옆에 두고 있었던 연해마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호전(結戶錢,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이 아니라 진상과 요역 등의 과도한 부과였다. 거제 어자원의 풍성함과 대일창구(對日窓口)로서의 지리적 이점 등은 일찍부터 거제민에게는 고질적인 폐단(痼弊)을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빈번한 표왜인(漂倭人)의 출몰과 체류에 따른 부대비용을 거제민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었다. 더구나 통영과 옥포진 등에 수시로 드나드는 연락 선박의 제공도 이들이 번갈아 가며 맡아야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 경상도 연안 주민의 일본 표착(漂着 표류하여 도착)의 경우에도 동남 연읍(흥해~부산포)을 제외하고는 거제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주로 어업 중이거나 상매, 유통 중에 빚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의 거

제 주민들은 상당수가 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확한 배의 제원(諸元)은 알 길이 없지만, 어떤 경우는 1인 또는 한 가구가 2척을 보유하기도 하였고, 협선(俠船)이란 소형선도 있었다. 또한 마을 단위의 선안(船案)이 작성되고 배의 관리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생업의 주된 방편이 바다였던 거제주민에게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였다.

조선시대 거제도에는 국유지 6개의 거제봉산(巨濟封山)이 있었다. 노자산 봉산, 가라산 선재 봉산, 구천동 선재 봉산, 반송치(지세포) 선재(船材) 봉산, 등산(登山 남부면 망산) 선재 봉산, 산방산 선재 봉산(封山)을 지정하여 관리했다. 1800년 전후에 편찬한 '만기요람'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6개의 송전(松田,솔밭)을 보유하여, 그 관리를 정부에서 엄중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산림을 보호 관리하는 '산임(山任)'이라는 관리까지 두었다. 그래서인지 선재(船材)감을 안은 다수의 봉산(封山)과 양호한 선소(船所)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거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선역(造船役)은 또 다른 과중한 부담을 낳았다. 선재 운반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18세기 초엽에 '보역창'이 설치되어 예운역가(曳運役價)가 지급되었지만, 19세기 후반에도 그 고역(苦役)은 여전하였다. 선안(船案,船籍)의 작성과 관리, 선세의 확보를 위한 포감(浦監)의 임무가 지속됨으로써 어업활동 외에도 원거리의 선상 활동도 활발했을 것으로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 최대 수군진영이 설치된 변방 거제부는 당연히 삼정(三政) 중에 군역(軍役)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록이 언급되어 있는데, 군영을 바로 곁에 두고 살고 있는 거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군포는 본래 군역을 진 자로부터 거두었으나 이  당시에는 호(戶)마다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세와 다름없었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군포전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했다. 이와 같이 지역민들은  19세기에  진상(進上)·요역(徭役)·왜선(倭船)·공궤(供饋)·군포전(軍布錢) 등 항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었고, 이에 마을집단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한편으론 지역민들은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과중한 요역(徭役) 부담에 대해 순찰사에게 글을 보내 억울함을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 그런데 이러한 부담에 대한 지역민들의 대응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계방(稧房)과 민고(民庫)의 운영이다. 계방이란 본래 조선후기 군역(軍役)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방법의 하나로, 삼남 지역에 두루 설치된 것이다. 계방에 참여한 부민(府民)들은 피역의 반대급부로 이서(吏胥)들이 요구하는 별도의 부담(관청의 운영비나 상급기관에 보낼 진상물 등)을 져야만 했는데 지방재정 수입원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민고와 유사성이 있었다. 계방은 리(里) 단위로 결성될 때는 리계(里契)로 지칭되기도 했는데 점차 군역뿐만 아니라 호역·결역·환곡 등도 면제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혁파의 대상이 되어 갔다. 거제민의 경우 이서(吏胥)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계방을 조성했다기보다는 거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계방이 될 것을 원했다. 이는 과중한 부담에 대한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제도는 대부분 어촌 마을인데다가 양반 지주가 거의 없다보니 전세(田稅) 부과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군역과 진상, 요역의 부담이 컸다. 계방촌이 되고자 한 것은 군역 부담을 피하고, 진상과 요역의 경우도 지방관아와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진행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일운면 항리(項里, 舊助羅) 호적 중초 기록 中]

이와 같은 과다한 읍민의 각종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생존의 활로로서 연계된 것이 당시에 일반화되고 있던 계방촌(契房村)의 존재였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관행화되었던 계방(契房)은 공역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일종의 제역촌(除役村, 병역이나 부역을 면제해 준 마을)의 하나였고 민(民)의 입장에서는 피역(避役 역을 피함)과 담세(擔稅 조세를 부담함)의 경감을 꾀했다면, 지방 관부(官府)에서는 열악한 재정 보전(補塡)의 방안인지라, 주로 각 부서와 이서층(吏胥層)이 이에 편승하여 취리(取利)를 도모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해 진상 품목인 전복, 홍합, 표고 등의 물납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동전(洞錢 마을 기금)의 증식을 꾀하였고, '무열고'나 '민고'의 운영은 그 대안의 일환이었다. 이미 19세기 처음 무렵에 각종 공용(公用)과 왜공의 민막(民瘼 민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열고(懋悅庫)'란 일종의 민고(民庫)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거제부(巨濟府) 『무열고절목(懋悅庫節目)』 >

『무열고절목(懋悅庫節目)』은 조선시대 거제부의 제반잡역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던 살림살이에 관한 시행지침 또는 규칙을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9세기 초 거제도에 어사가 친히 방문하여 그 내역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절목(節目)의 표본으로 삼아 계속 사용토록 한 것이 무열고(懋悅庫 1801~1807년)와 거제부보민고(巨濟府補民庫 1830년)이다.

19세기 초반 거제백성들이 해마다 바치는 곡식과 돈을 넣어 두던 창고(倉庫)인 '민고(民庫)'를 거제부에서는 '무열고(懋悅庫)'라 불렀다. 그리고 절목(節目)은 조선시대에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지침 또는 규칙을 나열한 조항인데 1801년 마련된 거제부(巨濟府)의 『무열고절목(懋悅庫節目)』을 보면, 당대 거제부의 민고전(民庫錢)은 고리대(高利貸) 뿐만 아니라 어업경영상의 이익으로도 충당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조(漁條) 35처(處) 중 최우등(最優等) 20처는 민고(民庫)의 1년 경용(經用 비용)에 충당하고, 15처를 판 돈은 취식(取殖 이익을 취함)하여 왜공두축(倭供斗縮 왜공의 부족분)과 각종 방역지자(防役之資 부역 대신으로 돈이나 곡식 등을 미리 바치던 재화)에 충당한다'는 구절이 그러하다.

그러나 무열고(懋悅庫)는 왜공결축(倭供欠縮 왜공의 부족분)으로 인한 민호백징(民戶白徵, 민가에 억지로 세금을 매기던 일)의 입본충수(立本充數, 환곡(還穀)을 가지고 사리(私利)를 취하여 일정한 수효를 채움)와 나졸, 관노(羅卒·官奴) 등의 공역(公役 군역 부역) 미비(糜費 낭비)를 못하게 막는(防給) 것이 주(主)가 되었다.

이같이 거제부(巨濟府)는 정부로부터 어조(漁條)를 획급(劃給 일정한 몫으로 떼어 줌) 받고 또 신결미(新結米 그 해 조세로 받은 결미(結米))를 분급 받아 이를 원본으로 고리대(高利貸)를 통하여 그 이전(移錢)으로써 각종 비용 및 잡역에 충당하였다. 특히 어조(漁條,漁隧) 15처의 가획(加劃) 문제는 ≪통영완문(統營完文)≫<규(奎)18941>을 통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획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 민고운영(民庫運營)의 방법, 설치 목적 및 설치후의 사정, 응역(應役)의 구체적 내역 등 민고(民庫)의 기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민고운영(民庫運營)의 기본 방법은 고리대(高利貸)이지만 어조(漁條) 중 일부로 매년(每年)의 경비에 충당하고 일부는 팔아 재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어업경영(漁業經營)의 수익도 재용에 충당함을 알 수 있다.

● 다음은 당시 각종 잡세항목의 혁파에 대해 알아보자. 1896년 6월 22일 관찰사 민기호(閔箕鎬)가 거제군수 이건록(李建祿), 사원주사(査員主事) 서봉년(徐鳳年)의 이름을 병기하여 일운면 항리(구조라)에 보낸 완문(完文)을 보면, 보역전(補役錢) 명색(名色) 등 각종 무명잡세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여기에서 폐지 대상이 된 기타 잡세 항목이 106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전까지 항리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과중했는지, 또한 그 항목들이 얼마나 잡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갑오개혁(1894~1896)과 광무개혁(1896~1904), 통감부(1906~1910) 시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수세 방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지만, 거제지역민들은 마을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여전히 이장(里長)을 중심으로 마을기금(洞錢)은 계속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조선말기 거제민의 생활상을 요약컨대, 고려·조선전기 거제인 중에는 문무과에 합격하는 이도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부터 변방출신의 차별로 인해 거제섬 출신들은 문무과 과거에 응해 입신의 꿈을 꾸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변방 연해민(淵海民)들에게 진상(進上)·요역(徭役)·공궤(供饋)·군포전(軍布錢) 등등 각종 조세를 강제 부과하여 주민의 고충이 실로 엄청났다. 그런 와중에도 거제관청의 아전들이 고을의 유력 유지로써, 유림과 더불어 최고 신분계층으로써 그 위세를 부렸다.

중인(양민)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거제도에,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신분질서의 혼돈 속에 재정이 넉넉한 집안에서부터 양반계급으로의 신분 상승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이전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충의나 공생, 유학(幼學)의 빈번한 등장과 부자간의 직역 회귀는 반상(班·常)의 중간 존재이거나 신분 상승이 천천히 시작되었음을 증명한다. 한편 거제유림들은 거제향교 반곡서원(1704년 창건) 등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약 200여년 동안 그나마 거제도 학통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 봉건시대 이 땅의 선조들은 과도한 조세의 부담과 관리들의 횡포에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다. 그 지긋지긋한 질곡(桎梏)의 사슬, 가난(艱難)에서 벗어나지 못해 궁핍한 삶을 지난하게 영위했다. 특히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패한 관리 지배층의 발호와 그들이 자행하는 횡포였다. 이는 불행하게도 시대를 초월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까지 이어진 고난의 인간사(人間史)였고, 시대마다 민중이 지배계층으로부터 받았던 수탈은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부여되는 질곡(桎梏)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삶의 의지를 잃지 않았고, 또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고 그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자신의 삶이 되도록 희망차게 걸어갔다. 게다가 암울했던 조선말기 이 땅의 거제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생존 의지를 가지고, 이웃과 서로 부대끼면서 끊임없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시련을 극복했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을 엿볼 수 있었다.

==========

6. 근대 사회의 거제시

1) 대한제국과 거제

19세기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이로 인한 농민항쟁의 확산 등 이전 체제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밖으로는 서양세력의 제국주의침략에 직면하고 있었다.

거제부는 높아가는 세금에서 쓰시마주의 외교사절단의 수발해야 하는 임무까지 재정자체가 파탄위기에 직면했다. 1875년에는 옥산금성 축성을 위해, 군민을 강제로 부역케 하고 거금을 갹출시켜 군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고종은 읍민의 부담과 부역을 강제로 동원하여 8개월 만에 읍성의 평지성 대신으로 수정봉에 산성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고 송희승 삼척영장(前 거제부사)를 체포해 오라고 의금부에 명령을 내렸다. 그의 죄목은 군교(軍校)의 첩지를 부정으로 징수한 일, 백성의 학대, 형벌의 남용 등이었다. 결국 송희승은 경북 풍기군으로 유배길에 올랐다. 이처럼 조선의 여러 문제점들 역시 거제부라고 피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거제는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행정구역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894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사회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세 차례 있었다. 갑오개

혁과 광무개혁 그리고 '시정개선'(1904년 8월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에서 출발한다) 등이었다.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지방제도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동래부 거제군이 되었다가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 전국 23부 13도로 개정될 때 경상남도 거제군(4등·군수 봉급 700원)으로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다. 이 때 면수는 읍내(동부·서부)·둔덕·사등·일운·이운·하청·연초·외포·장목·한산면 총 10개면 139개의 리였다. 그러나 1900년(광무 4) 5월 16일 통제영의 폐지에 따라 새롭게 진남군이 신설되고 거제군에 속했던 가좌도(현 가조도)와 한산도 부속도서가 편입되었다. 1909년 3월 13일 진남군은 용남군으로 개칭하면서 가조면을 독립하고, 같은 해 6월 25일 외포면을 폐지하였다. 거제군은 9개 면 156개의 리로 개편되었다.

군사조직 또한 통제영과 수군7진의 폐지로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각 진의 폐지 이후 진위대대(鎭衛大隊) 병력 600여명이 주둔하면서 통영의 행정적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거제와 고성군보다 높은 위치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거제군은 지방자치 조직으로 알려진 향회가 설치되었다. 이 조직은 면·리(또는 동)·통(統)의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말단자치단체는 향청(鄕廳)의 관장하에 놓여 있었다. 또한 면의 수장은 집강(執綱)·풍헌(風憲)이라고 불렀고, 그 밑의 조직은 이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동 또는 리는 5통을 위주로 하여 조선 초기에 설정 되었으나 후일에는 5통 내지는 30통으로 되었다.

거제의 향회와 함께 1906년 5월 26일 전국관찰사회의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해 "향약회를 개편하여 면회를 설치, 면장비용을 현민부담으로 하겠다." 결정하였다. 이로써 거제군에는 처음으로 면장 제도가 시작되었다.

또한 1907년 5월 4일 이토(伊藤博文) 통감부 총감의 제안에 따라 신설된 지방위원회는 1911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였다.[1] 지방위원회(세무서 관할)에 일본인 재무관과 보좌관 등이 포진되어 재정고문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각 구역 내의 위원의 정원은 7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명예직이었다. 그러나 지방위원들이 이를 일제에 협력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면서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1909년 8

1) 1911년 2월 1일부로 지방위원회 폐지와 동시에 각 군마다 참사관으로 대체하였다. 대부분 지방위원들은 군참사로 임명되었다. 참사는 도에는 3명, 군에는 2명을 각각 임명하였다(『경남일보』, 1911. 3. 28;『조선총독부관보』 1911. 2. 1).

월 23일 사세갑(司稅甲) 제2318호에 의해 '면장협의회규정준칙(面長協議會規程準則)'을 신설하여 지방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면장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거제군의 초대 면장들은 1910년 8월 11일부터 21명과 함께 용남, 진주, 창원, 진해 등지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2)]

(가) 송진포 방비대의 설치

거제군은 근대 행정기구로의 개편과 함께 외세의 침략에 맞서야 했다. 서구열강들은 대한제국을 비롯해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몰려들어 점령전쟁을 펼쳤다. 러시아는 거제군을 조차지로 삼으려다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일본은 마산포와 거제군을 군사적으로 점령함과 동시에 하청·동부면 일대의 광산까지 차지하려고 했다.

1903년 12월 28일 일본은 진해만과 거제도 일대에 '가근거지방비준비대'와 '진해방비대'를 파견하여 기지를 건설하도록 명령하였다. 1차 가근거지방비준비대는, 13명의 병사가 후쿠오카(福岡)에서 거제도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거제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외에 각종 막사 등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준비대는 병사(兵舍), 탄약고, 병원, 창고뿐만 아니라 궁농의 발전소, 관포 포대 등을 추가로 건설하였다. 죽림포 부근에는 이미 설치한 쌍근 포대 외에 병사와 탄약고 등을 추가로 건설하기도 하였다.

1904년 2월 20일 준비대는 방비대로 개편되었고, 1903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수력발전소, 포대, 신호소, 전등 등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3월 15일 진해만 일대, 5월 3일 죽림포만 일대, 5월 27일 통영만 일대의 수력발전소가 각각 완성되었다. 급조된 포대는 관포포대(3. 29), 광이도 포대(4. 8), 앵도포대(4. 9), 견내량포대(5. 28), 쌍근포대(5. 28), 한산항포대(6.7) 등이다. 신호소는 고현성(3. 7), 앵도(3. 31), 저도(5. 3), 가라산 무선전신소(5. 19), 한산도(5. 30), 가조도 옥녀봉(6. 4), 가조도(6. 4) 등이다. 전등은 앵도 심해(4. 18), 실리도심해(4. 19), 구영부근 심해(4. 24) 등이다. 방재(防材)는 송진포항구(5. 16 칠천도 방재를 폐하고 5. 18 완성), 하청만 서구(2. 11 부설하여 5. 21 철거) 등이 있었다. 일본은 이렇게 거제도 곳곳에 군사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자, 5월 27일 일본 함선 10여 척을 진

2) 『慶南日報』, 1910. 9. 29.

해만과 송진포 등지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 지역 주민들은 일본군의 폐해에 아무런 대응조차 못했는데, 그들은 일본군이 총칼로 무자비하게 휘둘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한다. 송진포 방비대가 1912년 4월 18일 진해 방비대로 이전되기까지 약12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조선을 강점하기 이르러 1912년 4월 경술국치 전후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나) 거제 활빈당과 일진회의 활동

대한제국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나선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과 결탁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진회라는 친일매국단체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전자의 세력은 활빈당이었다. 1901년 거제지역에서 활동하던 하원홍(河元泓)·엄주봉(嚴柱鳳)·조영두(趙永斗)·이병확(李秉確)·박기호(朴基浩)·장태윤(張泰允)·이용욱(李容旭)·김기현(金基鉉)·이성일(李聖日)·전칠봉(全七奉)·황후진(黃厚辰) 등 11명은 거제군에서 활빈당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한성 평리원(平理院)에서 재판을 받아 그 중 9명이 참형(斬刑)에 처해졌다.[3)]

또한 거제군수는 일진회 거제지부와 맞서 싸운 일도 있었으며, 반대로 자기의 욕심과 일진회 등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군수도 있었다.

윤상우(尹相佑·尹相泰, 1882～1942)는 1905년 3월 20일～6월 19일[4)]까지 거제군수로 재직하였다. 러일전쟁 당시 부임한 윤 군수는 거제도 일진회 지부와 결탁하기보다 싸운 인물이었다. 1906년 1월 일진회는 자기들과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조사하여 대한제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일진회의 결의문에 나온 여러 사례 가운데 윤상우 거제군수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진회는 "거제군수 윤상우가 진남출주대(鎭南出駐隊)와 결탁, 음모하여 거제

3) 「九名斬刑」, 『皇城新聞』, 1901. 8. 28.

4) 『官報』, 光武九年 四月 五日, 光武十年 六月 二十二日. 윤상우는 경북 달성 출신이며, 1911년 慶南 高靈에서日新學校를 설립하여 항일구국교육에 힘쓰고 1915. 1. 15(음) 경북 달성군 壽城面 安逸庵에서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를 조직하고 統領에 선임되어 1919년 卞相泰로 하여금 경남 昌原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케 하였으며 上海臨時政府에 軍資金을 지원하는 한편 유림들의 「巴里長書」를 영문으로 번역케 하고 5천원을 여비로 제공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어 옥고를 치뤘다. 1991년 정부로부터 애국장을 받았다.

일진지회(一進支會)를 몰아내고 다른 자들이 이들과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진회 총대 이행민(李行敏)이 내부(內部)에 청원하였는데, 거제군수 윤상우가 불법행정하며 탐욕스럽게 돈을 모으고, 회원이 관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관리 30여 명으로 회원을 몰아서 내쫓고, 회원 옥태일(玉泰一)과 이순성(李順成)을 잡아서 관찰부에 넘겼다고 지회장 손석만(孫錫萬)이 보고했다고 말하였다.[5]

다시 말해, 윤상우 군수가 일진회 거제도지회의 회원과 단체 활동 등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행정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일진회는 대한제국 내각에 고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진회 거제도지회 지부장 손석만, 회원 옥태일·이순성 등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진회의 계략으로 1906년 6월 18일 윤상우가 춘궁기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꾸어준다면서 둔덕, 사등 두 곳에 쌓아 둔 조세 곡식을 실어다가 모두 팔아버렸다고 거제군 파원(派員, 파견원) 임영하(林永夏)가 보고하여 조사해보니, 막중한 공곡을 경리원의 명령 없이 멋대로 팔아버리는데도 별반 징계가 없으면 각 군이 모두 이렇게 하여 곡식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바, 경리원에서 즉시 명령하여 해당 곡식을 수조관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완강히 가로막고 있는 바, 거제군수 윤상우를 폐하께 아뢰어 면직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경리원은 내부대신 이지용에게 보고하였다.[6] 이 모함에 윤 군수는 1906년 6월 19일 파면되고 말았다. 그러나 1906년 9월 29일 윤 군수는 잘못된 징계라고 해벌되었다.[7] 일진회가 윤상우 군수를 쫓아내기 위하여 술책을 벌였던 일이다.

반면에 윤상우 군수와 다르게 일진회나 민중들의 재산 등을 탐하여 승승장구한 인물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교승과 고희준 거제군수다. 이교승(李敎承)은 1906년 6월 19일~10월 9일 거제군수, 1906년 9월 8일 경상남도 진해만 군항지(軍港地) 조사위원[8]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윤상우 후임으로 부임하여 뇌물사건에 연루되었다.

---

5)「一進請願」,『皇城新聞』, 1906. 4. 25.
6) 宮內府 經理院 編,『公函存案』(奎 20312), 光武十年(1906).
7)『官報』, 光武十年 十月 四日.
8)『官報』, 光武十年 六月 二十二日, 光武十年 十月 十六日, 光武十年 十月 十三日.

1906년 경남관찰사 조민희(趙民熙)는 내부(內部)로 보고하기를 거제군 일진회 사람(巨濟郡一進會民)의 빼앗은 돈과 사사로이 가둔 평민을 궂은일의 가엾은 정황(情況)을 벌일 일과 거제군수 이교승의 탐욕으로 모은 돈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9] 웅천군수 윤영옥(尹榮鈺)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나 제대로 끝내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았다. 다시 진해군수 정해팔(鄭海八)은 두 사건을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0]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웅천군과 거제군은 항만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양군의 군수들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웅천군수 윤영옥을 옹진군수로, 거제군수 이교승을 영평군수로, 영평군수 서상붕을 광양군수로 서임함), 특별히 선발된 인원들을 대신 서임(전 참리관 신석린을 웅천군수로, 탁지부세무관 고희준을 거제군수로 서임함)하였다.[11] 이 시기부터 친일내각으로 구성된 대한제국 내각은 일제의 요구에 따라 진해만 일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친일적 성향의 군수들을 임명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행정과 치안 등은 통감부의 손으로 넘어가고 을사늑약과 일진회의 협력으로 경술국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거제군은 천혜의 자원인 명례궁 어장이 일본어민들에게 빼앗기고 있었다.

2) 일제강점기와 거제

(가) 대한제국 명례궁 거제어장

거제지역의 어장은 왕실이 직접 경영해 운영되었다. 능포 일대의 대구어 어장을 비롯한 9개소의 어장은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거제도에서 가덕도에 이르는 대구어(大口魚) 어장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되었음이 각종 역사기록에 남아있다. 1510년 삼포왜란 전에도 대구 어장에 왜구가 불법으로 들어와 연안 어부들과 마찰이 많았다. 우리 수군들이 어장을 지키느라 애쓴 흔적이 사료 곳곳에 남아있다(조선왕조실록). 또한 1676년(숙종 2) 8월 21일 비변사는 예전 아양 관송리의 대구어장의 소유권문제를 두고 통영과 분쟁을 일으켜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숙휘공주방이 옥포진의 관송이(예전의 아양리 관송)의 대구어장을 침탈하였다. 통

9)「晉察查報」,『皇城新聞』, 1906. 6. 10.
10)「一贓兩查」,『皇城新聞』, 1906. 6. 20.
11)「奏本」 제525호(奎 17704).

제사는 비변사에 옥포진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숙종은 수군을 정비하는 일이 긴요하기에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면 통제영에 되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이 지역의 대구어장이 수군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78년(정조 2) 11월 20일 대구어는 돈으로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12] 대구어는 지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유명한 능포를 비롯한 진해만 일대의 어장은 일본에서도 침탈하려고 하였다. 1876년 개항과 더불어 거제와 진해만 일대는 일본어선들로 붐볐다. 결국 거제도·진해만 일대의 어장은 일본인의 마구잡이 어로활동으로 청어와 대구어가 매년 점점 줄어들었다. 주요 원인은 기선의 왕래, 군함의 출입 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01년 12월 진해와 거제 일대에서 대구어 50만 마리를 잡았으나 예전보다 적다고 한다. 이처럼 대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문명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마산과 진해만, 거제도 등지는 러시아, 일본 군함들이 자주 정박하여 기름유출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었다.

또한 능포 일대의 대구어장은 의친왕궁에 부속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1906년 8월 궁내부는 경상남도 웅천과 거제의 대구어장, 함경남도 영흥군 연어 어장을 모두 의친왕궁에 부속시켰다. 의친왕궁에서 관리하게 된 양 지역의 어장에 대하여 내각은 거제와 웅천 군수에게 훈령을 내렸다. 1906년 8월 11일 대한제국 내각은 이교승(李敎承) 거제군수와 윤형옥(尹瀅鈺) 웅천군수에게 공문을 보내어 "본군(거제·웅천) 소재 모든 대구어 어장을 지금부터 의친왕궁에 부속하여 조세를 거두는 일(收稅)을 맡아서 다스리게(句管)하라는 의향을 받았으니, 해당 어장 사람들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궁감(宮監, 세금을 걷으려고 각궁에서 보내던 사람)이 폐해 없이 수납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13]

이처럼 대한제국에서 유명한 대구어장이 의친왕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친일내각과 통감부 손에 들어간 대한제국은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의친왕에게 넘어간 대구어장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인 손아귀로 넘어갔다. 명색이 황실에 부속되어 있었으나 실제론 일본인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침탈하고자 을사늑약(1905. 11. 17)을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모든 실권을 장악한 일본

12) 『正祖實錄』 正祖 6권, 2년(1778 戊戌) 11월 20일(丙午) 1번째기사.
13) 『訓令照會存案』 제76책(奎19143), 1906. 8. 11.

은 내각을 친일인사로 구성하고 정치·경제·문화 등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때 거제 등지의 대구어장은 의친왕궁에 부속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일본인에게 대부를 내주게 된다. 러일전쟁 당시 군납품으로 조선으로 들어온 카시이겐타로(香椎源太郎)는 1906년 8월 29일 농공상부는 통감부의 요청대로 의친왕부 소유인 가덕도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대구어 어장을 20년 동안 대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시이(香椎源太郎)에게 대부하는 대구어장은 기한을 20년, 금액 1만5천원으로 매년 3월 30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어획을 매년 8만환 정도로 하고, 매년 의친왕궁에서 조사원을 파견하여 어획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시이(香椎源太郎)는 어구, 어법, 어장 등을 개량할 때 모두 자부담하고 20년이 지나면 모든 어구 등을 헌물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어장은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단 의친왕궁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경우에는 제외하였다'라고 단서 조항을 넣었다.

카시이는 능포를 비롯한 8개소 어장을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소유했다. 해방 이후 능포를 비롯한 거제지역의 어장 8개소는 거제도현민위원회 산하 거제어민조합에서 관리하다가, 1948년 1월 7일 국책 회사 거제수산주식회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거제수산회사는 여러 번의 비리사건과 경영악화로 해산되었다. 그 이후 9개소 어장은 개인에게 매매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일본어업 이주촌 형성과 어장침탈

1867년 부산포의 개항으로 마산포, 진해 등지의 어항이 열리게 되자 진해만 부근의 거제, 고성, 통영 등지도 개항이 쉽게 이루어졌고,[14] 경남 지역의 수산업(어장, 어구, 노동력 포함)의 이권도 자연스럽게 일본 어업자본가들이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국책사업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한 것은 식민지 지배구축과 치안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인적 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시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1883년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 제41조에 의해서 연안 어장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기에 이르렀다. 통영민중들은 일본 어민들의 집단이주로 기술과 기계화에 밀려 어장을 침탈당해야 하는 운명을 겪어야 했다.

14) 일제는 진해 지역을 일본해군함대 전용지로 매입하면서 대마도와 가까운 거제도 지역까지 해군기지로 삼고자 했다.(일본외무성, 「일본외교문서」 ,1900, 제32항 49-100,579) 또한 러일전쟁 후에는 거제도 전지역을 군요지로 사용하는데, 연초면 명동, 이목외 2개지, 송진포, 동부면 갈곶리 등으로 침탈당했었다. 山脇重雄, 『馬山浦事件』 中, 1905, 조선헌병사령부 경상남도 사령부, 139~150쪽 참조.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어민의 조선 진출 제한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15] 조선 연안의 어로 활동을 제한한 법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무효화되었고, 일제는 조선 전 연안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쳤다.

조선 연안에서 어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1900년 5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가 설립되어 일본어민의 조선 이주가 적극 추진되어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 이주어촌은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는 '보조이주어촌'과 어민의 임의 이주인 '자유이주어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1876년 이후 장승포와 능포 지역은 일본인의 어업기지로 알려져 계절마다 대 어선단을 조직해 거제도와 진해만 일대에서 대구어나 멸치, 청어 등을 어획하였다.

장승포의 거주지는 촌장 이리사(入佐淸靜)의 이름을 따서 '이리사촌(入佐村)'이라고 불렀다. 1907년 현재의 부산세관 다니모토(谷本雄松)가 조사한 이리사무라의 인구는 58가구 226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장승포 거주 한국인은 80가구 380명이었다. 이리사무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대부업자 1명, 잡화 겸 목욕탕 1명, 주조업자 1명, 잡화 및 항해업 7명, 수산물 건조업 1명, 포경업 3명 등이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전복, 고래, 메기, 멸치, 해초, 대구어 등을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고래잡이는 총을 이용하여 사살하는 방식으로 포획하였다. 고래잡이 수익은 1년 동안 약 2만5천원 정도였다. 잠수부들은 전복과 해초 등을 채취하였다. 어선은 한국인(장승포·능포) 8척, 일본인 25척, 생해선(生海船) 3척, 모선(母船) 5척을 보유하고 있었다.[16]

또한 일본식 주택의 1개월 전세는 1동에 15원, 온돌 3원이며, 1인당 1개월 식비는 상등품 30원, 중등품 20원이며, 장승포와 송진포 간의 도로도 개설되어 있었다. 기선의 운임은 장승포-부산간 2등실 1원·3등실 60전, 장승포-마산간 2등실 80전·3등실 50전, 장승포-통영간 2등실 20원·3등실 1원50전, 장승포-삼천포간 2등실 2원50전·3등실 1원80전이다. 주요 관공서는 일본회(1907. 5 조직, 회비 308원, 1가구당 평균 50원40전 부담), 이리사우편취급소(入佐村郵便取扱所, 1904. 12. 1, 1개

15) 일본어민의 조선진출 제한법은 「한일통어장정(韓日通漁章程)」(1889년 11월 12일)이 시행되면서 해소되었다. 일제는 조선통어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일본 내 「한해통어조합(韓海通漁組合)」을 결성하였다. 거제도를 대상으로 한 한해출어단체는 장승포, 나조도, 지세포, 구조라 등을 대상으로 12개 조합에 의해 추진되었다.

16) 度支部, 앞의 책, 4~6쪽.

월 송금료 566원38전, 저금 99원50전), 이리사심사소학교(1908. 7. 1 개교, 훈도 1명·여교사 1명·아동 40명·출석자 38명), 이리사수산시장조합 1곳(1907. 4 인가, 매년 885원 수익), 이리사순사주재소(1906. 6 설립), 이리사촌어업근거지감독사무소(1906. 12), 이리사심상고등학교(1908. 7. 1), 동본원사 장승포출장소(1907. 10), 장승포 헌병파견소(1915. 3. 1), 콘피라신사(金刀比羅神祠, 1907. 10) 등이 생겨났다. 특히 이리사촌과 장승포, 능포항 일대에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2백여 척의 어선과 2천여 명의 어민들로 모여든 곳이었다.

1905년 12월 후쿠오카(福岡), 에이히메(愛媛), 와카야마(和歌山), 도쿠시마(德島), 나가사키(長崎) 등지에서 17가구가 이주하고, 개촌 당시의 규모를 보면, 주택지 약 1,900평, 망간장(網干場)으로 간척지 2,400여평, 채원용(菜園用)으로 원야 36,000평을 매수 하였다 한다. 해안에는 연장 120간(약 216미터)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어사(漁舍)를 건축하였다. 또한 수산물 판매소, 감독사무소, 수산물제조장 등을 추가로 건설하였다.[17]

1914년 1월 현재 「내지인어업자이주어촌조사(內地人漁業者移住漁村調査)」[18]에 의하면 이리사촌의 일본인 어민의 인구는 152가구호 641명으로, 조선의 9도 59어촌(단체이주 15촌), 980호 3,900명 최대의 어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1921년 말에는 138가구 약 700명이며, 그 중 어업자가 73가구이고 상업이 37가구이며, 그 외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리사촌은 고등어건착망어업의 발상지로 되었으며, 남선(南鮮) 최대의 고등어 어업근거지가 된 것이다. 최고 풍어기에는 장승포항에 들어오는 건착망, 전망은 약 100통, 어선 500척, 종업원 4,500명, 선어운반선으로 기선 140척, 범선 150척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주어촌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 어업자본의 통어가 성황을 이룬 것이다.[19]

1889년 구조라에 일본 어민들이 들어와 근거지로 삼았고, 1893년 5월 에히메(愛媛) 이요우시마촌(魚島村)의 두 명이 처음으로 임의 이주하여 멸치 어업경영을 시

17) 吉田敬市, 앞의 책, 261쪽.
18) 조선총독부, 『朝鮮漁業曆』(1914), 321-328항 참조.
19) 당시 거제도 연안에서 어획한 생산물은 滿洲, 旅順, 大連, 일본 東京, 京都, 大坂, 關東 등지로 수출했다.

작하였다. 같은 해 오카야마(岡山)의 새우제조업자가 권현망(權現網)을 시작하여 1895년 이주하였다. 1907년 일본인회를 조직하고 1912년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항만도로를 만들었다. 이 당시 고등어의 풍어로 어업자 36가구 3백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조라는 장승포의 이리사촌(入佐村)의 성장의 영향을 받아 발전이 주춤하기도 하였다. 1913년 에히메현 원양어업딘연합회에서 1,500원을 투입하여 부속건물 1동을 건립하고 1914년 3월 어업자 42가구를 모집하여 그 중 어업자 12가구, 멸치 고등어 건착·권현망 등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고등어어기에는 어선 3백척 내외, 동력운반선 25~26척이 들어왔다. 이후 효고(兵庫)·오카야마(岡山)·돗토리(烏取)·야마구치(山口)·사가현(佐賀縣)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였다.[20]

또한 1915년 현재 구조라에는 57가구 184명이 이주해 왔으며, 구조라 심상소학교조합, 구조라심상소학교, 구조라헌병출장소 등이 있으며, 1913년 에히메현(愛媛縣) 이주어업근거지로 설정한 이후 반농반어적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인 어업자들이 계속 증가하여 약 400명에 이르고 있은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 어업자 10가구, 상업 15가구, 대공(大工) 2가구, 통직(桶職) 2가구 회조업(回漕業) 1가구, 요리집 2가구, 음식점 1가구 이발업 1가구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21] 1920년 말 현재 구조라는 56가구 304명이 거주하고 연 어획고 750,000원을 올리고 있었다.[22] 그러나 1922년 말 현재 구조라에는 27가구 121명(남 68명, 여 53명)[23]으로 1920년과 비교하여 29가구와 183명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승포 이리사무라로의 흡수, 와현, 지세포 등지로 분산되거나 일본으로 철수함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료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24]

구조라와 비슷한 지역인 지세포는 일본인 정주어촌으로 성장한 곳이다. 지세포는 조선초기부터 쓰시마 어민들이 대거 몰린 곳이다. 1897년 구조라에 있던 에히메현 이요우시마촌(漁島村) 출신인 요코이(橫井米治)가 처음으로 이주하여 멸치어업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같은 현의 히요시(日吉組), 야마구치(山口縣)의 柊繁(柊繁眞一), 나가사키(長崎) 사람 등이 임의로 이주하였고, 1906년 강가와(香川縣)수산조합이 이주 어업자 30가구를 건설하였다. 다음해 10가구를 추가로 이주시켰고, 1908년

20) 農商工部水産局, 「朝鮮主要移住漁村年表」, 『韓國水産誌』 1집, 1908, 464쪽.
21) 山本精一, 1915, 앞의 책, 120쪽.
22)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ろ內地人』 調査資料第二輯, 1923, 149쪽.
23)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ろ內地人』 調査資料第二輯, 1923, 9쪽.
24) 그러나 1920년과 1922년 사이 약 3년 사이에 급격하게 가구와 호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료상의 오류인지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인구가 183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1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1913년에 3년 동안 매년 2,500원을 지출하고, 이주자 강가와현에게 경영을 위임하였으나 성적부진으로 사업을 중지하였고, 1914년 강가와현 조선해수산조합의 경영으로 돌아갔으나 이것 역시 실효되었다. 또한 강가와현에게 위탁할 때의 위임장을 가지고 경지를 구입하여 어장, 어업권, 건조장과 지세포 1만정보로 반농반어하게 되었다. 이것을 강가와무라(香川村)라고 하였다. 1911년 돗토리(烏取)현수산조합도 이 지역에 이주어촌 근거지로 삼고 이주자 39가구를 지주시켰다. 인근 이리사무라(入佐村)의 발전에 눌려서 3년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 1920년 이주자 32가구 150명, 그 중 어업자 8가구, 어부 10가구, 대부분 강가와(香川)·에히메(愛媛) 지역의 출신들로 멸치어업만을 하였다.

지세포는 1915년 현재 16가구 315명으로 직업별로 어업 32가구, 농업 2가구, 상업 5가구, 공업 기타 6가구이며, 학교조합, 소학교, 우편소 등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부산방면에서 구조라, 거제읍내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수하여 완성되었다.[25] 1922년말 현재 지세포 강가와촌에는 31가구 1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 어획고 133,000원을 올리고 있었다. 이 시기의 장승포 이리사무라는 134가구 693명이 거주하고 연 어획고 164,625원을 올리고 있어 지세포나 구조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26]

한편 구조라와 지세포 등지에서 어획된 어류는 장승포조합어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이 어시장은 1907년 2월에 개설하여 자본금 1만원으로 시작하였고, 각종 해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매일 1회 이상 개시하였다. 또한 계절마다 어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거제도 연안, 구조라, 지세포, 옥포 등지에서 어획된 어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일부 어류는 부산이나 마산포로 운반하여 판매하고 있었다.[27] 구조라에서 어획된 어류의 매상총액은 다음과 같다. 2월의 도미(鯛)는 128원, 방어(鰤) 83엔, 10월의 도미 31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다. 지세포에서 어획된 어류의 매상총액은 다음과 같다. 3월의 도미는 158엔, 8월의 농어(鱸) 65원, 도미 71원, 9월의 농어 43원, 도미 31원, 갈치(刀魚) 25원 등이다.[28]

교육시설은 구조라공립심상소학교가 1910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14년 3월말 현재 학교에는 학생 31명(남 17명, 여 14명)이고, 출석률 95.63%, 퇴학자 1명, 훈

25) 山本精一, 1915, 앞의 책, 121쪽.
26)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ろ內地人』 調査資料第二輯, 1923, 149쪽.
27)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1집, 1908, 412~413쪽.
28)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1집, 1908, 413~419쪽.

도 1명이었다. 지세포공립심상소학교는 1908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학생 21명(남 10명, 여 11명), 출석률 93.92%, 3학년기 중 입학수 1명, 훈도 1명이었다.

또한 기존의 일본인회가 해산되고,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학교조합은 1906년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의 발포되었고 1914년 부제가 실시되면서 일반 공공사무는 부·군·도(府·郡·島)에, 교육사업을 학교조합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교육과 행정자치를 담당하였던 일본인회는 해산되었다. 반면 조선인의 교육을 위한 학교비(學校費)는 1920년 제령 14호로 조선학교비령이 발포되어 부군도 단위로 조선인의 교육을 위한 학교비가 세워졌다.

구조라학교조합은 1910년 7월 19일 고마다(兒玉長次郎)가 관리자로 선임되면서 설립되었고, 1915년 4월 현재 시쯔다(實田寅一)가 관리자로 있었다. 학교조합에 가입한 가구와 인구는 57가구 184명(남 96명, 여 88명)이며, 조합비 484, 국고보조 601, 기타 103원으로 총 1,188원이고, 교육비·사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이 조합은 학교조림에 나섰는데, 1914년 12월 말 현재 총면적 290정보, 식재면적 100정보, 본수 450본, 소나무·상수리나무·밤나무 등을 심었으나,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불량하여 실패했다고 한다.

지세포 학교조합은 1910년 8월 20일 설립되어 초대 관리자 타니와(丹波嘉)고, 1915년 4월 현재 시다(自田金五郎)이다. 이 학교조합의 현황을 보면, 가입자 46가구 207명(남 250명, 여 65명)이며, 조합비 282원, 국고보조 564원, 기타 44원 총 890원으로 교육비·사무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학교조림사업은 총면적 1,591정보, 직재면적 92정보, 3천본, 흑송(黑松)을 심었다.[29]

그 외 구조라와 지세포에는 헌병출장소, 지세포우편소 등이 설치되었다. 지세포우편소는 1912년 3월 16일 설립되었고, 사무실 총 6평으로 우편, 저금, 세입출금 등을 수령하였고, 매년 보통우편 81,155통, 소포 103개 등을 배달하였고, 소장과 사무원 각각 1명, 우편부 6명, 체신부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설립 당시 1912년 현재 지세포우편소 관할구역의 인구는 지세포 내에 조선인 157가구 965명(남 493명, 여 472명)이고, 일본인 47가구 343명(남 260명, 여 83명), 지세포를 제외한 지역에 조선인 330가구 1,710명(남 819명, 여 891명), 일본인 38가구 322명(남 265명, 여 59명)이었다.[30]

---

29) 山本精一, 1915, 앞의 책, 18~19, 67~69쪽.
30) 郵便局, 『郵便局所要覽』, 1912, 307~308쪽.

1916년 5월 10일 현재 지세포 우편소는 1913년 11월 11일 전신 및 전화 통화를 개시하였고, 보통우편 35,774통을 배달하였고, 전신 1,435통이며, 전화는 85도수였다. 그 외 직원과 배달부 등은 1912년과 동일하며, 인구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31)]

1905년 에이메현(愛媛縣) 하찌아(峰谷源吉)는 칠천도로 입도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하찌아촌(峰谷村)을 건설하게 되었다. 1909년 6월 에이메현 보조이주어촌으로 학교조합을 설립하였다.[32)] 1905년 74 가구에 인구 306명(남 174명 여 132명)으로 대규모로 주로 어업과 부업으로 농업으로 생업을 영위했다고 한다.[33)]

1907년 에이메현 오치군(越智郡) 미야쿠보촌(宮窪村)에서 2세대 9명(남 7명 여 2명), 1908년 같은 마을에서 4세대 17명(남 11명 여 6명), 아라이군(新居郡) 사이죠촌(西條村) 주민인 8세대 32명(남 20명 여 12명) 이주해 왔으며, 1910년 미야쿠보촌(宮窪村) 주민인 3세대 9명(남 5명 여 4명)이고, 1911년 미시마촌(三島村) 주민인 4세대 20명(남 10명 여 10명) 등이 이주해 왔다. 또한 에이메현(愛媛縣) 원해출어단체연합회(遠海出漁團體聯合會) 보조를 받고 칠천도로 이주해 온 주민들은 다음과 같다. 1906년 미야쿠본촌(宮窪村) 주민인 2세대 9명(남 2명 여 7명), 1907년 같은 마을 주민인 2세대 11명(남 7명 여 6명), 1910년 미시마촌(三島村) 주민인 4세대 19명(남 10명 여 9명) 등이 이주해 왔다.

또한 일본인 이주민들은 주로 봄에 왔다가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정착하는 형태로 나누어졌고, 그들은 신사(神社)나 혼간지(本願寺) 출장소, 우편소, 공립심상보통학교 등을 설치하였다. 또 칠천도청년단을 설립하여 36명 정도 회원을 거느리면서 입영환송, 나환자 구제, 회원친목도모, 도로보수, 임야 정리 등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교통은 진해환(鎭海丸)으로 33톤급 정도이며, 매일 마산, 진해, 송진포, 하청, 칠천도 하찌아촌(峰谷村)을 거쳐 성포까지 운행했다.

1921년 어민들은 어업자 25가구, 어선수 83척, 어획고 261,500원, 1가구 어획고 10,460원, 어선 1척 당 어획고 3,151원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34)] 주로 일본 어민들은 멸치업자들로 멸치잡이 시기가 끝나면 일본으로 귀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

31) 郵便局, 『郵便局所要覽』, 1915, 324~325쪽.
32) 조선수산회 『朝鮮主要移住漁村年表』, 471쪽.
33) 조선수산조합 『수산통계요람』(조선부산조선수산조합), 1914, 78~89쪽.
34) 경상남도,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경상남도, 1921.

부 어민들은 금곡과 옥계에 거주했다. 또한 1921년 당시 하찌아촌의 직업분포 상황을 보면, 어업자 46세대(177명)이고, 상업자 1세대(4명), 기타 8세대(26명) 총 54세대 207명이었다. 그 외 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거제지역의 일본인 이주촌 현황

| 이주지 | 창설년 | 이주어촌형태 | | 호수 | 인구 | 학교조합 | 공공시설 | 출전 |
|---|---|---|---|---|---|---|---|---|
| | | 자유 | 보조 | | | | | |
| 입좌촌 | 1904 | - | | 142 | 594 | 0 | 0 | ① |
| 외포리 | 1909 | 0 | - | 7 | 42 | | | ① |
| 대금리 | 1909 | 0 | - | 2 | 4 | | | ① |
| 지세포 | 1897 | 0 | | | | | | ② |
| 송진포 | 1912 | - | | 28 | 138 | 0 | 0 | ① |
| 관농리 | 1909 | 0 | - | 5 | 14 | | | ① |
| 농소리 | 1909 | 0 | - | 5 | 19 | | | ① |
| 봉곡리 | 1905 | 0 | - | 74 | 306 | | | ① |
| 방어진 | 1905 | 0 | | 208 | 755 | | | ① |
| 구조라 | 1893 | 0 | - | | | | | ③ |
| 성 포 | 1894 | 0 | - | | | | | ③ |

출전 : 朝鮮水産組合, 1914, 『水産統計要覽』, 78~89쪽<출전①>, 吉田敬市, 1959, 『朝鮮水産開發史』, 463~479쪽<출전②>, 慶尙南道, 1921, 『慶尙南道に於けゐ移住漁村』 <출전③>, 김수희, 앞의 논문, 151쪽 재인용.

거제는 일본에 우수한 이주어촌으로 알려져 점차 수산업뿐만 아니라 농토까지 자유롭게 매매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어업 자본가들은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조선인 중심의 마을과 행정기구 등을 마음대로 개편하기 시작했다.

(다) 거제의 행정·치안기구

대한제국에서 일제의 식민지로 바뀐 상황에서 민중들은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일본에 의해 바뀐 조선(국호)은 조선총독부 아래 헌병과 경찰들을 대거 주둔시켜 민중들을 탄압하였다.

거제는 1914년부터 일제에 의해 통영군과 병합되어 독자적인 지방행정관청(군청)을 갖지 못하였다. 치안기구는 통영경찰서 관할의 장승포헌병분견소(1914. 3. 1)·

거제헌병분견소(1919. 8)·송진포·구조라·저구미 헌병파견소가 생겨났으며, 훗날 거제경찰서로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또한 거제는 통영군 아래 9개의 면과 면협의회(지금의 의회. 그러나 의결권이나 참정권을 보지하지 않음) 등이 생겨났다. 면제 실시 이후 조선인 자본가나 면 서기 출신자들은 면장, 어업조합장, 금융조합장 등을 맡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통치 양상은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총독정치, 헌병·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무단정치였다. 1907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병전쟁은 일제의 강제진압으로 끝났으나, 그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족해방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3) 거제의 항일운동

(가) 3.1민족해방운동과 청년회 활동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는 조선의 전 민중들을 들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내외로 펴져 있던 민중들은 일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 첫 계기가 3.1민족해방운동이었다.

1919년 3.1운동은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거제지역의 항일운동은 이운면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3.1민족해방운동 이후 거제지역은 청년, 사상단체 등이 등장하였다. 러시아의 혁명이 성공하자 국내 독립운동가들도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하여 혁명을 꿈꾸고 실천하기에 이른다.

거제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4월 3일 이운면 아주장터에서 시작되었다. 원래 연초면 출신인 윤택근은 이주근·이인수·이공수 등과 거사를 결의하였다. 4월 1일 이운면 아양리 서당에 모인 윤택근은 종이 10여 매에 대한제국독립만세 라고 크게 쓴 격문을 만들었다. 다음 날 중심인물들은 아주리 이선이 집에 모여 회합하였다. 회합 후 이인수는 이중수와 함께 격문을 눈에 잘 띄는 인가의 대문에 붙이거나 아주장터 길 위에 뿌렸다. 4월 3일은 아주리 장날 윤택근·이주근·이인수·이중수 등은 오후7시 반경 장터에 모인 이운면, 연초면 주민 2,500여 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거제지역 헌변분견소와 송진포 해군방비대, 가조도 해군경비대 등으로부터 헌병, 경찰들이 곧바로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 사건으로 윤택근·이인수·이주근 등이 검거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주장터 시위 이후 1919년 4월 6일 이운면 옥포리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있었다. 3일 전 아주장터 시위에 참여한 주종찬은 4월 5일 옥포교회 교인들과 함께 옥찬영 집에서 시위를 결의하고 다음 날 6일 오전 11시경 옥포리 망덕봉 앞에 서서 큰 깃발을 들고 옥포 일대를 행진하고, 오후 4시경까지 아주장터를 지나 이운면사무소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주종찬은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를 받았다.

거제지역의 3.1운동 이후 출옥한 윤택근 등은 항일운동 색체의 청년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청년회 운동은 거제면을 시작해 자연마을까지 조직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거제도의 각 면과 마을 단위의 청년회는 다음과 같다.

기성청년회(중심인물 하철원)는 1920년 4월 이전에 창립되었으며 회원50여 명으로 거제서상교회당에서 여러 번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기성청년회는 1920년 4월 22일 동아일보 통영분국장 여성병(呂柄燮)의 강연, 5월 25일 성동의 백련암 부근에서 야유회와 강연회 등을 진행하였다.[35]

이운청년회는 거제의 청년운동에 중핵으로 등장했으며 이정(李貞), 신연권(辛綖權), 이주권(李柱勸), 윤택근(尹澤根), 주종찬(朱宗贊), 지한명(池漢明), 지한철(池漢徹), 김진배(金進培), 이인수(李麟洙), 윤봉근(尹鳳根), 김응수(金應水), 윤열(尹烈), 진정률(陳正律), 진재수(陳在守) 등 1923년에 창립되었으며 회원이 200여 명에 달했다.

1924년 6월 11일에 이운청년회관 신축해 거제청년연합회와 조선일보 거제지국에 무상 대부하고 보통학강습부를 두며 농민 남녀의 야학도 개설했다.[36] 1926년 4월 10일 이운청년회는 제6회 정기대회에서 사상단체와 노동운동, 사립학원 양정학원 운영하였다.

연초청년회는 1922년경에 창립되었으며 보명(普明)강습회에서 주로 회의와 행사를 벌였다. 1926년 9월 23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단체중앙협의회 대표 선정, 거제청년연맹 정기대회 대의원 선정 등을 선정하였고, 옥상목(玉相牧), 옥산(玉山), 이적(李赤), 이주목(李柱牧), 반영기(潘英機, 潘淸), 정혁(鄭革) 등이 중심인물

35) 『동아일보』, 1920. 5. 14, 6. 11.
36) 『조선일보』 1924. 6. 24.

로 활동하였다.

둔덕청년회(회장 유근찬)는 1921년 창립되었으며, 둔덕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청년회는 노동야학, 기근구제, 물산장려와 같은 사회운동을 벌였다. 또한 둔덕지역의 청년회인 둔덕우리회(회장 박도영)는 원명(元明)강습회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규약 통과시키고,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동부청년회는 1924년경 창립되었고, 1926년 1월 12일 제4회 정기대회에서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변경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의 강령을 제정하는 '혁신'을 단행했다. 중심인물은 원성호(元聖鎬), 원직상(元直常), 김헌수(金憲洙) 등이다.

사등청년회는 1923년경에 창립되었다. 집회장소는 기성강습회와 진명강습회이다. 1925년 10월 23일 체육단(光鮮團)을 운영하고 노동야학을 열고 1926년 1월 5일에는 소년소녀웅변대회를 개최했다. 중심인물은 원세헌(元世憲)이다.

그 외 거제지역 청년단체의 상황을 보면, 하청 청년회는 1924년 2월 이전에 창립되어 거제청년연합회에 참가했다. 또한 일운면 지역의 지세포청년회와 소동(小洞)청년회가 있는데, 소동청년회는 1926년 3월 19일 황명노(黃命老) 집에서 회장 윤인석(尹仁錫) 사회로 제6회 정기대회를 열고 종래의 회장제를 위원제로 개정하는 동시에 강령과 규약 등 내부를 혁신하고 회원 연령 제한도 있었다. 또한 능포청년회(이운면, 1923년 창립, 중심인물 지한철) 장승포청년회(이운면, 1924년 2월 이전 창립), 장승청년동맹(이운면, 1926년 9월 29일 창립, 중심인물 김광(金光·金應水), 유계청년회(하청면, 중심인물 황주수(黃周守), 1926년 5월 15일 창립, 집회장소 유계학당), 구조라청년회(1926년 창립, 중심인물 노상선(盧祥善), 회원 29명, 자산 50엔) 등이 있었다.

(나) 거제지역의 연합 청년운동과 주요 항일운동가

1924년 2월 11일 거제도 내 각 면·리에 분립된 7개 청년단체 대표자 20여 명이 모여 거제청년연맹을 결성한다. 이는 조선청년총동맹 결성 이전으로써 거제지역 청년운동의 선진성을 보여 준다. 참가한 7개 청년단체와 그 대표는 연초(옥상목, 옥상동(玉相東)), 이운면(신정권, 장처상(張處相)), 하청면(박노신(朴魯臣), 김종선(金鍾善)), 둔덕면(유근찬(柳根讚)), 사등면(양원현(梁元現)), 지세포(서기백(徐琪白)), 장승포(김응수, 김종수(金鍾洙))이다.

1926년 8월 12일 거제도 내의 '정수분자(精秀分子)를 망라'한 신흥청년회가 창립된다. 또한 회원에 대해 달마다 50전 어치 이상의 신문, 잡지 구독, 거제청년연맹 주최 강화회 청강, 조직 예정인 사회과학연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청년회의 회원은 대개 거제청년연맹의 간부이다. 거제청년연맹이 거제지역 청년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형태의 청년회가 출현한 것일까. 이 단체의 위상은 '서울파'의 서울청년회나 '화요파'의 신흥청년동맹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제의 청년운동가들이 서울파에 속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파의 노선을 좇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27년 10월 26일 제3회 정기대회에서 신흥청년동맹은 군 단일 청년동맹 결성을 결의하고 스스로를 거제청년동맹으로 개칭, 지회 모집에 나선다.

그 다음날인 27일 거제청년연맹은 제8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체와 동시에 군 단일 청년동맹 결성을 결의하는데, 그 방식은 청년연맹의 세포단체인 거제청년동맹(전 신흥청년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왜 거제청년연맹 스스로 거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지 않고 세포단체인 신흥청년회를 거제청년동맹으로 개칭, 확대한다는 비정상적 방법을 취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거제청년연맹에 세포단체로 들어와 있던 면,리 단위 청년회들(특히 유지들)이 수년간 독자성을 유지해 온 자기 단체를 해체하고 청맹의 지부와 반으로 재편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이지 싶다.

1927년 10월 26일 신흥청년회의 개칭을 통해 결성된 거제청년동맹은 이듬해 2월과 7월의 제3, 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곧 지한명, 김광, 반청, 윤봉근(김광과 지한명은 청맹의 전직, 현직 집행위원장)등이 체포된 데다 일제 경찰의 엄혹한 감시와 규제가 가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시기에 오면 거제도 청년운동에서 세대교체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위원장 김인(金仁)은 신흥청년회 때부터의 간부이지만, 집행위원 전원(지한용(池漢湧), 박남덕(朴南德), 박태기(朴泰基), 이주준(李柱俊), 김종호(金鍾浩), 제목(諸穆), 하희(河嬉), 김찬이(金贊伊), 박재휴(朴宰烋), 주철환(朱哲煥), 박을화(朴乙華), 한상윤(韓相潤), 하유기(河攸基), 전관대(田寬大), 곽문종(郭文鍾))이 1920년대 청년운동에서는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거제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 지역이 이운면(아양리, 아주리, 장승포리)에서 거제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면은 1914년 군 통합 이전에는 거제읍으로써 거제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사회운동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런데 1931년 4월 11일에 오면 거제면이 거제도 사회운동의 중심 지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거제청년동맹, 경남청년연맹, 통영청년동맹의 후원까지 동원하여 일제 경찰의 금지를 뚫고 서상리 옛 성동상점(城東商店)에서 40여 명의 맹원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다음 거제의 사상단체인 『화화회(火花會)』는 1926년 10월 9일 이운청년회관에서 임시의장 이적(李赤) 사회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화화회의 활동은 1927년 4월 19일에 해체를 결의하고, 지난 10일 이운청년회에서 김광(金光)씨의 사회로 해체식을 거행하였는데 해체선언을 낭독한 후 사상단체 해체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끝마쳤다.[37] 이 부분은 조선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화화회는 조선공산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그것은 192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사상의 급속한 보급 확대와 노동, 농민, 청년운동의 급성장에 따른 합법칙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당이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주요한 분파의 서울파를 배제해 버리고 화요파 중심으로 결성됨으로써 땅 창건 이후 분파투쟁은 해소되기보다 대규모로 증폭되었다.

1926년 6월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전까지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양대 산맥인 화요파와 서울파는 필사적으로 자파 세력의 확대에 몰두했다. 당 창건과 분파투쟁의 격화는 공산주의운동의 전국 각 지역으로의 확대를 가속화했으나 전국 각 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을 그 출발부터 무원칙한 분파투쟁으로 얼룩지게 했다. 서울은 물론 지역의 공산주의세력 가운데 양대 분파의 어느 하나에 속해 있지 않은 세력은 없다.

1925년 11월에 접어들자 각 도 청년연맹 결성이 일정에 오르게 된다. 이를 둘러싸고 화요파와 서울파는 도처에서 격돌했다. 경남에서도 마산청년연합회를 중심으

37) 『조선일보』 1927. 8. 14.

로 하는 화요파와 창원청년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파가 각각 경남청년연맹을 발기했다. 거제도의 청년단체 이운청년회, 연초청년회, 둔덕청년회, 둔덕청년회, 동부청년회는 창원중심의 경남청년연맹발기준비회에 가입했다. 옥상목, 윤성권, 윤일은 준비위원 올랐다. 특히 윤일은 6명의 상무준비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926년 6, 7월 일제의 대검거로 화요파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와해되자 양명(梁明)을 비롯한 '레닌주의동맹'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당 재건이 개시되어 그해 12월 6일 조선공산당 제2차 당대회를 개최, 조선공산당을 정식으로 재건하기에 이른다(제3차 조선공산당=엠엘당). 여기에는 서울파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각 분파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통일당' 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시기에 거제도의 공산주의자들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윤일은 1927년 봄에 조직된 경상남도위원회 책임비서를 맡고 있다. 아울러 1927년 2월에는 거제도의 이운면과 연초면에 고려공산청년회의 야체이카(세포)가 조직된다(당 야체이카가 조직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거제도 조직의 책임자는 김광(김응수)였고, 야체이카원은 지한명(池漢明, 가명 池明), 반청(潘淸, 본명 潘英機),윤봉근, 정규홍 등이었다.

또한 전위대로서 정혁, 반영기, 지한명, 윤봉근, 김응인, 장기상, 이동해, 배수명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야체이카원으로써 거제청년운동의 핵심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거제청년동맹 회원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강화회 등을 개최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교양했다. 그리하여 거제도의 사회운동에도 조선공산당의 지도가 관철된다.

거제청년연맹은 1927년 3월 1일 정우회선언과 신간회 결성을 지지하고, 사상단체 화화회도 1927년 4월 19일 해체 결의한 배경이었다. 그해 10월에 오면 신흥청년회와 거제청년연맹에서 군(郡) 단일 청년동맹 조직을 결의, 거제청련을 해체하고 거제청년동맹을 결성한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당시 조선공산당의 운동 방침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이들은 제3, 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되거나 해외로 도피하게 되는데 일제 경찰의 취조 과정에서 자신들이 공산주의사상을 포지하게 된 동기에 대해 한결같이 '제국주의 하의 민족모순과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모순에 분개하고 이를 저주하여 민족해방과 평등 사회 건설의 유일한 방도가 공산주의운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검거된 5명 가운데 윤일과 김응수만이 기소되고 반청, 지한명, 윤봉근은 증거 불충

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것은 검거된 5명이 일제 경찰, 검찰의 악랄한 취조 과정에서 야체이카 조직 사실을 완강히 거부한 덕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 검거를 피해 만주로 도피한 정규홍은 길림성 부여현 북삼하자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계속해서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하고 있다가 1929년 10월경 서상파의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에 가입, 1931년 5월에 체포되고 만다. 이후 불기소로 풀려난 후 거제도에서 공산주의운동을 지속하고 있던 지한명과 반영기도 이때 정규홍의 진술로 말미암아 제4차 조선공산당 야체이카원이 판명되어 검거되고 말았다.

다음 이운소년회는 이운면 지역의 청년회원들이 주도하는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5년 11월 이운청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운소년회는 경남도 소년연맹회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경남지역의 소년단체들은 1927년 7월 8일 「경남소년연맹」을 결성하였다. 조선소년총동맹에서 도연맹의 조직을 계획하고 노력한 결과 경남도소년연맹설립대회를 1928년 7월 8일 오전 10시 밀양청년회관내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6개단체 대의원 21명이 출석하였으며 정홍철의 개회사, 대회의원첨명, 최선규의 경과보고가 끝난후 23통의 축문과 11통의 축사는 윤소성이 낭독하고 임시집행부를 선임하여 정홍철이 임시의장이 되었다. 그 외 일신단(一新團)은 민중계몽운동단체로, 야학회 운영과 각종 경매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일신단은 아주리 일신회관을 건립하여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였다.

또한 거제지역의 항일운동가들은 연초의 권오진, 하청면의 신용기(辛容祺·1901~1948·이명 辛鐵·고려공산당)·서환수(徐桓洙·1888~1940·대구서 활동), 사등면의 양명(1901～1945·사회주의운동가·의열단·조선공산당 상해부 야체이카 위원), 능포동의 옥영준(독립군 자금 모집운동), 신대식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제도에서는 신간회 창립대회 이후 지회 결성 준비에 들어간다. 5월 17일 이운청년회관에서 지회발기회를 개최하여 회원 모집위원 7명, 옥산(玉山), 박달(朴達), 윤사인(尹士仁), 주인발(朱仁發), 김성(金聲), 윤열(尹烈), 김진배(金進培)를 선출했다. 일제 경찰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사상단체가 해체되고 민족협동전선으

로써 신간회 지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길로 주시하게 되고 지회 설립에 대해 제동을 건다.

양심적 민족주의 명망가인 이정(李貞)과 윤사인이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실무직인 간사(서무부 총간사 옥산, 간사 이주근(李柱勤), 장기상(張基相), 지한철, 정치문화부 총간사 김광, 간사 이인수, 손도상, 조사연구부 총간사 김성, 진홍기, 최봉근, 선전부 총간사 김일, 주인찬(朱仁贊), 윤열, 조직부 총간사 박달, 상무간사 김순남, 지명, 황명노)는 청년 사회주의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양상이다.

거제도의 농민, 노동단체로서 확인되는 것은 삼진동맹과 하청농우회, 거제노동 동우회이다. 삼진동맹은 1924년 5월 30일 연초면 이목리에서 이목, 천곡, 명동 3리를 중심으로 소작쟁의(小作爭議) 농민대회가 개최되어 삼진농민동맹(三進農民同盟)이란 회를 창립했다. 이날 의장 김계윤(金季潤) 사회로 설립위원의 대표인 옥명환의 취지 설명이 있었고 규약을 통과시켰다.

(다) 전시체제와 전쟁의 강풍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전쟁물자 생산, 인원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또한 조선의 전 민중들을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씨개명과 징병제까지 실시하면서 전쟁의 도구로 삼았다. 일부 조선인 또는 지역의 유지들은 일제의 협력에 따라 친일파로 변신하여 눈부신 활약을 벌였다.

또한 1938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1주년되는 날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조선연맹)이 결성되어 조선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개시되었다. 이 운동은 황국신민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읍면과 마을 단위까지 결성되어 내선일체 실현과 전쟁동원에 앞장서게 되었다. 지방연맹은 부락연맹과 각종 부문단위의 연맹, 최하위의 애국반까지 결성하여 '조직망 중 가장 말단의 기저적 실천기구'로 '자발적 적극적'으로 운영되었다.

1940년 일본은 조선연맹 이후 국민총력운동조선연맹을 결성하여 태평양전쟁의 물자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징병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일제는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 17세 이상인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조선총독부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할 가망이 있는 자'는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려고 하였다. 수많은 조선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육군지원병으로 전선에서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인 1943년 전국에 국민징병제와 정신대 등이 결성되었고, 징용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인들이 노무·강제노역으로 끌려갔다.

1939년 10월 1일 거제지역의 경방단이 결성되어 소방, 치안 등을 담당한다는 미명 아래 일제의 전쟁동원에 협조하였다. 또한 전시체제 아래서 쌀을 통제하고 증산하기 위하여 미곡통제조합을 결성하였다. 1941년 9월 국민총력 통영군연맹 산하 거제지역의 각 연맹은 통영군의 지시에 따라 각 리단위의 연맹 결성, 애국반의 총력운동을 강화하고자 전 직원을 동원하여 부락연맹 간부, 애국반장의 시국인식과 단체정신, 내선일체 국민총력운동의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9월 15일부터 각 국민학교강당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실시하였다.[38]

전쟁 막바지인 1944년 1월 24일 통영군은 '보도특별정신대(報道特別挺身隊)'를 결성하여 하청면에서 '미영격멸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민총력하청면연맹, 각 부락연맹, 애국반, 남녀 농촌청년, 마을의 중심인물 등을 총 동원하였다.[39]

이러한 강연은 전시체제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만들어진 술책이었다. 또한 육군지원병 실시 이후 식량동원, 병력동원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다음으로 일제는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내선일체를 실행한다는 이유로 '창씨개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40년 8월 10일 최종 마감된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관내 창씨개명자 수는 46,842가구나 되었다.[40]

또한 전쟁 막바지인 1944년 1월부터 전투기를 헌납하기 위해 하청면민들은 행정기관의 독려에 의해 성금을 바쳐야 했다. 일제는 '비행기를 보내기 위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헌납운동은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전하고 각 읍면을 통하여 헌납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였다.[41]

---

38) 『부산일보』 1941. 9. 3·9. 20
39) 『부산일보』 1944. 2. 8.
40) 『부산일보』 1940. 8. 14.

일제는 국방헌금과 애국채권도 모자라 공출을 시행하였다. 통영군은 1944년도 '농업생산봉사제'(공출)를 실시하여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청회의실에서 읍면서기를 대상으로 기술원회를 개최하였다.

일제는 놋그릇까지 공출하고도 부족하다 하여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장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 중에는 소년병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의 초등학생들을 신훈병으로 뽑았다. 1944년 3월 22일 오전 9시 반부터 통영공립국민학교정에서 육군소년병 000명의 장행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읍내 각 중학교, 국민학교, 여자청년대, 지역각단체대표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주최자의 장행사(壯行辭)에 통영중학교장, 지원소년병 대표, 소년병 송환가, 해군 합창을 마치고 성수만세를 부르고 훈련소로 끌려갔다.[42]

1941년 10월 30일 현재 육군특별지원병에 응모한 사람들을 보면, 경남도에 5,853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았다.

일제의 전시체제는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조선어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소·영국 등의 연합군은 일본에게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조선을 해방시켰다.

## 7. 현대 사회의 거제시

### 1) 해방과 거제

1945년 9월 6일 건준의 발전적 해체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고 지방 건준지부들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인민공화국(지방인민위원회 포함)은 해방직후 미군정을 제외하면 강력한 정치세력이었다.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치안 유지, 물자의 확보, 교통의 복구, 일제잔재의 축출, 소작료 3·7제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1945년 말까지는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다.

경남에서는 10월 5일 건준 경남도지부가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경남도 인민위원회(위원장 윤택근·거제출신·3.1운동 참여)가 조직되었다. 1945년 10월 6일 제1회 조선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인민위원 93명 중 70명이 참석한

41) 『부산일보』 1944. 2. 9.
42) 『부산일보』 1944. 3. 26.

가운데 조직 및 시군 단위의 인민위원회 조직 등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날 각 부·군 위원 대표 22명 중 거제·통영 출신자들은 윤일(윤택근), 박철암(朴鐵岩, 옥포 출신), 신상헌(辛尙憲), 김재수(金在守), 김영식(金永植), 박홍준(朴洪晙), 김정규(金正奎) 등이었다.[43]

통영군 아래 있던 거제도 인민위원회는 1945년 10월 20일 거제의 민중들을 위한 자치기구를 결성한다.[44] 이 위원회는 통영군과 별도로 거제도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치안유지, 세금징수, 인구조사, 기타 중요한 통계수치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군에서 경찰력을 장악했다. 거제 인민위원회에서 임명된 읍장·면장·면서기·경찰서장 등은 미군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되어 1946년 4월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946년 4월 이후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좌익단체들을 불법화시키고 일제강점기의 관료들을 재임명하였다.

반면 우익단체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국민회), 한국민주당(한민당) 등 다양한 사회단체·정당 등이 속속 결성되었다. 1946년 5월 국민회 장승포지부, 8월 25일 국민회 거제면 지부는 위원장 하익원(河益源), 부위원장 하전원(河銓源)·이훈두(李薰斗), 총무부장 김병욱(金秉旭), 차장 이기현(李琪鉉)[45] 등이다. 거제지역의 주요 우익단체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김홍관(金弘官) 국민회 둔덕면 지부장, 김종찬(金鐘瓚, 장목면 서기, 장목면장) 국민회 장목지부장과 국민회 거제군 부지부장, 반성환(潘星煥) 대동청년단 경남도단부 단장, 국민회협회 상무이사 및 부산지부 부위원장, 박대길(朴大吉, 거제면 서정리 출신, 면서기, 거제면 농회장) 대한청년단 거제면단부 단장, 신용우(하청면장) 국민회 하청지부장, 손근수(孫根守) 한청 장목면단장, 이우조 국민회지부 재정부장, 대한군사원호회 부회장, 한청부단장, 시국대책위원회 재정부장, 이채환 민보단장, 대한경찰후생협회(大韓警察厚生協會) 거제지부 지부장 김종성(金鐘晟), 부지부장 배삼식(裵三植)·김병우(金炳佑), 상무이사 김종득(金鐘得), 정인도 민보단 일운면단장, 진홍기 국민회 거제군지부장, 진도선 대동청년단 장승포지부, 하정실 국민회 거제지부장, 정남기(鄭南箕) 민보단장 대동청년단장 대한청년단장, 외포중학교 기성회 이사, 외포수산주식회사 전문 등을 지냈다.

그 사이에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는 좌우갈등 속에서도 김구와 같은

43) 『人民解放報』, 1945. 10. 8.
44) 『民主衆報』, 1945. 10. 15.
45) 『自由民報』, 1946. 8. 25.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구의 암살 이후 남북한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과 거제시

(가) 한국전쟁과 거제도 포로수용소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제주 4.3항쟁, 여순사건 등을 계엄령을 발동해 진압에 나섰다. 정부는 군·경을 동원해 진압작전에 나섰으나 다수의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예외상태(전쟁·계엄·군사작전·주민소개)는 전국에서 발생하여 이승만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용한 섬 거제는 제주와 비슷한 양상을 겪게 된다. 1949년 봄에 있었던 야산대토벌작전은 마산 16연대, 호림부대가 주도하고 장승포경찰이 합동작전을 폈으며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가 동원되었다. 장승포경찰서에서는 군경합동회의가 열려 토벌작전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16연대는 육군본부 일반명령에 의거 3여단 하의 마산 15연대 잔류병을 기간으로 하여 1948년 10월 28일에 창설되었으며 창설 당시 연대장은 박시창(朴始昌, 1903~1986)이었다. 1949년 6월 20일에는 국본 일반명령 제17호에 의해 보병 제2사단으로 편입되었다.[46]

16연대 사령부는 1949년 3월 5일 김유종(金裕鍾) 소령을 부대장으로 하는 '거제지구 전투부대'를 토벌군으로 파견하였다. 부대이동은 비밀에 부쳐졌고, 16연대 각 대대에서 병력이 차출되어 토벌군이 꾸려졌다. 부대규모는 최소 150명에서 최대 400명으로 의무대와 헌병대가 포함되었다. 이 작전은 1949년 4월~1950년 5월까지 최대 300여 명의 민간인들을 '공비'로 오인하여 집단적으로 희생시킨 사건이다.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예전의 좌익 또는 혐의자,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관변단체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반공교육을 실시하여 애국자를 만들고자 내세우 단체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북한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도연맹에 가입된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학살을 저질렀다.

---

46) 보병제사단, 『백골사단역사(1947. 12. 1~1980. 10. 31)』, 978~107, 978~109.

거제지역의 보도연맹원 집단학살 사건은 군·경·우익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0년 7월 14일(또는 15일) CIC통영파견대장 강경일(康耕一)은 거제경찰서, CIC문관 등에게 거제의 갑종 국민보도연맹원 43명을 즉시 구속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과 거제 국민보도연맹원 260명 중 을종 악질에 해당하는 자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오후 6시 이 명령을 받은 거제경찰서는 다음날인 7월 15일(또는 16일) 각 지서 소속의 경찰관에게 통보하여 갑종 국민보도연맹원 43명을 소집하여 구속하였으며, 7월 19일 오전 10시 사찰주임 강화봉이 중심이 되어 을종 국민보도연맹원 29명의 명단을 뽑아 CIC통영 파견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CIC통영 파견대장 강경일은 7월 21일 오후 9시까지 을종 국민보도연맹원 29명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거제경찰서 등은 이 명령에 따라 29명의 을종 국민보도연맹원을 모두 구속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47] 거제지역의 보도연맹원 학살은 최소 700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전쟁전후 거제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최소 1,000여 명이다.

한편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였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7월 하순 경남북을 제외한 지역을 인민군에게 넘겨줘야 했다. 결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북한 전쟁에 개입하기로 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파견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승만은 7월 14일 유엔군의 지휘권을 가진 미국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까지 넘겨주었다.

한편 북한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혁정책을 점령한 남한 지역의 1,526개면 가운데 1,198개면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다. 유엔군은 10월 7일 평양을 점령하고 중국 국경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의 전쟁 참전으로, 1951년 1월 4일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그리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중부전선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47) 육군법무내발제273호, 「민간인 강화봉 외 4명에 대한 살인 및 무고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심사건의의 건」, 1951. 2. 28.

중국군 참전 이후 1951년 1월 각지에서 발생한 전쟁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전, 대구, 부산, 거제 등지에 전쟁포로수용소를 설치하였다. 이승만은 1953년 6월 8일 휴전회담에서 포로송환협정이 서명되자 6월 18일 일방적으로 2만 5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정협정이 체결되자 모든 전선에서 총성과 포성이 멈추었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서울 등지에 있던 피난민들이 거제, 부산, 제주도 등지로 몰려왔다. 1950년 12월 19일 피난민 구호관계자연석회는 경남지사 응접실에서 한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난민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거제도에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용소는 각 도에서 자재를 알선하고, 피난민 자신들이 건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에 도착하여 정착하지 못한 피난민들을 거제도로 이송하여 수용하게 하였다.[48)]

거제도는 전쟁포로와 피난민수용소 등을 수용하는 수용소군도로 바뀌었다. 1950년 12월 말 중국인민군 616명을 포함해 137,212명은 부산 서면, 수영 대밭, 가야리 등지의 5개 구역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다시 1951년 2월 부산에 흩어져 있던 포로들은 거제도포로수용소로 이동하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은 북한군, 중국군, 남한출신의 북한군, 민간인 억류자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수용소는 1950년 11월 "알바니"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최대 20만 명의 포로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약 250만 평의 광대한 농토와 임야, 3000여 호의 주택을 사전통고나 어떠한 보상도 없이 징발하여 건설됐다.

1950년 11월 27일 유엔군 사령부는 일운면 고현출장소 장평비행장을 시작으로 고현·문동리(인민군 포로), 장승포읍 관할인 수월·해명(중공군 포로), 수월리 주작골(여자 포로), 양정·수월리(인민군 포로), 고현·수월리(남한출신 의용군), 연초면의 송정리(포로공동묘지) 등지에 천막 수용소를 설치했다.

1950년 11월에 포로수용소는 천막으로 막사를 설치했으나, 1951년 봄에 태풍으로 텐트 막사가 모두 훼손되어, 일부 막사에 "시멘트"를 사용했다. 거제도의 전체 수용소는 4개의 구역과 28개의 수용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중앙 계곡엔 제6구역, 동부

48) 『부산일보』, 1950. 12. 22.

계곡엔 제7, 8, 9구역이 설치되었다. 또 이곳에는 3천개의 침대를 보유한 제64 야전병원과, 합계 2천 5백 개의 침대를 가지고 있는 2개의 별관부속병원(요양소)이 설치됐다. 또한 바다를 통한 포로의 양륙 및 물자의 수송을 위해서 5개소의 LST 상륙 해안과 수상부두가 있는 항구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여러 차례 포로들이 학살됐다. 포로들은 미군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리심사, 고문 등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미군은 저항하는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1951년 9월 포로 15명이 사망하고, 12월 제73동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951년 11월 제1차 강제분류심사가 실시되고, 1952년 2월 18일 제2차 강제분류심사가 이어지자 인민군 포로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62수용소에서 포로와 민간억류자 77명이 강제분류심사를 반대하다가 사망했고, 미군 1명, 포로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1952년 3월 16일과 17일 제93수용소에서 20여 명이 사망했고, 제72수용소에서 28명이 사망했다. 1952년 4월 11까지 약 6만 6천 명을 강제분류 심사를 하다가 중단했다. 이날 포로 사망자 7명과 부상자 65명을 낳았다. 1952년 5월 21일 미 국방성에서 열린 미국상의원 군사위원회는 거제도포로수요소에서 발생한 포로들의 학살사건을 다루었다.

1952년 5월 7일 포로수용소장이었던 돗트 준장이 인민군에게 감금됐다. 이때 밴 플리트는 임시 수용소 소장 콜슨에게 5월 10일 제76구역 무력 진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952년 5월 10일 오전 8시 북한 인민군 대좌 이학구로부터 포로의 요구 문서가 콜슨 준장에게 전달됐다. 포로들은 돗드 사령관의 몸값으로 4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5월 12일부로 콜슨 소장을 직위 해임하고, 미 제2사단 부사단장인 보트너(Hayden L.Boatner) 준장을 신임 소장으로 임명하고 돗트와 콜슨은 대령으로 강등됐다.

1952년 6월 10일 보트너의 임명과 함께 일본에 주둔해 있던 187공수여단을 비롯해서 영국군, 캐나다, 그리스 중대 등 3천명과 탱크 부대까지 거제도에 증파했다.

1952년 7월 17일 보트너는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제17수용소)에 12,000명의 북한 송환희망 포로들을, 한산도 부근 용초도(제18수용소)에 8,000명의 북한 송환거부 포로들을, 봉암도(제19수용소)에 10,000명의 민간인 억류자들을 각각 수용하고 분리작전을 실시했다.

1952년 6월 2일 보트너는 '적기를 게양하는 모든 포로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차를 앞세우고 중국군 포로수용소에 진입해 중국 국기를 소각시키고, 6월 4일에는 60, 85, 96수용소에 들어가 적기를 소각했다. 본격적인 포로 학살은 1952년 6월 10일 41명의 포로가 숨지고, 279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인민군포로들은 6,800여 명 중 2,200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1952년 10월 1일 제주도, 12월 14일 봉암도에서 인민군 포로 1,75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전체 포로교환은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우여곡절 속에서 총 88,596명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양측이 교환한 포로는 다음과 같다. 유엔군 측이 북한·중국 측에 인도한 포로가 75,823명(북한군 70,183명, 중공군 5,640명)이었고, 북한·중국 측이 유엔군 측으로 인도한 포로가 12,773명(한국군 7,862명, 미군 3,597명, 영국·터키·필리핀·캐나다·콜롬비아·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그리스·네덜란드·벨기에·뉴질랜드·일본 등 1,314명)이었다. 1953년 9월 23일까지 북한과 중국 측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포로는 22,604명(북한군 7,900명, 중공군 14,704명)으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인도로 관리국에게 인계했다.

1951년 2월 25일 현재 거제도에 정착한 피난민은 69,763명이었다. 유엔 주한민사처 거제도팀(UNCACK Koje Do Team)은 1951년 3월 25일 장승포에 소금 57,500kg과 여성의류 7,821벌을, 3월 27일 하청면에 쌀(Break Rice, 도정된 쌀) 100,000kg을, 3월 28일 장승포에 목탄 300,000kg, 쌀 96,900kg을 피난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49] 그러나 일부 공무원 등이 구호미(救護米)를 가로채 착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51년 5월 5일 거제도팀이 집계한 거제지역의 피난민 현황을 보면, 장승포에 20,018명으로 최고로 높았다.

(나) 군사독재와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 사건과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 등으로 실각하고 말았다.[50] 그리고 장면의 과도정부가 등장했다. 거제지역의 민중들은 새로운 봄을 맞아 직접 교육감·읍면장·의원들을 직접 뽑아서 민의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이

49)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UNCACK), 1951, Box18, Supply Report, File No. 400,Box18 4 of 4, 「Weekly Report」, 1951. 3. 3.
50) 이승만은 미국의 사퇴압력에 의해 장기집권을 끝내고 도망자처럼 미국 하와이로 갔다.

미 한국전쟁 와중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거제지역의 읍·면의원들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장면 내각 시절에 교사들이 교원노조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 5월 16일 새벽, 4월 혁명의 함성이 사라지지 않은 미명에 박정희와 육사 5·8기생, 해병대와 함께 군부 안에 쌓인 고위 장교들의 진급 불만, '무능한 장면 정권 때문에 생긴 사회 혼란과 정치 불안'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켰다.[51]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는 반공에 충실한 '반공국가'임을 자임하였다. 박 정권은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운동,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에 나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의 경제정책은 독점자본을 적극 지원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저임금과 저곡가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또한 외자 도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하는 등 '차관경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나선 박 정권은 거제에 대우조선소와 삼성조선소 등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중공업 정책은 거제지역의 경제·문화·사회간접 자본 등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거제는 인구 증가와 거제대교 가설로 탈도서(脫島嶼)에서 벗어났다. 거제대교 완공 이후 거제지역은 전국에서 유명한 피서지로 알려지면서 해금강·구조라·와현 등지가 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정치적으로 박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거나 사법살인, 노동자 탄압 정책 등으로 일관하여 1979년 10월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12.26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196,70년대 거제민중들은 정부의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졌다.

거제는 대우·삼성 대규모 사업장에 들어온 노동자들과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던 거제출신 민주화운동가들에 의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거제는 민주화 봄을 맞아 대우조선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운동을 벌였고 삼성조선소에서도 노조 설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종교·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민주화운동의 밑거름에 따라 거제시는 여러 부문의 시민단체(종교·환경·경제·시민부문)와 주민자치조직도 생겨나게 되었다.

51) 역사학연구소, 2004, 앞의 책, 344쪽.

(다) 거제군의 복군과 새로운 미래

거제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무단적으로 행정구역을 잃어 통영군에 복속되었다가 다시금 '거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1950년 11월 26일 거제는 전시 행정의 폭주와 원주민, 피난민 그리고 포로와 포로수용소 경비군 등 상주인구가 40만 명을 넘었으므로 국회에서 거제군 설치법이 통과되어 다음해인 10월 14일 법률 제271호를 공포함으로써 복군이 확정되었고, 1952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737호로 '군청의 위치를 고현리로 한다. 다만 한국전쟁 수습 시까지 장승포읍을 임시 위치로 한다.'고 제정 공포하였다.

1953년 1월 1일 장승포읍 사무소에 거제군청의 현판을 걸고 사무를 시작함으로써 39년간 통영군에 병합되었다가 복군되어 동년 5월 27일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그리고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하여 반공포로가 석방되었고,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철수에 따라 1956년 10월 1일 군 청사를 장승포에서 고현으로 이전하였다.

1957년 6월 12일(음 5월 7일) 이 충무공이 첫 승첩한 옥포만을 바라보는 아주 당등산에 옥포대첩기념탑을 건립하고 매년 5월 7일에 옥포 대첩기념제전을 개최하고 있다.

1971년 4월 8일 거제대교가 준공 개통됨으로써 거제도는 섬 아닌 육지가 되었다. 1979년에는 죽도에 삼성조선소가, 1981년에 아주 일원에 대우조선소가 준공됨으로써 200만 평의 대지 위에 연간 150만t의 조선 능력으로 세계 속의 조선기지가 되어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었다.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호로 신현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거제군의 행정 구역은 2읍 8면 3개 출장소에 89개의 법정리동, 208개의 행정리동으로 편성되었다. 1980년 일운면에 대한석유공사의 지하석유저장기지 건설 기공으로 거제군은 농수산과 관광 명승지에 공업기지로 도약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동부면 저구출장소 구역이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남부면으로 승격됨으로써 2읍 9면 2출장소가 되었다. 1978년 11월 6일 거제교육청 신청사를 개축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0호로 장승포읍이 장승포시로 승격됨으로써 거제도는 1시 1군(1읍 9면 2출장소)로 편성되었다.

1989년 10월 1일 거제 군민의 날로 정하고 거제군민 헌장을 제정하여 헌장비 제

막식을 가졌다. 1990년 2월 24일 군청 신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로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으로 거제시가 설치되었다. 1996년 12월 통영시를 기점으로 대전광역시 동구를 잇는 208.9㎞의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거제시와 서울과 4시간대로 좁혀졌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부산~진주~광양~목포~제주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환(環) 남해안 벨트가 조성되었다. 2010년 12월 13일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광역시와 연결되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조선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쇠락으로 인해 지역경제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민관 모두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문화와 유적들을 남겼으며, 고대 독자적인 국가 형성기에 작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소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로 접어 든 거제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을 통하여 선조들의 삶을 알게 되었다.

고대 국가 형성 이후 거제는 상군 및 3속현, 고려의 거제현, 조선시대의 두 번의 대규모 읍성 축성과 군사시설 확충과 유배문화의 꽃을 피우는 등 다양한 문화를 남겼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이후 거제는 천혜의 자원과 왕실 어장을 소유한 곳이었으나 일본어민의 어장침탈·일본군의 요새기지화 등으로 민중들마저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거제지역의 민족해방운동가들은 3.1운동·청년·사회·사상·야학 운동 등으로 민족저항의식을 높였다. 해방 이후 거제민중들은 건준·인민위원회 등의 주민자치조직의 발전·거제도 포로수용소 등의 아픈 상처도 남겼다. 이러한 거제시의 역사는 변방에서 벗어나 한국사의 중심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요컨대 거제시의 역사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제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변화·발전하였다. 거제는 섬이라는 지형적·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석기·청동기·철기문화로 이어지는 꽃을 피웠다. 현재까지 신석기 문화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동서남북의 자연마을(공동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이다. 이 사실은 3속현(아주·명진·송변현)의 중심지에서 이미 확인된다.

거제는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비롯해 김해·부산 등지와 같은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라는 점과, 육지통영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선진문물 교류에 배제되지 않고 성장할 수도 있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목장과 염분(鹽盆)의 발달이다. 고려 현종 이후 거제는 칠천도를 시작으로 가조도·산달도·구천동·탑포·영등·장목·조라(구조라)·지세포 등지에 목장을 개설해 운영되었다. 이들 목장은 약간의 편차를 두고 대한제국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거제 내의 자연환경은 목장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는 여러 지역에 염분(鹽盆, 바닷물을 고아 소금을 만들 때에 쓰는 큰 가마)을 설치하였다. 현재 여러 기록에 따르면 거제는 하청·장목·둔덕·도서(島嶼) 지역에서 염분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거제지역의 아름드리나무로 우거진 봉산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이 사례는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 원목, 조선시대의 전선과 거북선의 원목, 각종 산림에서 나오는 버섯 등의 식용작물 등이다. 하지만 거제의 봉산 관리는 조선시대 후반기로 가면서 여러 번 화재를 입어 줄어들거나 한국전쟁 중 숯 굴로 인해 점차 줄어들기도 하였다.

앞으로 고대국가 형성기나 봉건시대 민중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거제지역의 산재한 고대 유적지의 발굴 등을 통하여 땅에 새겨진 역사를 새로이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거제는 예외상태의 환경에서 성장한 도시다. 고려시대 거제는 삼별초 항쟁과 왜구의 침략에 따라 약 150년 동안 육지에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 예외상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과 외부의 권력에 의해 추방되는 상태라고 하겠다. 주요 사례는 전쟁·계엄·주민소개·추방·학살·예비검속 등이 해당된다. 이는 거제 사람들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주지 않고 타자(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지어진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외 두 번의 읍성 축성·삼포왜란·임진전쟁·일제강점기의 통영군 복속·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거제도포로수용 내의 포로 학살사건 등을 예외상태라 하겠다.

이러한 예외상태는 거제지역의 사람들에게 공포 또는 혼란 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거제 사람들은 고려 때의 타지에서 아픈 경험에 절망하지 않고 일부 귀환해 새로이 땅을 일구어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었다. 이들은 황폐화된 토지에서 농작물을 심고 이미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과 화합하여 두 번의 읍성을 만들기도 하였다. 읍성 축성은 중앙권력에 의해 진행된 고된 노동이었다. 그 중에 거제역사상 가장 큰 고난의 시절은 단연코 임진왜란이었다. 약 7년동안 적의 소굴로 변한 거제도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살기위해 떠나간, 비참한 시절이었다. 어떠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제 사람들은, 예전의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삶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날 거제는 없었을 것이다.

셋째, 거제는 타자에 의해 새롭게 피어난 유배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타자(他者·외부 세력)는 고려~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명의 유배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중앙권력에 의해 타자화되어 배제되거나 예외상태로 뒤바뀐 삶을 살도록 강제된 사람들이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문무를 겸비한 고려의 왕씨들, 이행·정황·송시열·김진규 등 저명한 학자들이 변방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은 거제향교의 유생, 반곡서원, 고전문학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이들에 의해 일방적 군사 중심의 도시에서 학문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다.

넷째, 거제는 군사적 도시였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거제시는 봉건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번의 전쟁과 피난을 반복했다. 거제는 지리적 환경에 따라 쓰시마(對馬島)와 인접해 자주 왜구의 침략을 겪어야 했다. 중앙정부는 가배·옥포·지세포·조라·영등포·장목포·율포 등지에 조선수군의 진영을 구축하여 외부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통제영 이전 거제는 남해안 일대의 군사요충지로 부각되어 대규모 군선과 군사들을 배치되었다. 거제는 조선시대의 쓰시마정벌과 두 번의 전쟁 등을 통하여 군사 요새화되어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제도는 임진전쟁 때 7년 동안 일본군의 점령지로 바뀌었으며 일제강점기 초기에도 일본해군에 의해 무단점령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거제를 강인한 의지와

억센 말투로 바뀌어 존재의 법칙을 만들어내었다. 결국 거제의 군사 도시는 타자에 의한 내부의 생존의 도(道)를 만들어낸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겠다.

다섯 번째, 거제는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은 멀리 고려의 좌성과 같은 저항세력에서 일제에 저항한 운동가까지 다양한 세력에 의해 항쟁을 펼친 곳이다.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이 운동은 전 민중들에게 파급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한제국 시대 일부 군수는 일진회 거제지부와 투쟁을 벌였다. 일부 어민들은 일본 어민과 어장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 학문을 겸비한 항일운동가들은 거제3·1운동·청년·사회·사상·체육·교육단체를 결성하여 민족해방운동과 민중계몽운동을 동시에 이끌어내었다. 이들은 일제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 시절에 맞서 목숨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 저항 의식에 투철한 세력들은 거제의 뿌리와 문화·교육을 지켜내는데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특히 이들의 노력은 혼란스러운 해방공간을 거쳐 암울한 전쟁기의 탄압에서 굴하지 않았다. 이들의 정신과 노력은 거제시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도 거제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각종 문화재와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며 그만큼 교육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